천년을 세우다
묘연계좌 : 농협 301-0248-0882-41
예 금 주 : 아름다운 동행
대한불교조계종 미래본부

현대불교 30
창간 30주년
1994~2024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467호 hyunbulnews.com (불기 2567년 음력 12월 7일) 2024년 1월 17일 수요일



조계종은 1월 12일 영축총림 통도사 설법전에서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 신년하례를 봉행했다. 사진은 성파 대종사께 참석 대중이 삼배로 신년하례를 올리는 모습.

“조계종풍 아래서 새 시대 새 꽃 피우라”

조계종, 1월 12일 영축총림서 종정예하 신년하례

원로의장 · 총무원장 등 종단 주요 소임자 200여 명 참석
성파 대종사, 종헌종법 강조
“죽순은 돌에서 피지 않는다”
한동훈 · 홍익표 통도사 찾아 종정예하 · 총무원장 예방도

양산 통도사=윤호섭 기자

조계종의 신성이자 최고 지도자인 중봉 성파 대종사가 종단을 이끄는 주요 소임자들에게 조계종풍을 바탕으로 한 새 시대 혁신을 주문했다. 총무원과 중앙종회를 중심으로 3원 체제인 중앙종무기관을 총무원 1원 체제로 변경하는 작업이 추진되며 갑진년 한 해 많은 변화가 예고되는 가운데 종단 미래를 위해 만전을 기하라는 격려로 풀이된다.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1월 12일 영축총림 통도사 설법전에서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 신년하례를 봉행했다. 신년하례에는 원로의장 자광 대종사를 비롯한 원로의원과 총무원장 진우 스님 등 중앙종무기관 교역직스님들,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과 중앙종회의원, 전국교구본사주지, 주요 신행단체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신년하례는 성파 대종사의 헌향을 시작으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헌다, 원로의장 자광 대종사의 헌화가 이어졌다. 통도사 노전스님의 창불에 따라 부처님전에 큰절을 올린 사부대중은 이후 종정예하께 삼배를 올리며 새해를 맞이하는 예를 다했다.

이에 성파 대종사는 〈금강경 오가해〉에서 송나라 야보 스님의 게송 ‘구죽생신순(舊竹生新筍) 신화장구지(新花長舊枝)’를 통해 사부대중이 명심해야 할 자세를 강조했다. ‘묵은 대나무에서 새순이 나고, 새 꽃은 묵은 가지에서 자라난다’는 뜻으로 그 어떤 혁신이 있더라도 모든 것은 과거부터 이어온 전통과 뿌리에서 비롯된다는 가르침이다.

성파 대종사는 “종단은 조계종풍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꽃을 피워야 한다”며 “부처님 말씀은 경전으로 배우고 조사스님들 법문 귀로 들어 알지만, 세 살 먹은 어린이가 아는 것을 팔순 노인이 행하기 어렵다는 말처럼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대종사는 이어 “너무 자주 움직이는 짐승은 화살을 맞기 쉽고, 너무 자주 나는 새는 그물에 걸리기가 쉽다”면서 “부처님과 조사스님들 말씀을 거울로 삼으라. 우리 종단은 체계가 잘 구성돼 있기에 종헌종법에 의해서 모든 것을 해나간다면 어떤 어려움도 헤쳐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부응하듯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올해 선명상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대한민국불교도대법회, 국제선명상대회 등 굵직한 종단 사업들의 의미를 짚었다. 진우 스님은 “천년의 역사와 전통을 담은 한국불교의 수행법을 현대인의 정서와 언어에 맞는 선을 기반으로 명상법을 보급, 전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하고 글로벌화하는데 모든 역량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스님은 이어 “총무원 부서의 통합과 개편화 작업을 통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조직으로 일신하고, 종도들의 원력을 받들면서 맡은바 소임에 더욱 충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신년하례에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각각 성파 대종사와 진우 스님을 예방했다. 성파 대종사는 일제강점기 선조들의 ‘조선사람’이라는 정신문화 덕분에 우리 민족이 존재한다는 점을 짚으면서 한동훈 위원장에게 “우리나라 정신문화를 살려야 민족이 살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명심하겠다. 말씀하신 가르침을 잘 받들고 걱정하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성파 대종사는 홍익표 원내대표에겐 ‘호국불교’의 가치를 강조하고 “불교를 종교만으로 보기보다는 민족의 전통과 문화로 이해해달라”고 주문했다. 홍 원내대표는 “불교계 숙원사업인 전통사찰 개발제한이 해소되도록 힘쓰고 있다. 잘 처리될 것 같다”고 말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의 예방은 양당 모두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불교계 노력을 중심으로 대화가 이어졌다. 진우 스님은 불교전통수행법인 위빠사나·사마타 수행이 서양으로 건너가 변용을 거쳐 불교로 역수입된 현상을 지적하면서 “종교를 떠나 보편적인 명상법을 개발해 국민에게 보급하고 세계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좋은 말씀”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홍 원내대표도 “잘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군장병 전법 활성화로 청년 포교 진흥 나선다

조계종 포교원 · 군종교구 등
軍전법 활성화 위한 TF 구성
“군포교는 청년 전법의 고리”
자승 대종사 유지서 비롯돼
장병 DB구축 등 시스템 마련

조계종이 군장병 전법 활성화를 위해 TF(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군포교를 통한 청년전법 활동에 본격 나선다.

TF팀은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법원 스님), 포교원, 청년대학생 전법단으로 구성될 계획이며 군장병 DB구축을 통해 군포교 전략을 수립하고 청년 전법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비전과 방향, 과제 등 군포교에 대한 기본정책 설정을 담당, 이를 통해 미래세대를 위한 각 분야별 활동을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TF팀 구성은 지난해 11월 29일 입적한 자승 대종사가 강조한 ‘청년 전법’ 유지에서 비롯됐다. 자승 대종사는 청년 전법에 있어 군포교는 대학생, 사회인까지 연결되는 놓쳐서는 안될 불사임을 강조하고 군포교 활성화에 진력, 복무 후 대학으로 돌아가는 청년들에게 불연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강조했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도 최근 중앙신도회 및 포교단체 임원진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군포교를 전담할 TF 조직을 언급했으며 “대학생과 청년계층 포교의 중심은 군불교이며, 전법 포교의 오랜 경험과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있는 군불교는 대학생 청년 전법 포교의 최전선에서 최선봉이 돼야 할 것”이라며 전략적인 군포교에 나설 것을 강조한 바 있다.

군종교구장 법원 스님은 “현재 한국불교의 최대 화두는 전법이며, 그 중에서도 대학생 청년 전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로써 한국불교의 존폐가 여기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면서 “저출산과 고령화, 탈종교화시대 등 위기의 시대에 젊은층 포교의 황금어장이라 불리는 국군장병들을 위한 포교 전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사병뿐 아니라 장교와 군무원까지 범위를 차차 넓혀 적극적인 군포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광용 스님 ‘걸출 비구니 여성상’ 선정

3월 8일, ‘세계불교비구니평화대회’서 수상

조계종 전국비구니회장 광용 스님〈사진〉이 대만불교비구니협진회(이사장 견인 스님)가 선정하는 ‘걸출 비구니 여성상’을 수상한다.

‘걸출 비구니 여성상’은 대만 비구니사찰 연합단체인 대만불교비구니협진회가 2016년 창립 20주년을 맞아 제정한 것이다. 포교와 수행, 문화, 교육, 복지 분야 등에서 탁월한 활동을 펼쳐 비구니 위상을 높인 전 세계 비구니스님을 대상으로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시상식은 3월 8일 오전 9시 대만 갸오슝 아레나한신백화점 9층에서 열리는 ‘세계불교비구니평화대회’에서 진행된다.



대만불교비구니협진회 이사장 견인 스님을 비롯한 임원진은 1월 9일 서울 전국비구니회관을 방문, 광용 스님에게 수상 선정 소식과 함께 초청장을 전달했다. 이번 시상식에는 광용 스님과 수석부회장 수경 스님 등 전국비구니회 임원진이 참석할 예정이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대한불교조계종포교원 등록민간자격(제2018-00234호) 과정

2024년도 상반기 불교명상지도사 과정 수강생 모집

수강기간

급수	전문가	1급	2급
강의 기간	-교육 : 3월 9일~6월 29일(15회) -3박4일 집중수련	-교육 : 3월 7일~7월 18일(16회)	-교육 : 3월 2일~6월 22일(총 15회) -워크숍 : 6월 29일 (1회)
강의 시간	-매주 토요일 9:30~16:30 (점심시간 및 휴게시간 포함)	교육 매주 목요일 10:00~17:00 (점심시간 및 휴게시간 포함)	-매주 토요일 10:00~17:00 (점심시간 및 휴게시간 포함) -워크숍 토요일 9:00~21:00
대상	-불교명상지도사 1급 수료자	-불교명상지도사 2급 수료자	-명상수행 또는 명상지도에 관심 있는 사부대중
비고	-교육 6회, 3박4일 집중수련 대면 참석 -집중수련비용 별도	-교육 6회 대면 참석	-교육 5회, 워크숍 대면 참석 -워크숍 비용 포함

수강방법 : 대면 및 비대면(zoom) 강의
불교상담개발원(성북구 개운사 內, 6호선 안암역 2번 출구)

모집마감 : 2급 – 2024년 2월 23일(금) 17시까지 / 전문가, 1급 – 2월 16일(금) 17시까지

수 강 비 : 108만원(카드 3회 분납 가능), 관련 자격고시비 및 집중수련비 별도

입 금 처 : 국민은행, 023501-04-181820,
(예금주 :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상담개발원)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 팩스 접수
*E-mail : jabi3719@daum.net / fax : 02-737-8802
*신청서는 홈페이지(www.kbcd.org)에서 다운로드 가능함

특 전
1.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인가 불교명상지도사 자격고시 응시자격 부여
2.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승려연수인증과정
3. 교육비 할인 (스님 40%, 종무원 및 포교사 30%, 본원회원 20%)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상담개발원 문의 T. 02)737-7378 홈페이지 www.kbcd.org 주소 (02842) 서울시 성북구 개운사길59, 1층

상진 스님 "2024년 태고종의 해로 만들자"

태고종, 1월 8일 신년하례 · 시무식
원로회의, 종단 각급 기관장 참석
통알삼배 · 단배식…공로패 등 수여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태고종은 1월 8일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3층 법륜사 대불보전에서 갑진년 신년하례법회 및 종단 중앙종무기관 시무식을 봉행했다. 사진은 참석 대중이 기념촬영하는 모습.

태고종이 종도 간 화합과 협력을 통해 2024년 갑진년을 태고종의 해로 만들 것을 다짐했다.

태고종(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1월 8일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3층 법륜사 대불보전에서 갑진년 신년하례법회 및 종단 중앙종무기관 시무식을 봉행했다. 신년하례법회 및 시무식에는 총무원장 상진 스님과 원로회의 의원 대은·지홍 스님을 비롯해 중앙종회의장 시각 스님, 호법원장 혜일 스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구산 스님, 교육원장 재홍 스님, 초심원장 금담 스님, 불교문예원장 지허 스님, 전국비구니회장 현중 스님 등 사부대중 100여 명이 참석했다. 법회 참석대중은 불법승 삼보에 신년하례를 올리는 의식인 통알삼배, 상호 단배를 진행하며 종단 발전과 국운융창을 기원했다.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신년사를 통해 종단 발전을 위한 종도들의 화합과 협력을 강조했다. 상진 스님은 "지난해 취임 이후 종도들을 직접 찾아뵈며 종단 발전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지만 부족한 점이 많다"며 "순시를 하며 종도들께 서로 화합해 새로운 태고종을 만들자고 당부한 바 있다. 태고종도가 한마음으로 각자의 자리에 최선을 다하면 종단의 위상은 상승일로에 오르게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이어 스님은 "현 집행부가 여러 방면에서 노력하고 있지만, 모자란 부분도 적지 않을 것이다. 이 부분은 누구든 애종심으로 경책해달라"며 "다만, 종단의 종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을 외부에 알리는 것은 스스로 얼굴에 먹칠하는 것이다. 내부적으로 해결을 위한 지혜를 모으면 태고종은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상진 스님은 종도들의 변화도 강조했다. 스님은 "저부터 종단 발전을 위해 발로 뛰겠다. 종도 여러분도 종단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며 "2024년 갑진년은 태고종의 해가 될 수 있도록 다함께 한마음으로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중앙종회의장 시각 스님은 "지난 집행부가 안정을 기할 수 있었던 것은 현 총무원장 상진 스님의 기여와 노고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며 "더 이상 종단을 욕보이는 음해세력이 나올 수 없도록 하자"고 힘줘 말했다.

이어 시각 스님은 "현 집행부가 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종도들이 나서서 환경을 조성해주면 희망과 용기가 백배한 한 해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호법원장 혜일 스님도 신년사를 통해 "종도들 모두가 뜻을 모아 화합과 전진의 한 해를 만들어가자"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법회 참석 대중들은 전국비구니회장 현중 스님이 대표 낭독한 발원문을 통해 국운융창과 불교중흥을 발원했다. 대중들은 "수 갈래 샛강들이 하나로 모여 큰 강을 이루듯 협력과 상생으로 공생의 세상을 이루게 하시고, 국운이 날로 융창하여 자비와 광명의 불국토를 이루게 해달라"고 부처님 전에 기원했다.

한편, 상진 스님은 이날 신년법회에서 종단발전에 기여한 종도들에게 공로패 및 표창장을 수여했다. 공로패는 △신덕 스님(충북교구 문화국장) △일효 스님(청련사 교무보) △원광 스님(용불사 주지) △월타 스님(관음사 주지) △승원 스님(자은정사 주지) 등 15명이 수상했으며, 표창장은 △정수 스님(인천교구 총무국장) △지근 스님(무심사 주지) △해정 스님(국사암 주지) △무불 스님(청룡사 주지) △무견 스님(기린사 주지) △심일 스님(광주전남 총무국장) △명휴 스님(광주전남 재무국장) △정관 스님(관음사 주지) 등 37명이 받았다.

'천년을 세우다' 불사 기금 전달 잇따라

여수 향일암 · 제주 법화사
자비나눔 · 승려복지기금도


제주 법화사 전달식.


여수 향일암 전달식.

제주 법화사와 여수 향일암이 '천년을 세우다' 불사에 잇따라 정성을 보탰다.

제주 법화사(주지 도성 스님)는 1월 10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천년을 세우다' 기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진우 스님은 "법화사는 해상무역의 근거지이자 한중일 무역이 모이는 중요한 곳"이라며 "법화사가 옛 명성을 되찾아 제주 불교의 중심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원력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법화사 주지 도성 스님은 "신도들과 십시일반 기금을 마련했다. 앞으로도 제주도와 협력해 법화사 복원에 힘쓰겠다"라고 답했다.

김수길 법화사 신도회장도 "총무원장 스님의 지원 덕분에 올해 법화사 전통문화 체험관이 건립될 수 있었다.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같은 날, 여수 향일암 주지 연규 스님(여수불교사암연합회장)과 권보성 (주)선행 대표, 남기웅 만다라 대표, 최용남 운학사 대표 등 불자 기업인들도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천년을 세우다'와 '자비나눔' 기금으로 각각 1000만원씩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정기명 여수시장도 배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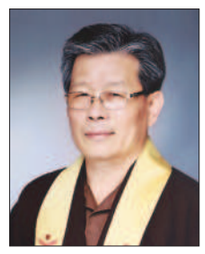
진우 스님은 "불자들 동참 덕분에 열암곡 부처님을 모시는 불사가 올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불사에 원력을 모아줘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어 스님은 정기명 여수시장에게 "여수의 명소 향일암이 사람들에게 '희망을 꿈꾸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가져달라"고 했다.

연규 스님은 "총무원장 스님을 초청해 법문을 전하는 자리를 만들고 싶다. 여수 불교 중흥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향일암 방문을 요청했다.

한편 이날 재단법인 아름다운동행에서 감사 소임을 맡고 있는 이상근 일신회계법인 회계사가 스님들의 노후복지 향상을 위해 승려복지기금 1000만원을 보시했다. 이 회계사는 "25년여간 종단 주요 기관과 관련된 회계 업무를 맡아왔다. 종단을 위해 조금이나마 회향하고 싶어 기금을 내게 됐다. 앞으로도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내영 기자

총지종 제13대 종령에 지성 대종사

1월 11일 제152회 승단총회서 만장일치로 추대



불교총지종 제13대 종령에 지성 대종사〈사진〉가 추대됐다.

불교총지종은 1월 11일 서울 역삼동 통리원에서 제152회 승단총회를 개최하고 만장일치로 지성 대종사를 종령에 추대했다. 신임 종령 지성 대종사의 임기는 2월 17일부터 6년간이다.

제13대 종령으로 추대된 지성 대종사는 1946년 경북 포항에서 출생했으며, 총지종 창종 당시부터 종단과 인연을 맺고 입교해 종조 원정 대성사로부터 직접 밀교법과 가르침을 받았다.

1993년 3월 중앙교육원 아사리 과정 수료 후 전법관정수계를 받고 승직에 올랐다. 동년 정혜서원당(현 인천 시법사) 주교와 통리원 재단사무국장을 시작으로 재무부장, 총무부장, 총지종유지재단, 시회복지재단 이사, 사감원장에 이어 2010년도 불교총지종 제16대 통리원장을 역임했다. 이후에도 지성 대종사는 교화와 종단 발전에 용맹정진 해오다 2016년 기로원에 진원했다. 신중일 기자

조계종 총무원 1원 체제 변화 공감

미래특위, 1월 8일 첫 회의서 간사 성원 스님 선출

현행 총무원·교육원·포교원 3원 체제인 조계종 중앙종무기관을 총무원 중심 1원 체제로 변경하는 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조계종 중앙종회 '종단미래대비를 위한특별위원회(위원장 심우 스님, 이하 미래특위)'는 1월 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열고, 성원 스님을 간사로 선출했다. 위원회는 심우 스님을 비롯해 중앙종회의원 선광·삼조·일화·만당·성원·현무·진각(해인사)·정운 스님과 총무원 기획실장 우봉 스님, 사회부장 도심 스님, 일감 스님, 김봉석 변호사가 위원으로 참여한다.

미래특위에 따르면 회의에선 현행 3원 체제인 중앙종무기관을 총무원 중심의 1원 체제로 변경하는 데 대다수 위원이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행정기관 조직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인 만큼 총무원이 초안을 마련한 이후 미래특위에서 세부적으로 검토해나가기로 했다. 총무원은 다음 회의까지 3원 통합안을 준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호섭 기자

"세계비구니평화대회 원만개최 기원"

진우 스님, 대만비구니회 예방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1월 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대만불교비구니협진회 임원 예방을 받고 오는 3월 8일 대만서 열리는 세계비구니평화대회의 원만 개최를 기원했다.

협진회 이사장 견인 스님은 진우 스님에게 초청장을 전달하며 "전 세계 18개 국가 비구니스님들이 한 곳에 모이는 국제적인 행사"라고 소개하고 "첫날 행사에서는 유엔 세계여성의날을 기념해 공로자를 표창하는 만큼 총무원장 스님이 참석, 격려해주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진우 스님은 "대만비구니협진회 스님들이 뜻깊은 일을 하고 여러 좋은 역할을 한다는 것은 익히 들어 알고 있다"면서 "3월 8일 대만에서 열리는 행사도 원만히 회향하길 바란다. 실무진과 논의해 참석하는 방향으로 일정을 조율해보겠다"고 화답했다.

임은호 기자

40년 전통의 불교전문교육기관
동방불교대학
2024학년도 신입생 모집

모집인원 및 편제

학 과	모집인원	편 제	비 고
불교학과	00명	2년제	불교교리·기초의식
범패학과	00명	2년제	상용의식·상주권공

지원기간 2023. 12. 01 (금) ~ 2024. 02. 08 (목)

원서 교부 및 접수
원서교부 : 동방불교대학 홈페이지 (www.dongbang.org)
학생광장 > 공지사항 > 2024년도 신입생 모집 공고 참조
접수 방법 : e-mail, Fax, 우편접수 가능

입학상담
동방불교대학 교학처 : 02-745-2030 (010-3089-9983)

주소 : 우) 03062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1길 31
e-mail : dongbang2030@naver.com Fax: 02-745-2030



“소통 · 화합으로 비구니 위상 제고 진력”

조계종 전국비구니회, 1월 8일 법룡사서 신년하례

광용 스님 “공익 실현에 최선”
묘순 스님 등 후원금 전달도


조계종 전국비구니회 신년하례법회에서 인사를 나누는 대중.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갑진년 새해를 맞아 조계종 전국비구니회(회장 광용 스님) 구성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비구니스님 위상을 제고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소통과 화합으로 진력할 것을 다짐했다.

전국비구니회는 1월 8일 서울 전국비구니회관 법룡사 3층 만불전에서 ‘불기 2568년 갑진년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 법회는 지난해 11월 출범한 제13대 집행부의 첫 신년하례로, 새해를 맞아 힘찬 출발을 서원하는 법석이어서 의미를 더했다.

전국비구니회 원로의장 수현 스님과 수석부의장 일법 스님을 비롯한 비구니 원로의원스님, 전국비구니회장 광용 스님과 수석부회장 수경 스님, 부회장 혜솔 스님 등 집행부스님들을 비롯해 정운·정관·혜도·진상·혜성·법해·지인·설해 스님 등 중앙종회의원과 전국비구니회 지회장스님 등이 참석했다.

비구니회장 광용 스님의 헌향, 종회의원 정운 스님의 헌다, 지회장 혜원스님과 혜운 스님의 헌화로 시작된 신년하례법회는 부처님전 삼배와 원로의원스님과 회장스님을 향한 하례, 대중배례 등으로 진행됐다. 이후 원로의장 수현 스님과 회장 광용 스님의 신년사가 이어졌다.

회장 광용 스님은 신년인사에서 “지난해 11월 취임 후 처음으로 봉행하는 신년하례법회로 가슴이 벅차다”면서 “공력을 바탕으로 어른스님을 공경하고 전후좌우로 소통하며 소임자들과 화합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비구니스님의 위상 제고와 권익 향상에 유익할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하겠다”면서 “공익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원로의장 수현 스님은 “지난해 여법하게 새로운 회장스님을 모셨으니 맡은바 소임에 최선을 다해달라”면서 “신도들에게 포교 많이 하는 한 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비구니회 교육부장 원법 스님은 대표로 낭독한 소임자 선서에서 “전국비구니회 소임자는 6000여 비구니를 대표해 신심과 공심으로 비구니의 위상과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승가공동체 정신으로 서로 화합하고 존중하는 선후배가 되겠다”고 선서했다.

이날 신년하례에서는 후원금 전달도 이어졌다. 삼선불학승가대학원장 이자 전국비구니회 원로의회 부의장 묘순 스님이 운영기금 300만원을, 봉녕사 주지 진상 스님이 200만원을 전달하며 비구니회의 발전을 염원했다. 후원금 전달식에 이어 축하떡 절단으로 신년하례법회는 마무리됐다. 광용 스님은 대중스님들에게 세뱃돈을 나눠주며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화엄사 방문객 늘어나 지역경제 활성화

동국대WISE캠 · 불문연 등 조사
화엄사 경제 가치 ‘82억여 원’
미디어 노출 늘어 방문객 증가
덕문 스님 “지역과 상생 지속”

문화재관람료 감면 시행 이후 전국사찰 참배객의 수가 가파른 증가세다. 문화재청 통계에 따르면 구례 화엄사는 2023년 참배객이 전년 대비 42.8% 늘어나 전국 1위로 조사됐다. 이런 결과에는 화엄사만의 특별한 행사와 문화재적 가치도 중요하지만, 최근 많은 미디어 노출을 통한 사찰 브랜드 가치 상승도 한몫했다는 평가다.

조계종 제19교구본사 화엄사(주지 덕문 스님)는 화엄사 홍보기획위원회, 광주BBS, 동국대 WISE캠퍼스 불교사회문화연구원과 공동으로 ‘2023년 지리산 대화엄사 키워드와 이미지’의 미디어 노출효과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분석·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화엄사의 경제적 가치 분석 결과는 총 ‘82억26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1년 37억 원, 2022년 46억1000만원보다 78%의 확대된 노출 효과를 가져온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홍매화 사진대회 23억4500만원, 세계요가의날 기념 화엄사 요가대회 11억2300만원, 모기장영화음악회 11억9250만원, 화엄문화제 7억700만원의 미디어 노출 효과를 얻었으며, 기타 비건버거, 홍보대사 등으로 28억5850만원의 경제적 효과를 보였다. 매체 분류별로는 포털뉴스 노출 58억9200만원, TV방송 노출 22억2000만원, 기타매체 노출 1억1400만원으로 나타났다.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은 “구례군민을 떠나서는 화엄사의 존재가치가 없다. 특히 화엄사는 종교를 넘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소통을 하고 상생한다는 큰 의미가 있다”며 “화엄사 방문객이 증가할수록 구례에 머무는 시간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머물 수 있는 숙박시설의 청결함, 음식 메뉴의 개발, 친절한 서비스 등을 개선하면 지역경제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천태종, 상월 대조사 탄신 112주년 기념법회

총본산 단양 구인사 광명전서
대통령 비롯해 각계 인사 축하
진우 스님, 대조사 인연 소개도


상월원각 대조사 영단에 헌향하는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 스님. 사진=천태종

단양 구인사를 창건하고 한국 천태종을 중창해 한국불교사에 큰 족적을 남긴 상월원각 대조사의 탄신 112주년을 기념하고, 그 가르침과 은덕을 기리는 법석이 단양 구인사에서 열렸다.

천태종(총무원장 덕수 스님)은 1월 9일 오전 10시 30분 단양 구인사 광명전 5층에서 ‘상월원각 대조사 탄신 112주년 기념대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는 종정 도용 대종사, 원로원장 정산 스님, 총무원장 덕수 스님을 비롯한 종단스님, 한국불교종단협의회장 진우 스님(조계종 총무원장) 등 불교지도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김영환 충북도지사·오영훈 제주도지사·김문근 단양군수 등 정·관계 인사, 김형동 천태종중앙신도회장, 서문성 금강대 부총장 등이 참석했다.

총무원장 덕수 스님은 봉축사를 통해 “대조사님께서는 ‘종교지도자는 다른 사람을 인도하기 위해 먼저 자신을 바르게 하지 않으면 안 되며, 바르게 법을 지켜야 한다. 정치하는 사람은 자비와 지혜, 평등과 자유의 불교 정신으로 정치를 해야 한다. 신도들은 바르게 생각하고 상대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진실로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면서 “대조사님의 가르침을 깊이 새겨서 참다운 불자로서 가치 있는 인생, 밝은 인생이 성취되기를 불보살님께 축원 드린다”고 기원했다.

상월원각 대조사 탄신 112주년을 봉축하는 축사도 이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이 대독한 축사에서 “상월원각 대조사께서는 애국불교·생활불교·대중불교의 새로운 불교운동을 펼치시며 우리 불교역사에 큰 획을 그으셨다. 대조사의 가르침은 저에게도 늘 큰 힘이 됐다”며 “앞으로도 저와 정부는 불교와 동행하며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더 따뜻하게 보듬고 국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들겠다. 향기로운 부처님의 법음과 가피가 온누리에 가득하시길 바란다”고 발원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장 진우 스님은 상월 대조사와의 인연을 소개했다. 스님은 “1971년 강원도 태백산 청원사라는 절에서 당시 주지 윤무장 스님과의 교분으로 상월조사께서 친히 왕림하셨을 때 영광스럽게도 친견을 한 적이 있다. 제 머리를 쓰다듬으시며 큰스님이 되라는 격려 말씀은 지금도 큰 울림으로 자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호섭 기자

전 세계 청년들, 월정사서 수행정진한다

월정사 · 우든피시 재단 협약식
청년 세대 포교 프로그램 시행
7월동안 ‘HBMLP’ 수행 예정돼

올 여름, 전 세계 청년 100명이 오대산 월정사에서 수행정진에 들어간다.

조계종 제4교구본사 월정사(주지 정념 스님)와 대만 우든피시재단(이사장 이파 스님)은 1월 8일 월정사 회의실에서 ‘출가학교(우든피시프로젝트) 공동주최 프로젝트 협약식’을 열고, 미래 불교 발전을 위해 청소년 교육·포교에 함께 협력할 것을 주요 골자로 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월정사와 우든피시재단은 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공동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우선적으로 7월 1일부터 28일까지 우든피시재단이 주관하는 ‘인본주의적 불교수행 체험 프로그램(Humanistic Buddhist Monastic Life Program, 이하 HBMLP)’을 진행하기로 했다.

우든피시재단의 HBMLP는 모든 과정이 영어로 진행되며 단체 숙식, 그룹 세미나, 초청 강연, 명상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참가 모집 인원은 100명이다.

이와 함께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과 우든피시 이사장 이파 스님은 기후위기, AI 윤리 등 21세기 인류가 직면한 위기를 해결하는데 불교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에 대한 공동 연구를 추진하는 데에도 뜻을 모았다.

정념 스님은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불교, 특히 화엄을 중심으로 하는 열림과 포용의 미래 지향적 불교사상이 지대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2600년 동안 불교가 이뤄놓은 수행과 명상 시스템이 종교와 이념을 초월해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힘이 돼 주는데 월정사와 우든피시가 함께 나아가자”고 말했다.

신중일 기자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부설

옥천범음대학 2024학년도 신(편)입생 모집안내

옥천범음대학은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부설기관으로써 1968년 옥천범음회로 시작되었습니다.
1973년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범패’로 지정, 1987년 ‘영산재’ 보존회로 단체 지정되고 2009년에는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에 등록되었습니다.
불교의식, 불교음악, 불교무용의 전문성과 전통성을 높이고, 인재 양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일반인 및 학승을 모집합니다.

교 과 과 정

학 과		교육 내용	요일	시간	모집인원	담당교수
1학년	상주권공	상주권공 Ⅰ	월	오후1시~5시	○○	마일운 스님
2학년	상주권공	상주권공 Ⅱ	수	오후1시~5시	○○	김태호 스님
3학년	각 배	각 배	목	오후1시~5시	○○	조인각 스님
4학년	영 산	영 산 재	금	오후1시~5시	○○	이기봉 스님
불교의식 이론		영산재의 불교예술적 특징	화	오후1시~4시	○○	심만춘 스님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응시자격 | 수 료 과 정 : 승려 및 포교사, 법사, 재가불자, 관련학과(음악,무용과)등 일반인
편입학과정 : 동일계열 상주권공 수료자
■ 제출서류 | 수 료 과 정 : 입학원서(본교소정양식)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반명함판 사진 3매
승적증명서 및 수계증 사본 1부
■ 전형일정 | 2024년 1월 8일 ~ 2월 28일
■ 개 강 | 2024년 3월 첫째주 3월 4일 (월요일)
■ 전 형 료 | 50,000원(학생회비)
■ 원서교부 및 접수처 | 본교 교학처 및 전화 접수 홈페이지 접수
■ 특 전 | 1. 졸업자에게는 대한민국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보존회 회원 및 준회원 자격을 부여하고 기능이 인정되면 전수생 지정
2. 성적우수자에게 각종 장학 혜택 부여, 국내외 공연시 우선 선발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부설
옥 천 범 음 대 학 장 김 향 천 합장

0372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봉원사길 120
Tel : 02)392-3234 Fax : 02)392-3239 홈페이지 : www.okchunbud.kr/

금강경 7만독…원로가 보여준 정진의 힘

금강경 7만독 성만 법산 스님
서울 조계사 초하루법회 법사
"비우다 보면 삼독심 녹아"
참된 불자라면 여기가 행복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조계사 초하루 법회 법사로 나선 법산 스님은 <금강경>에 대해 "간결하고 마음을 비우는 의미가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허공도 무상하고 세월도 무심인데 7만독이 무슨 상관인가. 본래 무일물(無一物)하여 탕탕 무가애(無罣礙)로다. 금강은 무소무지요 반야는 무소불능이로세. 눈 개인 밤 하늘에 달빛이 더욱 밝고 깊어가는 겨울 밤 시냇물 소리 더욱 차갑네."

1월 11일 서울 조계사(주지 원명 스님) 대웅전에서 아주 특별한 초하루 법회가 열렸다. 2001년 금강경 독송 10만독을 발원한 전 동국대 이사장이자 조계종 법계위원장 법산 스님의 금강경 7만독 성만을 기념하며 이를 찬탄하는 법석이 열린 것. 매서운 추위에도 불구하고 조계사 대웅전과 앞마당에는 연화장 세계가 펼쳐졌다.

세수로 올해 80세인 법산 스님은 최근 금강경 7만독을 성만했다. 2001년 11월, 부처님 전에 금강경 10만독을 발원한 이래 긴 세월 하루도 빠짐없이 한결같은 정진으로 이룬 성과다.

스님은 매일 오전 3시 30분 일어나 예불을 드린 후 정구업진언과 함께 금강경을 독송해왔다.

법산 스님은 "어느날 제자가 하루에 1독씩 10만독 하려면 300년 걸린다더라. 금생에 못하면 내생에 린포체가 돼서라도 정진을 마무리하겠다고 마음 먹었다"고 말했다. 처음에는 대학 강의와 회의로 생각보다 속도가 나지 않았지만 퇴임 후 본격적으로 금강경 독송이 시작됐다. 하루 8시간 정진하고 아침과 저녁 공양을 뒤로한 채 경전을 읽었다. 코로나19 이후, 법회가 줄고 스님도 외부 활동을 줄이게 되면서 기도 시간이 늘어났고 매일 10~15회 금강경을 꾸준히 독송했다는 게 스님의 설명이다.

기도뿐 아니라 스님은 동국대 정년퇴직 후 15년이 넘는 지금까지 매월 둘째 주 일요일이면 어김없이 사회복지법인 연화원(이사장 해성 스님)에 방문, 장애인 불자들과 함께 금강경을 읽으며 부처님법을 전한다. 시각장애인들 불자들을 위한 〈점자 금강경〉을 보시하기도 했다.

이날 조계사 초하루 법회 법사로 법석에 오른 법산 스님은 '불취어상 여여부동(不取於相 如如不動)'을 언급하며 "어떤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여실히 동함이 없어야 한다. 초심을 잊지 않고 그 마음 그 정신으로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강경〉에 대해 "간결하고 마음을 비우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설명한 스님은 "비우고 비우다 보면 은산철벽이 깨지는 것처럼 삼독심이 녹아내려지는 순간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법산 스님은 자작시 '바로 여기'를 읊으며 수행정진하는 불자들을 응원하기도 했다.

"행복은 지금 여기 기쁨도 바로 지금 / 석굴암 불상을 떠올리는 순간 천년의 미소를 짓고 염화미소를 떠올리는 찰나 영산회상의 법향에 젖어든다 / 연꽃을 연상하면 한마음 향기에 잠기며 매화를 그려보면 짜릿한 봄빛에 감싸인다 / 행복은 바로 지금 시공을 넘어 마음 그릇에 담긴 여기에서 피어나느니."

법산 스님은 "참된 불자가 될 수 있다면 바로 여기가 행복의 순간이다.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바로 여기에서 행복한 삶이 함께하길 간절히 마음으로 기리겠다"며 법문을 마무리했다.

한편 법산 스님은 금강경 7만독 회향 공덕을 연화원 가족들과 인도에서 나눈다. 법산 스님은 청각·시각장애인 10여 명과 함께 1월 20~28일 부처님 성지를 순례한다. 부처님께서 24안거를 보내며 금강경을 설법한 기원정사에서 〈점자 금강경〉을 활용해 독성법회도 봉행할 예정이다.

고려 대표 동종 '내소사 동종' 국보 승격 되다

문화재청, 내소사에 지정서 전달
진성 스님 "국보 승격, 국민 자랑"
최 청장 연구 인연 승격에 도움

13세기 불교 동종의 기준작이자 고려 후기 동종을 대표하는 '부안 내소사 동종'의 국가지정문화유산 '국보' 승격을 기념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부안 내소사(주지 진성 스님)와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1월 9일 경내 대웅보전에서 '부안 내소사 동종 국보 지정서 전달식'를 봉행했다.

이날 기념법회에서 참여 대중은 헌공의식을 통해 부안 내소사 동종이 국보로 지정됐음을 부처님께 알렸으며, 문화재청은 국보 지정서를 내소사에 전달됐다. 동종이 국보로 지정된 것은 부안 내소사 동종이 5번째이며, 부안군으로서는 관내 문화유산 중 첫 국보 지정이여서 그 의미가 더 컸다.

주지 진성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부안 내소사 동종이 국보로 지정된 것은 사부대중만의 기쁨이 아니라 최초로 국보를 보유한 부안군민 모두의 영광이며, 전라북도, 더 나아가 온 국민의 자랑"이라며 "내소사 사부대중과 부안군민들은 문화재 보존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국민들이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편안히 쉴 수 있는 도량이 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고려 후기 대표하는 最大 동종

1963년 보물로 지정됐다가 지난해 12월 26일 국보로 승격된 '부안 내소사 동종'은 고려 후기 동종 가운데 가장 큰 종으로, 통일신라의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고려의 특징이 잘 드러내는 대표작이자 기준작이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이 내소사 주지 진성 스님에게 국보 지정서를 전달하는 모습.

종을 만든 내력이 적힌 주종기(鑄鍾記)를 통해 장인 한중서가 700근의 무게로 1222년(고려 고종9) 제작했음을 알 수 있다. 본래 청림사에 봉안됐다가 1850년(철종 1) 내소사로 옮겨졌는데, 이 내용을 적은 이안기(移安記)도 몸체에 음각으로 새겨져 있다.

한중서 연구, 국보 승격 인연으로

부안 내소사 동종을 고려 후기 대표 동종으로 만든 것은 장인 한중서의 숙련된 기술력과 예술성에 있었고, 내소사 동종의 국보 승격에는 장인 한중서를 연구했던 최응천 청장의 오랜 인연과 열정도 한 몫 했다. 최 청장은 대학원 재학 당시 금속공예를 전공하며 청동북을 주제로 석사학위논문을 준비했고, 이 과정에서 장인 한중서를 만나게 됐다.

이후 한국을 대표하는 범종 전문가된 최 청장은 2009년부터 2017년까지 8년간 문화재위원으로 활동하며 2017년 국보 승격 대상 선정 소위원회에서 내소사 동종을 적극적으로 추천하기도 했다.

부안=신중일 기자 · 조동제 전북지사장

미니인터뷰 연예인전법단 권미희 국악가수

"나만의 찬불 콘텐츠 만드는 게 꿈"

2014년 찬불가 앨범 내고
생명나눔 홍보대사 맡으며
불교계 활동 영역 넓혀 가
"청년전법에도 힘 보탤 것"

"가수로서 찬불가를 부를 만한 기회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기회가 많아지길 바라기보다는 저만의 유일무이한 레퍼토리를 만들어 권미희 한 명을 불러서라도 찬불가 공연을 보고 싶게 만드는 가수가 되려 합니다."

몇 년 전까지 국악가수 권미희는 불교계에서 그리 널리 알려진 이름이 아니었다. 2010년 소리꾼으로서 첫 앨범을 낸 뒤 2014년 3집 앨범을 찬불가로 꾸몄을 때도 그의 신심이 얼마나 깊은지는 쉬이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지성이면 감천이라 했던가. 그와 라디오에 출연한 이사장 일면 스님이 2021년 생명나눔실천본부 홍보대사를 제안하면서 불교계 활동의 폭을 넓힐 수 있었다. 현재는 대한불교청년회, 조계종 연예인전법단 등으로도 영역을 넓혀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는 가수로 거듭났다. 뮤지컬 싯다르타에서는 야소다라 역을 맡아 국악이 아닌 다른 장르에서의 능력도 인정받았다.

권 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만 해도 천주교신자였다. 가족도 마찬가지였다. 학업 때문에 성당을 꾸준히 다니진 못해도 스스로를 천주교신자라고 여겼다. 그러다 어머니와 함께 대구역에서 무료급식봉사를 하던 청룡사 주지 보성 스님을 만나 봉사활동을 하며 불교와 가까워졌다. 봉사로 알게 된 불교가 신앙이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우연도 인연이라고 어느 날은 아버지가 안치행 선생의 '반야심경' 노래를 들려줬는데 그 노래를 연습해 초하루법회에서 음성공양을 올리기도 했다. 그 노래는 10년이 넘는 세월을 지나 권미희의 '반야심경'으로 지난해 재탄생했다.

불교를 신앙하는 예술인이 자신의 종교를 밝히긴 쉽지 않은 세상에서도 권 씨는 이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어디까지나 불교계가 이웃 종교에 비해 예술인을 위한 무대가 적은 것일 뿐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는 불교청년 예술인 모임이 만들어지길 서원하고 있다.

"어딘가에 제안을 할 수 있다면 불교를 주제로 한 청년예술인모임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나이대 다양한 분야의 예술인들이 모인다면 시너지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하나의 프로젝트라면 개인에겐 경력에 도움이 되고, 종교적 가치관을 드러내는 데도 부담이 적을 겁니다."

갑진년 새해 첫날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따라 조계사에서 108배를 올리며 한 해를 시작한 권 씨. 이날 "올해는 더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하는 친구들을 포교하고 싶다"고 새해맞이 각오를 전한 그는 후배들에게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방법을 전할 계획이다. 거창하지 않고 직접 경험해본 것으로.

"저는 힘들 때 108배를 꾸준히 하거나 100일 동안 사경을 하면서 이겨냈어요. 부모님이 편찮으실 때는 마음이 불안하기 마련인데 그때는 부모은중경을 사경했고요. 상황 따라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법을 전해주는 것 자체가 청년전법 아닐까요?"

윤호섭 기자



권미희 가수는 "직접 경험한 불교를 후배에게 전하고 싶다"며 청년전법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중국 4대 불산
■ 지역별 상품 – 운강석굴/오대산 5일
– 구화산/황산 5일
– 무석/보타낙가산 5일
– 아미산/낙산대불 5일
■ 동참금 문의


민족의 영산 백두산 4일
■ 주요일정 백두산 천지(온천욕)+돈화 정각사


일본
■ 지역별 상품 –오사카/교토 4일
–도쿄/가마쿠라 4일
–큐슈 온천 3일
■ 동 참 금 문의


인도 11일
목/토 출발가능
■ 주요일정
녹야원–보드가야–라즈기르
–바이샬리–쿠시나가르
–룸비니–스라바스티
–아그라–델리
■ 동 참 금 문의


스리랑카 8일
월/수 출발가능
■ 주요일정
아누라다푸라–미힌탈레
–시기리야–폴론나루와
–담불라–캔디 불치사
–콜롬보
■ 동 참 금 문의


족자카르타 보로부두르 성지순례 5일
화/금/토 출발가능
■ 주요일정
자카르타–족자카르타
–보로부두르 사원–프람바난
사원–머라피 화산
■ 동 참 금 문의

성지순례자의 도반 마하연투어
예약·상담 02-365-7747 마하연투어
www.mahayeon.com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39(우정에쉐르) 1401호

통도사 화엄산림 회향…체육인학생 지원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 "감사한 마음으로 살자" 법문

이도경 부산지사장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덕 스님)가 30일간의 대장정 '계묘년 화엄산림대법회' 회향법회를 1월 10일 설법전에서 봉행했다. 화엄산림대법회는 지난해 12월 13일 입재를 시작으로 화엄의 법석을 이어왔다. 조계종 전 고시위원장 지안 대종사의 입재법문을 시작으로 30여 명에 이르는 원로 대덕 스님들이 통도사를 찾아 화엄경 각 품을 주제로 오전과 오후에 걸쳐 하루 두 차례 법문을 펼쳤다.

회향법회는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 주지 현덕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이 함께했다. 법회는 관욕과 상단불공, 축원, 회향법문, 전달식, 주지스님 인사말, 시식 후 동참 위패 봉송 의식으로 진행됐다.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가 통도사 화엄산림법회 회향법문을 하고 있다.

성파 대종사는 회향법문에서 "한 달 동안 화엄경 설법을 들은 여러분은 자신을 항상 밝게 비추는 자화등을 발견해 잘 가지고 계실 거라 생각한다. 그 등불을 잘 밝혀서 눈 밝은 불자들이 되길 바란다"며 "화엄경을 공부한 여러분은 자신이 구품연대임을 알고 내 마음이 바로 부처임을 알아야 한다. 그리하여 법을 가르쳐주신 부처님께 감사해야 하고 통도사의 개산조인 자장율사, 역대 조사스님들, 그리고 화엄 법석을 마련해준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을 비롯한 대중스님들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일상에서도 늘 주변에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불자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주지 현덕 스님은 "한 달 동안 먼 길을 찾아와 화엄법회에 함께해주신 불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 대방광불화엄경의 대의가 우주법계 만법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밝힌다는 '통만법명일심'이다"며 "우리 마음이 우주법계 모든 게 통하지 않는 데가 없다. 오늘 종정예하께서 회통법문을 해주셨는데 잘 새겨서 간직하도록 하자"고 회향인사를 전했다.

한편 통도사는 매년 화엄산림 회향법회를 맞아 불자 체육인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왔다. 올해는 진해여중 김지은 학생 등 총 10명의 학생에게 소정의 장학금을 수여했다. 또한 통도사는 화엄산림 기간 자원봉사활동을 펼쳐 원만한 행사 진행을 도운 사리탑봉사회와 바라밀다봉사회, 염불공덕회, 염화회 회원들에게 감사장을 전달하고 그간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후 시식의식과 동참위패 봉송의식이 진행되며 화엄산림대법회 대장정이 마무리됐다.

"역동적 신행으로 불교중흥 이루자"

화엄사 1월 6일 신년하례법회 300여 대중 참석, 시상식 진행

"역동적인 신행활동으로 앉아있는 불교에서 나아가는 불교로 변화하자."

조계종 제19교구본사 지리산 화엄사(주지 덕문 스님)는 1월 6일 경내 화엄원에서 본말사 주지스님과 신도들이 함께하는 '불기 2568년 신년하례 및 화엄법회'를 개최하고 갑진년의 힘찬 출발을 서원했다.

300여 사부대중이 참여한 법회에서 덕문 스님은 "새해에는 역동적인 신행을 통해 앉아있는 불교에서 나아가는 불교로, 활기찬 불교로, 사부대중이 함께하는 불교로 만들어가자"고 주문했다. 스님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괴로운 마음보다 기쁜 마음으로 살 수 있을까, 어떤 실천을 하면 삶이 나아질까 생각한다면, 올바른 믿음을 바탕으로 올바른 이해를 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화엄사 신년하례 및 화엄법회 이후 참석대중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화엄사는 갑진년 첫 화엄법회를 맞아 모범적 활동을 펼친 신도에 대한 시상식도 진행했다. 덕문 스님은 정상교·윤원·오인석 씨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고, 신도회부회장 겸 수심회 회장에 정상교, 청년회장에 주형동, 선재회 회장에 류창수, 화음합창단장에 선현구 씨를 위촉했다. 이어 청년문화예술인 지원금으로 정결 '팔꿈치의 활동범위' 디자이너, 위대용·금민지 반달곰스튜디오 대표에게 각 300만원이 전달됐다.

화엄사는 "미래사회를 위한 소중한 문화예술 동량으로 지리산의 역사가 품은 깊은 사색과 자유로운 발상의 전환을 통해 아름다운 청년문화예술인으로 성정하기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았다"고 지원 이유를 밝혔다.

대학생 불자에 대한 장학금 지원도 이뤄졌다. 신년하례에서는 허윤(한국전통문화대학원), 이선주(가톨릭대), 류현우(순천대), 박소정(동의대), 류지훈(파주타이포그라피학교), 허금강(한국전통문화대), 박차연(순천대), 고성주(순천대), 윤태웅(순천대), 박우준(순천대) 씨에게 장학증서와 장학금이 전달됐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금산사, 신년하례서 전북발전 기원

도영 스님 비롯한 교구 대중 "각자 위치에서 노력 · 화합을"



조계종 제17교구본사 금산사(주지 일원 스님)가 2024 갑진년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사진〉 1월 7일 전주 라한호텔 연회장에서 봉행된 법회는 조실 도영 스님, 회주 도법 스님, 백련사 회주 평상 스님, 전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비롯한 본말사 스님들과 한광수 금산사 신도회장, 김관영 전북도지사 등 6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사부대중은 청룡의 해를 맞아 전북불교의 발전과 새롭게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했다.

조실 도영 스님은 신년법어를 통해 "부처님의 사상의 연기법을 우리가 함께 실현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삶으로 나누어 가자고 다짐하는 자리"라며 "여러 신행단체 여러분이 화합해서 모든 중생에게 이익을 주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지 일원 스님은 "새해를 맞이했지만 국내외는 크고 작은 갈등과 대립이 점철되고 있고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위기의 위험은 우리 삶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 가르침을 의지하며 각자의 위치에서 이해하고 상생하고 화합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법 스님, 평상 스님, 원행 스님도 격려사를 통해 새해 모든 사부대중이 건강하고 어려운 이웃을 살피는 부처님의 자비사상에 따라 더욱 열심히 정진하는 해가 될 것을 발원했다.

한광수 금산사 신도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사회 곳곳에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받고 있다"며 "새해 도민 모두 행복하고 서로 협력하고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자"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축사에서 "올해는 128년간 사용하던 전라북도에서 전북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하는 해"라며 "새롭게 출범하는 특별한 전북을 위해 다함께 노력하겠다. 스님들께서 말씀하신 상생, 화합, 역지사지의 말씀을 받들어 새로운 백년에 도전하겠다"고 다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부처님 전생담, 영어로 말해요

자타카영어대회 호남 · 제주 예선

조계종 포교원이 주최하고 국제포교사회가 주관하는 '제15회 자타카 영어말하기 대회'의 호남, 제주지역 예선 열기가 뜨겁다. 1월 7일 구례 화엄사 화엄원에서는 자타카 영어말하기 대회 호남·제주 지역 예선이 진행됐다. 예선에는 화엄사, 전주 참좋은우리절, 수현사 어린이회 등의 경연참가 학생 19명과 학부모, 국제포교사 등이 참여했다.〈사진〉

예선은 저학년(초등 1~4년), 고학년(초등 5년~중등 3년)으로 나눠 미리 제공된 각 4개의 자타카 이야기를 영어로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직접 만든 이야기 그림판과 스님 의상을 구현해 지난해보다 훨씬 뛰어난 발표를 선보였다.

직접 스님 복장을 입고 다양한 손짓으로 구현을 한 장준우(대정초 3) 학생은 "그동안 많이 준비해 힘들었는데 발표를 하면서 기분이 너무 좋았다. 앞으로 영어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참가자들은 조기정(목포대), 양미경(고구려대), 박해소(동신대)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본선 진출자를 가렸다. 심사는 '자신감 있는 대본, 유창한 언어구사, 동작'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조기정 심사위원은 "저학년의 발표가 우수하고, 고학년의 경우 학업으로 인해 많은 준비를 못한 것 같다. 앞으로 기회를 통해 더욱 발전된 모습을 보이기를 바란다"고 심사평을 했다.

참좋은우리절에서 어린이 영어법회를 지도하는 명지 교사는 "평소 부처님 일생에 관한 내용을 영어로 법회에서 알려주고 있다. 아이들이 즐겁고 행복할 수 있게 노력하면서 이 행사에 참여하게 돼 감사하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여수불교계 "지역불교 발전에 최선"

여수사암연합회 신년하례법회



여수불교사암연합회(회장 연규 스님, 향일암 주지)는 1월 5일 여수시청 대회의실에서 '불기 2568년 여수시 신년하례법회'를 개최하고 지역불교발전과 여수시민의 행복을 발원했다.〈사진〉 행사에는 연합회장 연규 스님, 부회장 도해 스님(달마사 주지), 혜명 스님(대각사 주지), 총무 혜욱 스님(한산사 주지)을 비롯한 지역 사암스님들과 위재춘 여수불교신도회장, 정기명 여수시장, 주철현 국회의원, 김영규 여수시의회의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연규 스님은 법문을 통해 "불교계는 갈등과 번뇌의 소멸을 위해 마음수행과 선 명상을 보급하여 마음의 평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신뢰받는 불교, 존경받는 불교, 함께하는 불교가 될 수 있도록 다함께 정진하자"고 주문했다. 이어 스님은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의 원만 준비와 여수만 르네상스 실현으로 남해안 거점도시 미항 여수의 시금석이 되기를 축원한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창원 정인사 불교대학 2기 수료

1월 9일 79명 졸업생 배출



백련불교문화재단 정인사 부설 불교대학(학장 원행 스님)이 두 번째 수료식을 봉행했다.〈사진〉 1월 9일 창원 정인사 교육관 2층에서 봉행된 수료식에는 정인사 불교대학장 원행 스님, 백련불교문화재단 이사장 원택 스님, 진휴 스님, 일진 스님, 일맥 스님과 불교대학 졸업생 및 가족 등이 참석했다. 수료식에서 105명의 입학생 중 6개반 79명의 불자들이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았다. 결석 없이 수강한 원보과 보살 등 16명의 불자에게는 개근상이 수여됐고 여월 불자에게는 특별상이 수여됐다. 정인사 불교대학은 1학기 16주 동안 불교입문, 부처님의 생애 등 기초교리 강의가, 2학기에는 성철 스님의 100일 법문(중도) 강의와 금강경 강의를 진행했다.

학장 원행 스님은 "부처님 가르침을 배운 만큼 수료식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정진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원택 스님은 "불교를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정인사가 우리한테는 정법의 보금자리가 될 것"이라며 "내년에 입학생들이 늘어나 불교공부를 열심히 하기 바란다"고 격려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황령산 난개발 즉각 멈춰야"

'황령산 시민운동본부' 출범



부산 중심에 자리한 황령산을 보호하기 위해 마하사(주지 정산 스님)가 나섰다.〈사진〉

마하사는 1월 9일 황령산 봉수대에서 황령산 난개발로 인한 자연훼손에 반대하며 미래세대에게 아름다운 자연을 전해주기 위한 '황령산지키기 범시민운동본부' 출범식을 열었다.

황령산지키기 범시민운동본부(대표 정산 스님, 이하 시민운동본부)는 마하사와 부산불교환경연대,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부산환경회의 등으로 구성됐으며 출범식에서 황령산 케이블카 설치 등의 개발 저지에 본격 나섰다.

대표 정산 스님은 "황령산은 남구, 수영구, 연제구, 부산진구에 걸쳐 자리 잡은 부산 중심 명산"이라며 "이미 난개발의 상징으로 표현되는 스키돔으로 상처받은 황령산이 다시 기업의 영리와 이윤에 이용돼 황령산 제3터널 사업과 전망대, 케이블카 건설을 추진하려는 것은 아름다운 황령산을 한 번 더 파괴하는 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운문사 학인스님들, 삶과 죽음 공부

마하보디교육원, '생사의 장' 진행



재단법인 정토마을(이사장 능행스님) 마하보디교육원이 운문사승가대학 학인스님을 대상으로 영성수행프로그램 '생사의 장'을 진행했다. 〈사진〉

1월 5일부터 5박 6일의 일정으로 진행된 '생사의 장'은 마하보디교육원이 25년간 이어온 프로그램으로 행복한 삶과 건강한 죽음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기간 32명의 운문사승가대학 학인 스님들은 하루 12시간씩 좋은 죽음, 좋은 삶에 대한 다양한 배움을 경험했다.

학인스님들은 교육과정 속에서 심신의 활력을 불어넣는 동작 치료부터 감정치료 등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체험에 나섰다. 죽음 분야에서는 '죽음 명상' '사자의 서' 등을 통해 죽음에 대한 이론과 실체를 배우고, 출가사문으로서 어떤 방편으로 중생을 제도하고 구제할 것인지 고민하며 스스로 마음을 다루는 법을 배웠다.

한편 마하보디교육원은 '생사의 장' 제56차 참여자를 모집 중이다. 제56차 프로그램은 8월 24일부터 5박 6일간 진행된다. 052-255-8521~4

성낙두 경남지사장



(사)다나는 1월 3일부터 10일까지 스리랑카 웰리파탄울라 초등학교에서 해외봉사활동을 펼쳤다. 다나 청년봉사단과 스리랑카 아이들은 다양한 체험을 통해 함께 땀을 흘리고 격려하며 우정을 쌓았다.

스리랑카 학생들에 미소 선물…“한국문화로 전한 희망”

(사)다나, 스리랑카 웰리파탄울라 초등학교 봉사 현장

1월 3~10일, 한국문화 교류·체험
초등학생·청년 등 총 14명 동참해
켈리니아 학생도 통역·봉사 함께
320명 대상 한복 입고 사진 ‘인기’
사원 참배로 스리랑카 화합 기원

스리랑카=김내영 기자

“What’s your name(이름이 뭐니)?”
“How old are you(몇 살이니)?”

(사)다나 청년봉사단이 웰리파탄울라 초등학교에 첫발을 내딛자 질문 세례가 쏟아졌다. 얼굴 생김새도 말하는 언어도 다른 이방인들의 방문이 내심 기분 좋은 모양이다. 호기심 많은 스리랑카 아이들과 어색한 첫 만남도 잠시, 한국문화를 중심으로 마음을 나누며 하나 된 청년봉사단과 스리랑카 아이들. 덥고 습한 날씨에도 얼굴엔 환한 미소만이 번져 있었다.

사단법인 다나(대표 탄경 스님)는 1월 3일부터 10일까지 스리랑카 함반도타 노나가마(Nonagama) 농촌 마을의 웰리파탄울라(Welipatanwula) 초등학교에서 ‘지구촌 평화기행-아유보완 얄루웨! 안녕 친구야!’ 해외봉사활동을 펼쳤다. 코로나19로 4년 만에 재개된 다나의 해외봉사활동은 한국문화교류로 스리랑카 아이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물하고,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기획됐다.

다나 청년봉사단의 활동 총괄은 (사)다나 대표 탄경 스님이 맡았으며, 마힌다 스님(스리랑카)과 해마 스님(다르마라자 주지)이 현지 운영을 물심양면 지원했다. 강재선 (사)다나 이사와 홍수민 봉사단장 등 초등학생부터 청년까지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된 14명의 봉사단원은 궂은일도 솔선수범하며 자비행을 실천했다. 특히 스리랑카 켈리니아 대학에서 한국어를 배운 재학생·졸업생 7명이 통역·봉사 등 전 일정을 함께해 스리랑카와 한국 간 교류·소통에 의미를 더했다.

이들은 봉사기간 동안 스리랑카 어린이 320여 명을 대상으로 한복 입고 사진 찍기, 5가지 부스 활동, 가족사진, 한국영화 상영, 단체 게임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탄경 스님은 “풍요 속에서 부족함 없이 생활하고 있는 요즘 아이들(다나 청년봉사단원들)이 스리랑카라는 낯선 나라에서 불편함마저 감내하며 봉사활동을 하겠다고 용기를 냈다”며 “세상을 향한 따뜻한 관심과 어려운 지구촌 이웃을 위한 자비심을 배워가길 기원한다”고 당부했다.


아이들이 한복을 입고 찍은 자신의 사진을 찾으며 흐뭇해 하고 있다.


봉사단원과 아이들이 함께한 줄다리기.


한복 입은 아이들의 사진을 찍어주는 모습.

1월 4일 아침. 노란색 다나 조끼를 입은 봉사단원들이 웰리파탄울라 초등학교에 들어서자 학생과 선생님들은 태극기와 스리랑카 국기를 연신 흔들며 춤과 노래로 환영했다. 학생들을 따라 걷다 보니 자연스럽게 학교 안에 모셔진 부처님께 다다랐다. 봉사단은 부처님께 향과 꽃, 과일, 쌀, 등, 차 등 육법공양을 올리며 본격적인 활동의 시작을 알렸다.

첫 프로그램으로는 아이들에게 한복을 입혀 사진을 찍어 주는 ‘다나 사진관’이 운영됐다. 한복은 남·여 크기별로 총 40여 벌이 준비됐다. 한복의 화려한 색에 매료된 아이들이 길게 줄을 이었고, 봉사단은 2명씩 조를 짜 학생들의 한복 입고 벗기를 도왔다. 사진을 담당한 봉사단원은 한복을 입고 다소곳한 포즈를 취하고 있는 아이들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다. 학생들뿐 아니라 학교 선생님들과 지역주민들까지 큰 관심을 보여 활동은 늦은 저녁까지 이어졌다.

숙소에 돌아온 봉사단원들에겐 달콤한 휴식 대신 또 다른 추가 활동이 기다리고 있었다. 낮에 찍은 한복 사진을 프린터로 인쇄하고 종이 액자에 넣는 작업이다. 아이들에게 줄 칫솔 치약 포장도 함께했다. 선물을 받고 기뻐할 아이들을 생각하며 다시금 힘을 냈다.

체험활동이 열리는 5일. 학생들에게 오전 9시까지 학교로 오라고 공지했지만, 이른 아침부터 운동장엔 아이들로 북적였다. 기다리는 아이들에 마음이 조급해진 봉사단은 빠르게 부스를 설치하고 물품을 정리했다. 부스는 심폐소생술과 구강 교육, 젓가락으로 콩 옮기기, 뱃지 만들기, 카드 뒤집기 게임, 가족사진관 등 5개가 꾸려졌다. 10명씩 팀을 꾸린 학생들은 차례대로 부스를 돌며 각각 프로그램을 경험했다. 구강 교육은 스리랑카 마둘켈(Madulkelle) 병원의 수술전문의가 맡았다. 의사 깃(30) 씨는 “아이들이 어떻게 이를 닦고 관리해야 하는지 실습을 통해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기회였다”며 “우리나라 아이들을 위해 한국에서 신경 써 줘 고맙고, 이런 활동에 참여해 미력하게나마 도움을 줄 수 있어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뱃지 만들기는 단연 아이들의 주목을 받았다. 특히 부처님, 태극기 등을 그린 몇몇 학생들이 수준 높은 그림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사신디(12) 학생은 “태극기를 처음 보고 색이 너무 예뻐서 따라 그려봤다”며 “학교에서 행사가 열린 것도, 외국인을 만난 것도 처음인 데 재미있는 경험을 하게 돼 신난다”고 전했다. 5가지 부스 체험을 모두 마친 학생들에게는 합장주가 선물로 전달됐다.

6일에는 청홍 2팀으로 나눠 단체 ‘큰 공 굴리기’ 체육대회를 열었다. 각 팀 4명씩 줄을 서 몸집보다 큰 공을 굴렸고, 청팀의 공이 결승선에 들어오자 곳곳에서 환호성이 튀어나왔다. 이긴 팀에겐 막대 사탕이 주어졌다. 2차전은 줄다리기로 실력을 겨뤘다. 남성부와 여성부 경기 결과는 1:1 무승부였다. 다나 청년봉사단원들이 각 팀에 흡수돼 힘을 보탰고, 신발까지 벗어던지고 결의를 다진 홍팀이 통쾌한 역전승을 거뒀다. 승패를 떠나 함께 땀 흘리고 서로를 격려하며 우정은 더욱 돈독해졌다. 운동장 한쪽에서는 첫날 찍은 사진을 배분했다. 아이들은 한복을 입고 있는 자신의 사진을 찾으며 흐뭇함을 감추지 못했다.

스리랑카 문화를 배우는 기회도 있었다. 다나 청년봉사단원들은 1월 7일 다르마라자 사원에 모여 스리랑카 전통음식인 달커리와 삼볼을 직접 만들고, 손으로 식사해 보면서 어울림의 장을 펼쳤다. 마지막 날, 공항으로 돌아가기 전 스리랑카 불교에서 중요한 성지 중 한 곳인 켈레니아 사원을 참배하기도 했다. 보리수나무, 탑, 와불상 앞에 꽃을 공양하며 스리랑카의 평화와 화합을 위해 기도하는 것으로 6박 8일의 대장정은 마무리됐다.

김지우(14) 다나 청년봉사단원은 “사촌 누나를 따라 처음 봉사활동을 왔는데 스리랑카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어 뿌듯했다. 색다른 환경에서 한국문화를 알리니 우리 문화에 대해 더욱 자긍심이 생겼다”고 말했다.

대광불교 조계종

종정대행 및 총무원장 도현성원(용주사)

원로원장 원성(다인사) 원로위원 덕산(회룡사)
중앙종회의장 서암(암천사) 감사원장 지현(유은정사)
호계원장 선혜(은혜사) 사정원장 보원(극락암)

서울교구원장 지연(지연정사) 충북교구원장 무광(대청사)
충남교구원장 삼현(용화사) 부산교구원장 무루지(진불사)
전북교구원장 법향(지장사) 전남교구원장 혜안(유정정사)
경남교구원장 부성(은혼사) 비구니회장 화심(관음사)
법사단회장 금강심(금강사) 법사단부회장 세연(현선사)

국장 아랑(보현정사) 지현(해월신당)
정수(청암사) 영매(영영당)
유경(별궁) 나혜(매화신당)
도희(수성신당) 동인(백천정사)



대광불교 조계종에서 종도님 모집합니다.
스님 법사님 등 많은성원 부탁드립니다.

총무원 : 경남 밀양시 초동면 초하로634-19 전화 055-391-0413 팩스 055-391-9951

금륜재 생천도 지도자 모집

♧ 우리사찰을 살립시다 ♧

금번 삼성고불강원에서는 조선시대에서 행해져 온 금륜제를 발굴 복원하여 옛 화려했던 전통문화를 되살리고자 교육행사를 마련 하였습니다. 일제에 의해 말살 되었던 소중한 문화의식을 신도들의 자손과 가족을 위하는 복된 신앙을 되찾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문화는 우리만이 지킬 수 있습니다.

혹자는 신통이 불교가 아니라는 어리석은 편견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편협한 무지에서 온 생각 입니다. 대승경전의 부처님의 설법이 거짓이란 법문인가요? 30년 전만 하더라도 자손들을 위해 칠성전에 복을 빌고 자성을 밝히는 인연 도법이였습니다.신도님들은 신앙생활을 지도했으며 스님들은 도를 수행했던 것이죠! 신도는 자손과 가정의 안녕을 위하고 주지스님은 복과 덕을 베푸는 행사 였습니다. 항간에는 주지스님들께서 절 운영이 어렵다고들 합니다.

왜 운영이 안되겠습니까? 우리의 소중한 문화를 잃어 버렸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개화기를 거치면서 신앙 행태가 급변한 생활 환경에서 비롯된 안타까움 결과라고 봅니다.

금륜재는 사찰을 꽃피우고 신심을 고취하며 화기애애한 생기를 가져오는 활기찬 행사이며 삶을 융성하게 할 도법 입니다. 많은 사찰에서의 열정을 갖고 기도 하는 이가 있어 번득이는 경계가 있어 지혜가 와도 상의할 선지식을 찾을 수 없어 안타깝게도 공부에 진전 없이 사라져가는 인재가 한둘이 아닙니다. 하여 이런분들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금륜재는 약칭 칠성기도법은 흥겨운 장엄한 장단에 맞춰 춤을 추며 도를 닦아(행선) 얻는데에 있습니다. 우리는 중생체 속에 자리잡고 있는 업연의 영가에 작난인 진퇴양난을 다스리고 참다운 불자로 개과천선시켜 무한 지혜를 터득하게 해야하며 기복신앙에만 억매이게 해서는 안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전국의 사찰을 살려야 합니다.그러므로 기대하는바 관심 있으신 사부대중이 있으시다면 동참하시기를 적극 추천들이며 금륜재 지도법사 교육을 아래와 같이 소개하면서 미래불교를 위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나무금륜보계치성광 여래불 · 좌보처일광변조소재보살
우보천월광변조식재보살 · 북두대성칠원성군

금륜재 의식과 신통무
- 1부:칠성각=칠성청 예불및 천문의식.
- 2부:칠성무와 108신통법.

공부내용
♧자기를 발견 한다.
♧가족의 성품을 안다.
♧이웃의 마음을 읽는다.
♧사회의 움직임을 간파한다
♧정치인들의 방향을 안다.
♧국가의 미래를 안다 등.

칠성무
※선남자가 춤을 추며 정진하는 춤을 신선무라 하고,
※선여인이 춤을 추며 공부하는 춤을 선녀무 합니다.
※진정 신선과 선녀의 춤이죠.
※법구 장단에 마춰 춤을 추며즐겁게 도를 얻는다.

♧칠성 무는 자성 인연 연기법.
※금륜천재 교육이수 시현 후 사찰 운영제정 보장.
※본원에서는 주지스님 이상에게만 금륜제를 전수합니다.
※본 금륜재는 40년여년 고행의 결과로서 정립된 문화의식이니 놓치지 마시고 사원의 생기를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후속108 신통수련
7일 자성체험기도. 100일 신통수련.
1일 생 천도 실시. ☆전통 가사복식 제현.

금륜당 화엄 010-7387-2833 | 대한불교삼성고불대학

밝은 미래 꿈꾸게 할 '희망센터' 첫 삽

(사)다나, '희망센터' 기공식

컴퓨터·한국어교실 등 2층 규모
다나 청년봉사단도 공사 힘 보태
스리랑카 정부 측도 고마움 표시
마힌다 스님 "질 높은 교육할 것"

스리랑카=김내영 기자





① 다나 청년불사들도 '희망센터' 건립에 힘을 보탰다. ② '희망센터' 부지 ③ 다르마라자 사원 옆 공간에서 '희망센터' 기공식이 개최됐다.

스리랑카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다나의 '희망센터'가 첫 삽을 떴다.

(사)다나(대표 탄경 스님)는 1월 7일 스리랑카 노나가마 다르마라자 사원 옆 공터에서 '희망센터 기공식'을 개최했다. 기공식에는 탄경 스님과 사제의 연을 맺은 마힌다 스님(스리랑카), 다르마라자 사원 주지 해마 스님, 프리안드 정부 토지 관리 책임자, 다나 청년봉사단, 지역주민 등 500여 명이 동참해 희망센터 건립을 축하했다.

희망센터는 제대로 된 교육을 통해 스리랑카 아이들이 희망을 품고 살아가길 발원한 탄경 스님의 원력에서 비롯됐다. 탄경 스님이 스리랑카에 교육관 건립을 서원했고, 사제인 마힌다 스님이 현지에서 희망센터 부지 선정을 도왔다. 마힌다 스님과 해마 스님이 다르마라자 사원 바로 옆 공간을 사용하기 위해 정부 측과 적극 협의, 정부 측이 사원에 토지 제공을 합의하면서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할 수 있었다.

이날 기공식은 부처님께 꽃 공양을 올리는 것을 시작으로 부처님 경전과 곡물 등을 땅에 묻고, 우유를 끓이는 스리랑카 전통의식으로 이어졌다. 의식에는 액운을 막고 평화가 깃들길 기원하는 바람이 담겼다.

의식이 끝난 이후 탄경 스님은 "100년 전에 내가 마치 여기 살았던 것 같다. 그런 인연이 이어져 다시 스리랑카 아이들을 위해 이곳에 교육관을 짓고자 한다"며 "아이들이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힘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마힌다 스님은 "스리랑카 아이들에게 희망을 보여준 탄경 스님에게 너무 감사하다"며 "부처님이 자비행을 강조했듯 불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몸소 보여줘 고맙다. 자라나는 아이들이 불교적 소양을 갖추고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공간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정부 측을 대표해 프리안드 책임자도 "지역 내 꼭 필요한 교육관이 지어진다고 해 반갑다. 사원과 교육관을 중심으로 지역주민들의 결속력이 더 끈끈해지길 기대한다"며 "교육관 건립이 스리랑카 전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은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나 청년봉사단도 희망센터 건립에 힘을 보탰다. 직접 시멘트를 반죽하고 옮기며 토대를 닦았다. 서장호(27) 봉사단원은 "더운 날씨에 힘들었지만 탄경 스님께서 항상 생각해오던 교육관 건립의 출발점을 함께하게 돼 보람된다"며 "스리랑카 아이들이 이곳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어른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올해 말 완공을 목표로 하는 희망센터는 컴퓨터실과 한국어 교육실, 영어 교육실, 회의실, 사무실 등을 갖춘 지상 2층 규모로, 향후 스리랑카 아이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펼치는 공간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사)다나 대표 탄경 스님

"용기 잃지 말고 희망으로 나아가길"



"제가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너무 행복하고 기쁩니다. 부처님 제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도 하고요. 앞으로도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은 적극 지원할 생각입니다. 그러니 아이들도 용기 잃지 말고 꼭 희망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노숙인을 위한 '밥차' 스님으로 유명한 탄경 스님은 불교국가 아이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에도 '베테랑'이다. 네팔과 라오스, 파키스탄, 캄보디아·스리랑카·태국 등 도움이 필요한 곳엔 언제나 스님이 있었다.

특히 출가 전 대학생활을 보냈던 스리랑카는 스님에게 조금 더 특별하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공부의 끈을 놓지 않으려 애쓰는 아이들을 지켜보며 이들을 돕겠다는 서원도 굳건해졌다. 스리랑카는 한국전쟁 당시 가장 먼저 우리나라로 병원선을 보내준 곳이기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도 컸다.

탄경 스님은 "불자들이 지속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도움의 손길을 뻗는 것부터가 불교를 각인시키고, 이미지를 개선하는 최고의 방법"이라며 "나부터 솔선수범할 때 나눔 문화도 주변으로 조금씩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스리랑카 봉사활동에서 모든 실무를 청년 봉사단원들에게 맡긴 것도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단원들이 몸소 체험해보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한국불교의 미래를 청년 불자들이 짊어지고 가야한다는 사명감과 어려운 이들을 향한 자비심을 심어주고 싶었다. 스님은 "처음으로 청년들에게 실무를 맡겼는데 변수도 많았다. 그러나 새로운 시도를 해봤다는 자체가 뜻깊다"며 "한국불교가 지속되기 위해선 청년 포교가 꼭 필요하다. 그에 맡는 역할을 부여하고,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 자연스럽게 포교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천만 명이 배곯지 않고, 천만 명이 제대로 된 교육 받고, 천만 명의 환자가 병에서 벗어나게 도움을 주는 그날까지 쉼 없이 나아가야죠. 꼭 해내겠다는 마음을 먹고 최선을 다하면 안 될 일이 없지 않겠어요?"

김내영 기자

꽝 없는 선물에 스리랑카 아이들 '웃음꽃'

1월 6일, 전교생 320여 명 대상
치아건강 위한 칫솔·치약 세트도
학교 측에도 빔 프로젝트 전달식

스리랑카 아이들이 다나 청년봉사단이 준비한 '꽝 없는 뽑기 행사'에 참여해 선물을 하나씩 받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굣길에 올랐다.

다나 청년봉사단은 1월 6일 봉사활동 일정을 마무리하며 웰리파탄울라 초등학교 전교생 320여 명을 대상으로 '꽝 없는 뽑기 행사'를 개최했다. 누구하나 소외되지 않고 좋은 추억을 얻어가길 바라는 따뜻한 배려였다. 학생들은 차례대로 투명 박스 안에 들어있는 종이를 뽑아 다양한 선물을 받고 웃음꽃을 피웠다.

선물은 학용품 세트, 도시락, 손목시계, 한국 과자 세트, 에코백, 캡모자, 텀블러, 가방, 비타민, 크리켓 배트, 줄넘기, 스케치북과 파스텔, 자전거 등으로 구성됐다. 물품은 사)다나 후원자들이 십시일반 마련했고, 청년봉사단원들이 손수 포장했다. 특히 아이들의 건강한 치아 관리를 위해 치약·칫솔 세트가 전교생에게 하나씩 주어져 훈훈함을 더했다.

사)다나 대표 탄경 스님은 "아이들이 선물을 받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눔의 가치를 되새기게 됐다"며 "다나 청년봉사단원들도 받는 기쁨보다 누군가에게 나눌 때 기쁨이 더 크다는 것을 꼭 느꼈길 바란다"고 말했다.

1등 상인 자전거를 뽑은 둘샤니(14) 학생은 "자전거가 뽑힐 줄 상상도 못했는데 너무 행복하다"며 "등굣길에 항상 아버지와 함께 다녔는데, 이젠 혼자서 자전거를 타고 오면 될 것 같아 설렌다"고 소감을 전했다.



학교 측에 빔 프로젝트를 전달하고 있다.

이날 학교 측에 빔 프로젝트와 대형 스크린 전달식도 진행됐다. 사전에 학교 측에 학생들을 위해 가장 필요한 물품을 문의한 후 특별히 준비한 것이다. 강재선 사)다나 이사는 "다나가 재정적인 면에서 크게 넉넉하지 않아 고민하던 차에 선뜻 마음을 내주신 후원자 덕분에 빔 프로젝트와 스크린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 준 후원자들께 항상 고맙다. 앞으로도 아이들의 배움의 길에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가미니 가마지(Gamini gamage) 웰리파탄울라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은 "며칠간 다나 청년봉사단과 학교 학생들이 어울려 서로의 문화를 배우고 이해하는 시간을 보내 기쁘다"며 "아이들을 위해 챙겨준 선물 감사하고, 빔 프로젝트와 스크린은 학생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잘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스리랑카=김내영 기자

홍수민 (사)다나 청년봉사단장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이 봉사 원동력"



"스리랑카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빛과 해맑은 웃음이 봉사활동을 잘 끝마치게 된 원동력이 됐습니다. 도움을 주러 왔는데 오히려 과분한 사랑을 받고 가는 감동적인 경험이었습니다."

홍수민(25) 사)다나 청년봉사단장은 이번 스리랑카 봉사활동의 실무를 담당했다. 홍 당장은 "단원들이 맡은 역할을 잘해주고 묵묵히 견뎌줘 사고 없이 봉사를 회향했다"며 "단원들에게 한국과 스리랑카 문화 교류라는 뜻깊은 추억을 만들어준 감사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홍 단장은 향후 포부도 밝혔다.

"앞으로 다른 봉사자들이 주체적으로 봉사활동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곁에서 돕고, 시행착오를 밑거름 삼아 더 발전된 다나를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김내영 기자

제20회 불교출판문화상
붓다북 학술상
수상을 축하합니다



조론연구
조론오가해
(세트/전6권)
장경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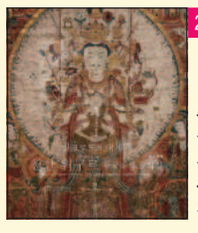
올해의 불서
불교출판문화상
붓다북학술상 수상작들



2022년 (19회)
붓다의 입멸
에피소드 연구
민족사



2021년 (18회)
조선 불교사상사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20년 (17회)
중앙아시아에서 꽃피운
실크로드의 대제국
천산 위구르
왕국의 불교회화
진인진



2019년 (16회)
백곡 처능,
조선 불교 철폐에
맞서다
조계종출판사



2018년 (15회)
중국 근대불교학의 탄생
(아시아총서25)
산지니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www.buddhabook.co.kr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돈암동일하이빌B1 ㈜운주사
Tel. 02-953-7181



윤인수 원장 연구개발

겨우살이환
재료명: 겨우살이, 느릅나무뿌리껍질, 도라지, 더덕, 모과, 천문동, 맥문동, 비파잎, 삼백초, 뽕나무뿌리껍질, 둥굴레뿌리, 무화과, 탱자, 대추, 산사나무열매, 맥아
비염이 있습니까? 숨이 차십니까? 기침,가래가 힘드십니까? 천식에 힘드십니까?

여주환
재료명: 여주, 돼지감자, 바나바잎, 민들레, 복분자, 옥수수수염, 오미자, 구기자, 천문동, 창출, 뽕나무뿌리껍질, 음나무줄기, 독활, 작약, 칡뿌리, 감초, 산사나무열매, 맥아
당뇨 있으신 분 혈당수치관리를 위해 여주환을 드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전복껍데기환[석결명 스틱]
재료명: 전복껍데기, 마리골드, 국화, 민들레, 엉겅퀴, 백작약, 다시마, 톳, 산사나무열매, 맥아
간과 눈에 문제가 생기면 석결명으로 해결하세요. (본초강목)
세종대왕께서도 드셨다고 세종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도 제주도 유배시 석결명환을 드셨다고 방송되었습니다.

폐청소법, 치매·중풍 예방법 등 성인병에는
윤인수 원장의 경혈자극요법을 활용하세요.
불면증, 어지럼증, 이명(귀울림), 두통, 고혈압, 저혈압, 동맥경화, 만성설사, 목이 쉬었을때, 건망증, 협심증, 위염, 변비, 안면신경마비, 졸음병, 실어증, 삼차신경통, 간경화, 황달, 대상포진, 피부가려움증, 생리통, 생리불순, 다이어트, 귀머거리, 녹내장, 갑상선 이외 총 287종이 수록되어 있음.


전화주시면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골담초환
재료명: 골담초분말, 쇠무릎뿌리, 황칠나무, 두충, 가시오가피, 참당귀, 울금, 덩이뿌리, 쇠비름, 독활뿌리, 개다래열매, 천마뿌리, 율무, 질경이, 음나무줄기, 왕느릅나무껍질, 엉겅퀴, 산사나무열매, 맥아
허리, 다리가 불편하십니까? 오래 걷기 힘드십니까? 계단 오르기 힘드십니까?

산수유환
재료명: 산수유열매, 옥수수수염, 복분자, 오미자, 구기자, 토사자, 사상자, 복령, 마가목열매, 뽕나무뿌리껍질, 참당귀, 천궁, 우슬, 오갈피, 두충, 질경이, 산사나무열매, 맥아
소변때문에 밤에 몇번씩 일어나십니까?

어성초환
재료명: 어성초, 적하수오, 자소엽, 측백나무잎, 서목태, 원지, 우슬, 천문동, 마가목열매, 복분자, 솔잎, 뽕나무뿌리껍질, 녹차잎, 창출, 구기자, 산사나무열매, 맥아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십니까?

하지·아이케어센터 | 구입문의 : 02-969-9007 / HP.010-3245-0118
농협 : 301-0234-9633-61 / 예금주 : 윤제하

中, 티베트 사찰 신규 출가 금지명령 '논란'

총림인 큉붐루라 사원에
연령 불문 출가 등록금지
당국서 관리자 파견까지
사찰 쇠퇴…폐사 우려도

박영빈 객원기자


최근 신규 출가자 입산이 금지된 큉붐루라 사원 전경. 사진출처=자유아시아방송

중국 당국이 최근 한 티베트 불교 사찰에 신규 출가자의 입산과 승적등록을 금지시킨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1월 3일 '자유 아시아 방송(RFA)'은 티베트 자치구의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자세한 정황을 보도했다.

RFA 측은 "중국 당국이 티베트에서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로 출가하여 입산하는 것에 대한 제한조치를 내린 적은 있었지만, 모든 연령에 대해 출가자의 입산과 승적등록을 금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현지 소식통의 제보를 인용하여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현지 소식통은 "중국 당국이 동부 티베트 참도에 있는 티베트 불교 사찰에 새로운 출가자를 받지 말라고 행정명령을 내렸다. 명령을 받은 사찰은 마르캄 지구에 있는 큉붐루라 사원"이라고 말했다.

RFA는 큉붐루라 사원은 동부 티베트 지역에서 중요한 총림사찰 중 하나로 달라이라마가 이끄는 종단인 겔룩파에 소속돼 있으며, 현재 80명 이상의 비구스님들이 상주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원은 1950년대 티베트로 침공한 중국군에 의해 대부분 파괴됐으며 1980년대에 들어서 종교활동이 인정받으며 현지 티베트인들과 스님들의 노력으로 일부 복원된 것으로 전했다. 현지 소식통은 "50년대에 중국군이 침공할 당시 현지 티베트인들과 스님들은 6년 넘게 침공에 저항했다. 이런 내력으로 인해 복원이 허락된 후로도 감시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현재 티베트 자치구와 자치현 지역에서의 종교활동은 중국 국가종교사무국이 시행하는 〈종교사무에 관한 규정〉을 따르고 있다. 당국은 최근 이 규정을 집행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 왔으며, 규정에 따르면 티베트의 모든 국공립학교나 교육기관에서는 어떤 종교활동도 할 수 없고, 18세가 되기 전에 사찰에 승적을 올리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다.

전통적인 방식으로 스님들의 자치로 운영되던 현재 큉붐루라 사원을 감독하기 위해 당국은 현지에 관리자를 임명하여 파견했으며,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찰을 폐쇄하겠다고 경고한 것으로 전했다. 현지 소식통은 "마르캄 지구의 티베트 주민들은 새로운 출가자가 입산하는 것을 금지하는 새로운 명령에 큰 우려를 비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 조치는 결국 사찰의 쇠퇴를 불러 폐사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강조하며 "불교문화가 생활에 다양하게 녹아있는 현지 티베트인들에게 있어 지역의 중요한 불교 의례기간 동안 이를 주재할 사찰이 없어짐과 동시에, 관혼상제에 대한 모든 종교적인 예식에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된다. 모두가 명령이 미칠 악영향이 크다고 입을 모은다"고 지역 내부의 반응을 전했다.

중국 당국은 전통적으로 티베트 문화와 국가 정체성의 중심지였던 티베트 불교 사원의 규모와 영향력을 오랫동안 제한하려고 노력해 왔다. 최근 5년간 미성년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15세 미만의 출가자들에 대한 귀가 혹은 환속조치를 실시해 왔다. 또한 2021년 1월 국가 종교사무국이 채택한 공산당의 '종교 성직자에 대한 관리 조치' 규정에 따라 종교는 중국 사회주의 사회에 기여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불교 영화 삼사라, 영국 전역서 개봉

불교 '윤회' 다룬 파티뇨 감독 영화
베를린국제영화제 특별상 수상작


불교 영화 '삼사라' 한 장면.

지난해 국내 전주시네마프로젝트 선정작이었던 로이스 파티뇨 감독의 영화 '삼사라'(Samsara)가 영국 전역에서 상영된다.

1월 9일 영국 일간지 가디언보도에 따르면 불교 영화 '삼사라'가 오는 1월 26일부터 영국 전역의 영화관에서 상영될 계획이다.

불교 용어인 '삼사라'는 삶과 죽음의 반복, 즉 윤회(輪廻)를 의미한다.

영화 삼사라는 1·2부로 나뉘는데, 1부에서는 동물로 환생하고 싶은 '몬'(Mon)이라는 이름의 할머니가 병들어 죽은 후 중간계를 거쳐 2부에서 염소 네마로 탄생한다. 몬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 영화에는 관객들에게 '눈을 감고 그녀와 함께 내세를 여행하라'는 자막이 등장한다. 이윽고 15분의 막간이 있다.

감독은 이를 생(生)과 사(死)의 중간에 있는 티베트 불교 용어인 '바르도'로 표현한다. 눈 감아도 인지되는 섬광의 연속과 청각적 자극을 통해 사후세계로의 여정을 구현한 것이다.

가디언은 이 중간계에 대해 "눈을 감고 '본다'"며 "삼사라의 내세 막간 화면은 밝게 번쩍이는 여러 가지 빛깔의 빛과 들어오고 나가는 소리로 가득 차 끊임없이 변화한다"고 평가했다. 감독은 "나는 명상적인 영화를 항상 탐구해 왔다. 성찰적이면서도 명상할 수 있는 영화를 제작하고 싶었다"며 "갑자기 눈을 감고도 볼 수 있는 영화를 만들겠다는 아이디어가 떠올랐다"고 설명했다.

2부가 시작되면서 관객들은 1부 장면의 반대편으로 나와 밝고 푸른 바다가 보이는 잔지바르 해안에 사는 가족을 만난다. 가족들은 아기 염소 '네마'를 보며 행복해 한다. 염소 네마가 할머니의 환생일 것이라고 추측케 하는 대사도 등장한다.

삼사라는 앞서 지난해 10월 런던 영화제에서 초연됐다. 아울러 지난해 4월 전주시네마프로젝트에 선정되기도 했다. 특히 올해 베를린국제영화제 인카운터스 부문에서 심사위원 특별상을 받았다. 박정현 객원기자

스리랑카, 불교도·가톨릭 신자 함께 불탑 건립

종교 간 화합 · 조화 도모
성당서 인적 · 물적 지원도


스님들과 가톨릭 성직자들이 힘을 합쳐 불탑을 건립하는 현장. 사진출처=헤럴드 말레이시아

스리랑카에서 종교 간의 화합과 조화를 위한 움직임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1월 4일 말레이시아의 '헤럴드 말레이시아'는 가톨릭 성직자와 신자들의 도움으로 불탑이 건립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스리랑카 북부 휴양지로 유명한 도시인 칼피티야(Kalpitiya)의 불교센터에 새롭게 건립 중인 불탑을 위해 현지의 가톨릭 성직자와 신자들이 나섰다. 지역의 평화와 종교 간의 화합을 위해 건립되는 불탑을 위해 현지의 칼피티야 성당과 성당이 소속된 칠라우 교구는 인적·물적 지원을 불교계에 보내고 있다.

칼피티야 불교센터 주지 반디웨와 디야세나 스님은 "불탑 건립을 위해 불교와 연대해 주는 가톨릭 교회의 지원에 감사하다"면서 "칼피티야 성당의 주임신부인 삼패스 신부를 비롯해 다른 성직자분들과 칠라우 교구의 신자들은 종교 간의 화합을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감사를 표했다.

칼피티야 성당 주임신부인 삼패스 프라상가 페레라 신부는 "칼피티야는 불교, 힌두교, 가톨릭, 이슬람교 4개 종교의 신자들이 함께 모여 사는 지역"이라며 "우리는 모두 화합하고 협력하며 이 땅에서 살아간다. 종교는 다를 수 있지만 우리는 모두 한 인류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항상 조화와 사랑을 경험하는 원인"이라며 불탑 건설 전에도 종교 간의 화합을 위해 각 종교의 지도자들이 연대와 협력을 기울여 왔다고 설명했다.

디야세나 스님은 "옛날 인도에서도 스리랑카 불교운동가 아나가리카 다르마팔라가 부다가야에 불교사원을 지으려고 했을 때 가톨릭 교회가 불교 공동체의 권리를 옹호해 줬다. 또 2019년 부활절 테러 사건 당시 싱할라족과 무슬림 사이의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많은 이슬람 지도자들이 중재에 나섰으며 불교도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최대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삼패스 신부의 설명을 보충했다. 스님과 삼패스 신부는 "이 나라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가 되면 평화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서로 화합하고 평화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행운"이라며 서로의 종교에서 말하는 평화의 메시지에 집중하자"고 했다. 삼패스 신부는 "두 종교 간의 우정을 보여주는 작은 예를 들자면 지금 탑을 짓는 데 전념하고 있는 모습"이라며 웃어 보였다. 박영빈 객원기자

스페인에 6천톤 거대 불상 조성된다

룸비니동산재단, 카세레스에 백옥 불상 건립 계획


스페인 카세레스 지역에 세워질 백옥 불상 조감도.

스페인의 한 작은 마을에 6000톤에 달하는 유럽 최대 규모의 불상이 들어설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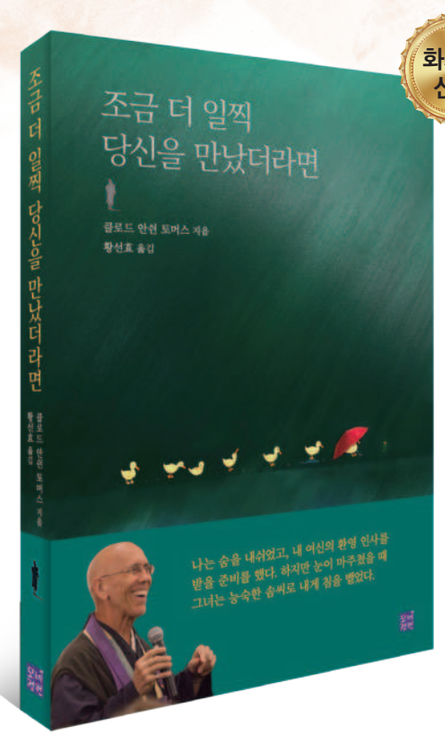
1월 5일 릴리젼뉴스에 따르면 룸비니동산재단 스페인 지부는 최근 카세레스 시내 인근에 최대 6000톤에 달하는 백옥 불상을 건립하려고 계획 중이다.

릴리젼뉴스는 "스페인 불교도들은 2022년 기준 인구가 9만5976명인 카세레스를 유럽 불교의 총본산으로 만들길 원하고 있다"며 "무종교인이 늘어나고 아시아 문화가 각광받는 최근 추세에서 불교로써 유럽과 아시아 간 이해를 촉진하고 동서양 간 문화 교류의 장을 만들고 싶어한다"고 보도했다.

공공기관인 사회학연구센터에 따르면 스페인 전체 인구 중 36%만이 자신이 가톨릭 신자라고 밝히고 있으며, 실제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은 18%에 불과하다.

룸비니동산재단의 회장 호세 마누엘 빌라노바도 "불교는 신의 인도를 받지 않는 '철학'에 가깝기 때문에 스페인 젊은이들의 각광을 받고 있다"며 "이런 시기에 거대 불상을 제작하는 것은 매우 상징적인 일"이라고 기뻐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화제의 신간

클로드 안쉰 토머스 지음 / 황선효 번역 / 232쪽

전쟁에서 사람을 죽였다고 고백하는 한 전쟁 영웅이
지옥 같은 트라우마 끝에 얻어낸 삶과 고통에 대한 실증적 깨달음의 책

고통을 삶의 또 다른 기회로 만든 사람의 이야기

조금 더 일찍
당신을 만났더라면

우리는 고통을 통해서 치유를 향해 간다.

세상은 우리에게 고통은 적이라고 가르친다.
우리는 불쾌하고 실망스럽고 힘든 것은 거부하라고 끊임없이 주입받는다.
"이 모든 고통이 왜 필요한가? 행복하자! 즐기자!" 하지만 고통은 우리의 적이 아니다.
건너편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다.
반대편의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진정으로 알고 느낄 수 있는 것은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이다.



지은이 클로드 안쉰 토머스

10대 후반의 어린 나이로 베트남 전쟁에 파병되어
항공훈장과 공군수훈십자훈장을 비롯한
수많은 훈장과 상을 받은 전쟁 영웅이다.
전쟁에 대한 심각한 트라우마로 죽음 직전까지 갔던
그는 비영리 기구인 'Zaltho Foundation'을 창립해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각 곳에서 평화와
비폭력에 대한 강연 및 순례 활동을 하는
명상수행자로 거듭났다.

모네의정원 TEL. 02-732-1520 FAX. 02-6442-1521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 정가 ~~14,000원~~ ⇨ **12,600원** (배송비 별도)

붓으로 벼려낸 108용…희망 담아내다

도일 스님 1월 24일~2월 6일, 한국미술관서 특별전

갑진년 출생 스님이 전하는
2024년 희망의 메시지 담아
일필휘지로 새로운 용 표현해
2018년 이후 6번째 개인전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갑진년에 태어난 스님이 갑진년을 맞아 붓으로 청룡 108마리를 벼려냈다. 한 폭의 그림 같으면서도 한자 용(龍)을 달리 써내려간 듯한 일필휘지의 경지가 한지에 고스란히 묻어난다. 양주 오봉산 석굴암 주지 도일 스님이 새로 선보이는 '용의 세계'다.

전통서화의 대가인 여초 김응현, 우봉 한상갑, 청계 양태석 선생을 사사하며 서화를 익혀온 도일 스님. 1993년 해인사에서 군부대 건립 기금 마련 전시회를 시작으로, 1994년 경인미술관 '산중서화전', 2006년 조선일보사 '선묵서화전', 2007년 우림화랑 초대전, 2018년 라메르갤러리 '선서화도예전'을 개최한 스님이 여섯 번째 개인전으로 대중을 찾아간다. 도일 스님이 1월 24일부터 2월 6일까지 서울 종로구 인사동 한국미술관 2층(전관)에서 개최하는 '청룡의 해 108용 특별전시회'다.

이번 전시회는 1964년 갑진년에 태어난 도일 스님이 2024년 갑진년을 맞이하며 2~3년간 준비해온 대작불사다. 108마리의 용 가운데 단연 으뜸인 것은 120호(205㎝×140㎝) 크기 한지에 한 획으로 그려낸 작품이다. 마치 여의주를 토해내는 듯한 뿔 달린 용의 머리와 그 뒤로 길게 뻗어나가며 똬리를 튼 몸통이 인상적이다. 이렇게 써낸 서로 다른 108마리의 용은 스님에겐 108염주를 한 알씩 돌리며 참회하고 번뇌를 씻어내는 수행과도 같았다.

도일 스님은 1월 8일 기자들과 만나 "108용을 주제로 앞서 전시를 한 사례를 찾을 수 없어 어떻게 글씨를 써야할지 밤낮으로 고민하다 어느 날 불현듯 깨달음이 찾아왔다"며 "도인이 피나는 노력 끝에 깨치면 눈물이 난다는 얘기는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전시를 준비하면서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게 됐다"고 준비과정을 술회했다.

스님이 전시 주제를 108용으로 정한 것은 '희망'을 전하기 위해서다. 갑진년에 태어난 스님에겐 환갑을 맞는 의미기도 하지만 스님은 이보다 60년 전 청룡의 시절과 비교해 눈부신 발전을 이룬 대한민국에 희망을 전하고 싶었다.


120호 크기 한지에 용을 그린 도일 스님.


도일 스님의 작품.

도일 스님은 "1964년은 배고프고 힘든 청룡의 시절이었다. 초가집 밖으로 나가야 화장실이 있던 시절"이라며 "농경시대에서 산업화를 거쳐 한강의 기적을 이뤘다는 표현까지 있는 대한민국에서 저출산 시대 미래를 이끄는 새로운 인물이 많이 태어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전시는 120호 크기 작품을 비롯해 크고 작은 용 108마리가 중심을 이룬다. 용을 표현한 글씨뿐만 아니라 바탕이 되는 한지의 색깔도 제각각. 또한 파란색 염료로 표현한 작품과 용에 반야심경을 금니로 사경한 작품도 전시된다. 금니 사경은 정진택 명인이 맡았다. 여기에 더해 달항아리와 은 다관, 옻칠목 항아리, 전통 한지등(燈)도 만나볼 수 있다.

도일 스님은 이번 전시에서 마련된 수익금 전액을 조계종 제37대 집행부가 추진하는 '천년을 세우다' 불사와 지역 자비나눔에 후원하기로 했다. 도일 스님은 "양주 석굴암이 양주 회천노인복지관 운영지원사찰로서 20여 년간 자비행을 펼쳐왔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수년간 제대로 나눔을 하지 못했다"며 "이번 전시회를 계기로 지역사회 곳곳에 자비행을 실천할 계획"이라고 다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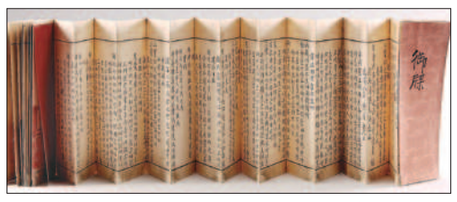
조계종 문화부장 혜공 스님은 "많은 분들이 전시회에서 상서로운 기운을 받으시길 바란다"며 "수익금 전액을 자비나눔으로 회향하겠다고 결정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오대산에 피어난 절, 월정사를 만나다

월정사 성보박물관 특별전 개최
오는 3월 31일까지 특별전시실
동계청소년올림픽 기념으로 열려

다섯 봉우리로 둘러싸인 오대산은 봉우리마다 불교에 기반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다. 중국에서 가지고 온 부처의 사리를 산에 봉안했다고 전하는 신라 승려 자장(慈藏)이 창건한 오대산의 중심 월정사, 조선 세조(世祖)와 문수동자의 만남을 간직한 상원사, 부처의 사리를 모시는 적멸보궁, 다섯 봉우리에서 머무는 5만여 부처와 보살을 모시는 암자 모두 각자의 이야기와 기억을 품고 있다. 오대산이 품어낸 절, 월정사의 불교문화유산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전시가 열린다.

월정사 성보박물관(관장 해운 스님)은 국립춘천박물관과 공동으로 3월 31일까지 특별전 '오대산 월정사: 절, 산 속에 피어난 이야기'를 개최한다.


국보 '상원사 중창 권선문' 언해본. 세조와 정희왕후, 세자, 전 · 현직 고위관료 등 200명이 서명한 것으로 조선 초기 한글 연구의 중요 자료다.

이번 전시는 지난해 가을 국립춘천박물관에서 열린 특별전의 순회전시로,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를 기념해 진행된다. 전시에는 국보 1건, 보물 7건, 국가민속문화유산 1건, 강원특별자치도 유형문화재 15건 등 오대산의 신앙과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문화유산 60건 140점이 선보여진다.

전시는 총 3부로 구성된다. 1부 '오대산 신앙의 시작'에서 오대산의 불교 신앙의 시작인 자장율사와 사리에 대해 다뤘다. 특히 오대산의 사리 신앙을 대표하는 '월정사 팔각구층석탑 출토 사리장엄구'는 고려시대 찬란하게 빛난 오대산의 불교문화를 보여준다.

2부 '부처와 보살, 산에 머물다'는 문수보살이 머무는 성지로 여겨진 오대산, 그리고 오대산의 사찰과 암자를 후원한 조선 왕실의 신앙의 일면이 살펴볼 수 있는 문화유산이 전시된다. 세조가 상원사를 방문하여 병을 치유한 설화와 관련하여, 상원사를 중창하자는 내용이 담긴 '상원사 중창권선문'에서는 세조의 수결과 도장을 확인할 수 있고 국가에서 상원사에 경제적 혜택을 준 '상원사 입안'을 볼 수 있다.

3부 '산 너머, 함께 만든 이야기'는 불교문화뿐 아니라 조선의 기록문화를 담고 있는 오대산과 산사의 사람들이 산 너머의 사람들과 함께 다양한 위기를 극복해나가는 이야기들을 담았다.

월정사 성보박물관은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을 즐기기 위해 세계 곳곳에서 강원도와 평창군을 방문한 분들에게 강원의 소중한 문화유산의 면면을 알리고 새해를 맞이해 건강한 기운을 전할 수 있는 뜻깊은 전시가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신중일 기자

성파 대종사 한국화 제자들 전시 순례 나선다

범어사 성보박물관 '제8회 옻밭아카데미 회원전'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의 옻칠 한국화 제자들이 전시 순례에 나선다.

금정총림 범어사 성보박물관은 제8회 옻밭아카데미 회원전을 1월 16일부터 28일까지 개최한다. 전시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은 1월 16일 오후 2시 열린다.

전시에는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가 내린 휘호 작품 '가관화외화(可觀画外畵, 그림 밖에서 보아야 비로소 그림이 보인다)'와 허진석 작가의 〈영축산 황룡〉, 강필순 작가의 〈春(COVID-19 Endemic)〉, 옥태석 작가의 〈어변성룡도〉 등 36명의 작가가 참여한 작품 50여 점이 전시된다.

통도사 서운암 '옻밭아카데미'는 성파 대종사의 옻칠 한국화 제자로 구성돼 한지·감지·전통천연염색·옻 염색·도자기·서예·옻칠화 등 다양한 전통예술 분야에서 연구와 작업을 하고 있다. 성파 대종사는 이번 전시를 위해 '가관화외화'를 휘호로 내렸다.


조계종 종정예하 성파 대종사의 휘호 '가관화외화(可觀画外畵)'

금정총림 범어사 주지 정오 스님은 "성파 종정 예하께서 내리신 '그림 밖을 보아야 비로소 그림이 보인다'는 휘호 법어는 예술을 초월해 자신의 틀을 깨고 경계를 허물어 수행의 단계를 성취할 수 있기를 바라는 어른의 당부"라며 "통도사를 시작으로 범어사, 대구까지 이어질 회원들의 순례길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번 전시가 성만해 우리 전통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祝

『대승기신론 해동소 혈맥기』 全7권 完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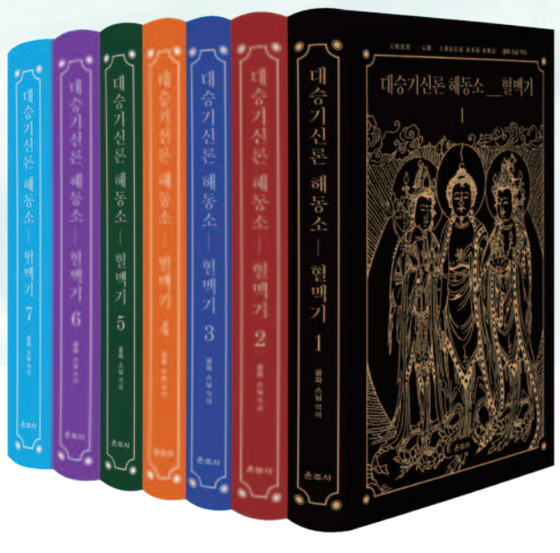
大乘起信論 海東疏 血脈記

기신론의 완결판!!!

기신론 해동소 별기를
현대식 어휘로
완벽하게 풀이하였다.

이것이 대승불교다!

대승불교 중흥에는
이 혈맥기 혁명밖에
없다.


원효센터 공파스님 역해/신국판/양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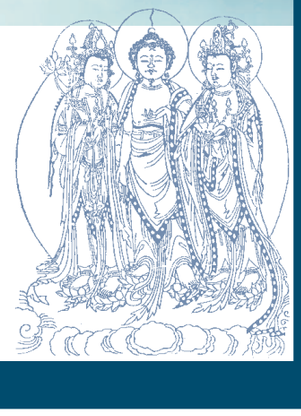
만만한 게 기신론이다. 기신론 안 가르친 스님이 없고 기신론 안 배운 사람이 없다.

그런데도 자신에 대해 믿음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기신론의 핵심인 대승을 정확하게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마명보살의 혈통과 원효성사의 맥박을
펄펄 뛰게 살려놓은

이 혈맥기를 모르고 불교를 말하면 반풍수고
이 혈맥기를 벗어난 수행은 사이비다.

그만큼 이 혈맥기는 대승불교 믿음을 일으키는 데
독보적 필독서다.



• 1권 392쪽, 20,000원 • 2권 424쪽, 20,000원 • 3권 384쪽, 20,000원 • 4권 428쪽, 20,000원 • 5권 468쪽, 23,000원 • 6권 492쪽, 25,000원 • 7권 588쪽, 30,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10~1/16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요가디피카(아헹가요가시리즈1)육체의 한계를 넘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2	밀린다왕문경(밀린다왕과나가세나존자의대화)	정안	우리출판사
3	보리도차제광론1(나란다불교학술원총서1)	쫑카파	도서출판나란다
4	보리도차제광론2(나란다불교학술원총서2)	쫑카파	도서출판나란다
5	천태소지관(지관좌선법을간결하면서도구체적으로밝힌수행의교과서)	천태지자/윤현로	운주사
6	우리는왜죽음을두려워할필요없는가:홀가분한죽음,그리고그이후(개정판)	정현채 지음	비아북
7	불교적심신의학과생명윤리	김성철	오타쿠
8	체계불학:신념체계로서의불교학	김성철	오타쿠
9	원빈스님의금강경에물들다	원빈스님 강설	이층버스
10	백일동안백가지이야기:비유로풀어쓴백유경	이현수	담앤북스

책세상

“종교 없이도 종교 본질 전할 수 있어요”



만남중창단에서 활동중인 4대 종교인들. 사진 왼쪽부터 하성용 신부, 박세웅 교무, 성진 스님, 김진 목사.



종교는 달라도 인생의 고민은 같다
성진 · 김진 · 하성용 · 박세웅 지음
불광출판사
1만6000원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주말에 저의 유발상좌 결혼식에서 4명이 축가를 불러야 하는데 ‘행복을 주는 사람’과 ‘사노라면’ 중 어떤 것이 좋을 것 같으세요? 저와 신부님은 결혼을 안 해서 모르고, 목사님은 결혼하신지 오래돼서 잘 모른다고 하네요.”

1월 8일 열린 간담회에 만난 ‘만남중창단’의 성진 스님(남양주 성관사 주지)이 기자들에 물었던 첫 질문이다. ‘스님 제자 찬스’로 4대 종교인의 축가와 주례로 결혼할 불자는 평소 복밭을 잘 일군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다른 종교 신도의 결혼식을 선뜻 찾아가 축가를 부르고 1분 주례를 해주겠다는 성진 스님, 하성용 신부(천주교 정의평화위원장), 김진 목사(종교인평화봉사단 이사장), 박세웅 교무(원광대 마음인문학연구소)가 2022년 결성한 ‘만남중창단’은 노래를 통해 대중과 소통하며, 종교의 본질을 전하고 있다.

방송프로그램에서 만난 4대 종교인들은 중창단을 통해 서로에게 도반이 됐다. 잠시 서로의 경전을 내려놓고 대신 화음을 쌓아갔다. 종교 관련 노래를 부르지 않고 통속적인 가요를 위주로 공연했다. 2년 동안 60여 차례 공연했고, 생긴 수익금은 전부 기부해오고 있다.

‘다름의 하모니’를 만들어가는 만남중창단의 4대 종교인들이 이번에는 대담집 〈종교는 달라도 인생의 고민은 같다〉를 발간했다. 이 대담집에서 4대 종교인들은 △행복 △돈 △관계 △감정 △중독 △죽음 등 6가지 주제를 깊은 사유와 성찰로 풀어내고 있다.

200여 쪽에 걸쳐 진행되는 대담은 마치 이들의 노래와도 닮았다. 각자의 종교에 대한 교리나 언어들이 아닌 일상 언어로서 쉽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서다. “종교를 이야기하지 않고 종교의 뜻을 알리는 것이 이 책의 목표(김진 목사)”이기 때문이다. “최소한의 존중과 배려가 있다면 종교를 이야기하지 않고도 경청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성진 스님)”는 것이 만남중창단 종교인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심지어 “앞으로 종교가 살아남으려면 다른 종교와 함께 살아가는 것을 모른다면 살아남기가 어려울 것”이라고도 했다.

4명의 종교인은 진지한 질문과 성찰 없이 막연히 행복을 좇지말라고 당부한다. 결과적으로 걱정과 근심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스스로 행복한 사람은 상황이나 처지에 상관없이 행복에 이르는 길을 찾고 누리기(하성용 신부) 때문이다. 결국엔 행복에 대한 답은 자기 자신에서 찾아야 하는 것이다. 이는 부처님도 예수님도 공히 하신 말씀이기도 하다.

4대 종교인 구성 ‘만남중창단’
행복 등 6가지 주제로 대담집
다름이 주는 건강한 하모니
“목표는 BTS 이어 유엔 공연”
1월 26일 홍대서 북콘서트 개최

그렇기에 이들은 과도한 집착을 경계한다. 이는 ‘종교중독’이라고 할 수 있는 ‘맹신’도 마찬가지다. “종교가 아편이 되고 중독이 되는 것은 사람들이 의심하고 질문하지 않았을 때예요. 바른 종교와 사이비를 구분하고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는 지름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스스로 의심하고 답을 구하게 하는가 아닌가.”(박세웅 교무)

그러면서 종교인들에게도 일침을 내렸다. “종교 내에서의 권력, 혹은 수행 이력 등에 너무 사로잡혀서 ‘나는 당신들과 다른 수준의 사람이야’하는 우월의식으로 신도들 위에 군림하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교인은 무엇보다 이를 경계해야 합니다.”(성진 스님)

“권력, 권위의식 같은데 사로잡히는 일이야말로 성직자들이 경계해야 할 가장 위험한 중독이라고 봅니다.”(하성용 신부)

일주일에도 3~4번은 만난다는 만남중창단의 목표는 원대하다. “BTS에 이어 유엔에 가서 공연하는 최초의 종교인이 되는 발칙한 꿈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의 종교가 비빔밥처럼 공존하고 있음을 세계에 보여주고 싶어요.(웃음)”

앞으로도 이들이 그려낼 ‘다름의 하모니’가 계속 기대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편, 만남중창단은 1월 26일 오후 7시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 청년공간 JU ‘다리소극장’에서 북콘서트를 진행한다. 도서판매 인세는 ‘(사)종교인평화봉사단’에 전액 기부할 예정이다.

책 속의 밑줄 긋기

내가 있기에 세상은 가능성으로 존재합니다. 행복이든 불행이든 내가 있기에 의미가 생겨나지요. 그렇게 보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전제로서의 ‘나’라는, 억만금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할 일인가요. 지금의 나, 살아 숨 쉬는 나를 향한 만족과 감사야말로 행복의 시작과 끝이란 생각입니다. – 23쪽

삶의 목적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삶이 먼저고 행복은 따라오는 겁니다. 자칫 행복에 너무 집착하면 오히려 삶이 불행해질 수도 있어요. 행복도 하나의 욕망이 되어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는 ‘행복=삶-욕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소유를 강조했죠. 욕망이 줄어들수록 삶은 그 자체로 행복이 되니까요. – 3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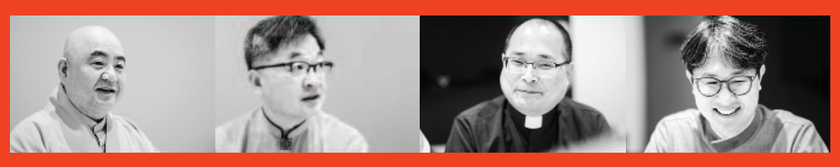
불교에서는 관계를 인연이라고 말합니다. 인연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자연히 이루어지죠. 좋다고 해서 영원히 붙들고 있을 수 없고, 싫다고 해서 당장 내팽개칠 수 없습니다. 그런 인연으로 얽힌 게 이 세상, 사바세계예요. 그런데 스스로에 대한 확신과 소신, 뚜렷한 가치관이 없이 살다 보니까 관계가 점점 힘들게 느껴지는 겁니다. – 86쪽

감정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과 감정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후자는 자주 혹은 오래도록 거기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감정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감정을 대하는 태도가 문제죠. 간혹 어떤 사람들은 감정을 표출해야 하느냐 참아야 하느냐를 가지고 논쟁을 벌이기도 하는데요.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감정을 아는 게 핵심이에요. – 116쪽

언젠가 죽는다는 걸 알고 살면 매일 매 순간이 얼마나 소중하게 다가올까요. 불교에서 죽음을 이야기하는 이유, 삶과 죽음을 따로 분리해서 말하지 않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죽음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성찰해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려는 목적입니다. 죽음은 성숙한 삶을 위한 대화인 셈입니다. – 170쪽

불교×개신교×천주교×원불교

세계 최초 4대 종교 성직자로 구성된 ‘만남중창단’
종교 어벤져스로 불리는 이들의 4人 4色 행복대담
불안한 시대에 절대불변의 행복 메시지를 전하다!





종교는 달라도 인생의 고민은 같다
오늘이 불안한 요즘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4대 종교 성직자의 행복 수업
성진, 김진, 하성용, 박세웅 지음
200쪽 | 16,000원

이미 온전한 나를 사랑할 것,
이미 온전한 삶에 감사할 것,
여기에서 행복이 시작됩니다!

출간기념 북콘서트
• 일시: 1월 26일 금요일 저녁 7시
• 장소: 청년공간 JU 지하 다리 소극장(2호선 홍대입구역 2번 출구)
• 문의 및 사전접수: 010-3322-8940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는
만성 통증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는
마음챙김 명상의 놀라운 기적!

MBSR 개발자 존 카밧진 박사 최신간!
통증 완화 안내 명상 오디오 수록!

“이 책은 통증과 괴로움을 이해하며 온전하게 살아가는, 그 가능성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 줄 것이다.”
- 존 카밧진



존 카밧진의
내 인생에 마음챙김이 필요한 순간
몸과 마음의 통증 완화를 위한 5가지 습관
존 카밧진 지음 | 안희영·김정화 옮김 | 212쪽 | 18,000원

‘갖고 싶다’가 ‘필요하다’를 넘어서면 고통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축복
캉쎄르 린포체 지음
한수희 옮김
그린비
1만5000원

달라이라마가 인정한 수행자
최근 한국 처음으로 방문해
“욕망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얼마나 많은가가 문제 일으켜”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캉쎄르 린포체는 한국불자들에겐 생소한 수행자다. 그동안 수많은 린포체들이 한국을 다녀갔지만 캉쎄르 린포체는 그동안 얼굴을 비춘 적이 없어서다. 티베트 최대 종파 겔룩파 소속인 캉쎄르 린포체는 2023년 7월 15일 달라이라마에게 인도 다람살라 균뙤 승원의 부승원장으로 임명됐다. 본명은 텐진 출팀 팔덴이며 현재 제8대 캉쎄르 린포체다. 제7대 캉쎄르 린포체는 제14대 달라이라마의 환생을 찾아낸 세 명의 수행자 중 한 명이었다.

얼마 전 한국을 방문해 태어나 처음으로 눈을 경험했다고 밝힌 캉쎄르 린포체. 처음 느껴보는 눈 밟는 소리가 인상적이었다고 말한 캉쎄르 린포체는 방한에 맞춰 한국불자들을 위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축복〉을 펴냈다. 원하는 것을 얻어야 행복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상식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표현이다.

린포체는 책에서 탐진치 삼독 중 첫 번째인 ‘탐’을 주제로 법문을 정리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원(願)’은 탐욕이 아닌 바람이나 소원 또는 소망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래서 린포체는 다양한 이야기와 비유를 중심으로 가르침을 전한다. 특히 탐욕과 욕망이 어떻게 괴로움을 동반하는지 독자의 이해를 돕는 데 힘을 썼다.

그러면서도 린포체는 욕망이 꼭 나쁜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다만 “욕망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얼마나 많은가가 문제”라고 강조한다. 그는 애플의 아이폰을 주제로 욕망을 설명한다.

“아이폰11과 아이폰12는 뭐가 다르지요? 아주 조금은 다르겠지요. 그런데 관련 업체들은 이 둘의 차이가 아주 크다고 말하고 ‘이 제품이 가장 최신형’임을 강조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미친 듯 최신 폰을 사고 싶어 안달이 납니다. 전에 누군가가 아이폰을 두고 이런 농담을 하더군요. 오이에 ‘iPhone’이라고 써놓으면 즉시 그 오이의 가격이 치솟으며 너도나도 사려 할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렇게 많은 스마트폰이 필요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에겐 손이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런데도 서랍에 스마트폰을 몇 대씩 넣어 둡니다. 이처럼 ‘갖고 싶다’가 ‘필요하다’를 넘어서는 경우가 많고, 우리는 욕망에 코가 꿰여 끌려가곤 합니다.”

린포체는 이런 욕망을 처리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도 소개하고 있다. 우선 눈을 감고 자신의 소원(욕망)이 몇 개나 되는지 생각해보자. 그리고 그걸 한 번 적어보자. 만약 적어놓은 소원이 6개라면 그중 3개를 지운다. 소원이 10개라면 절반인 5개를 지운다. 그렇게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적어놓고 찬찬히 살펴보자. 그중에서 욕심 때문에 갖고 싶은 게 몇 개인지, 정말로 필요한 건 또 몇 개인지 세어보자. 그렇게 다시 절반만 남기고 그다지 절박하지 않은 소원은 지워버린다. 그러다보면 남아있는 소원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린포체는 말한다. “조금 많아도 괜찮고 조금 적어도 괜찮습니다. 소원이 이루어지면 즐겁고 이루어지지 않아도 기쁩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잘 적응하고 만족하는 인생이 더 아름답습니다.”

지금 행복한 상태라면 행복을 찾고 싶어하지 않을 거고, 행복해지고 싶다는 건 현재 행복하지 않은 상태에 처해 있다는 뜻이다.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자.

▲저자 **캉쎄르 린포체**는?

1975년 태어나 1980년 제8대 캉쎄르 린포체로 인정받았다. 1992년 달라이라마가 세운 불교철학대학에서 학사를 취득하고, 1998년 인도 남부 쎄라 제 승원 교수사 과정을 수료해 불교학 석사를 취득했다. 2005년 다람살라 균뙤 탄트릭 승원에서 불교철학 박사를 취득할 때 최고 학부 중 수석이었다. 현재는 직접 설립한 네팔 카트만두 탕까르 데첸 최링 승원과 세계 각지의 디빵까라 재단을 관장하고 있다. 인도, 네팔, 베트남, 대만, 미국, 한국 등 다양한 나라의 딥까르 불교센터를 통해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

茶禪一如 공간 ‘초암다실’ 조명하다



초암다실의 미학
후루타 쇼킨 지음
이현옥 옮김
민족사
2만2000원

〈초암다실의 미학〉은 차(茶), 다도(茶道)를 다루고 있지 않다. 차의 음다법·제다법·차 산지·차 도구 등이 아닌 차(茶)와 선(禪)이 이어지고 있음을 미학적으로 조명하고 있어서다.

〈초암다실의 미학〉은 차를 마시는 다도와 득도를 위한 선의 수행이 같은 경지라는 ‘다선일미(茶禪一味)’의 관점에서 초암다실의 미학적 구조를 체험토록 한다.

‘초암(草庵)’이라는 다도를 위해 만든 작고 소박한 다실 공간을 미학적으로 접근해 공간 그 자체가 궁극적으로 선의 세계이며 불법 수행의 도량임을 보여주고 있다.

초암다실(草庵茶室)은 작고 소박한 다실로 ‘와비다실(わび茶室, 侘茶室)’이라고도 하며, 일본에서 다실이라고 할 때는 흔히 이 초암다실을 가리킬 때가 많다.

일본의 다성(茶聖)이라 불리는 센노리큐(千利休)는 집은 비가 새지 않을 정도면 족하다고 하여, ‘초암차(草庵茶)’의 정신을 강조했다. 동시에 그는 작은 것에서 아름다움을 보는 와비미(わび美, 侘美)의 구성에 한층 더 신경을 쏟아부었다. 다실의 천장이나 벽은 말할 것도 없고, 다실 내 특별한 공간의 너비, 깊이의 치수까지 까다롭게 따져 와비의 종합적인 미를 심오하게 추구하며 초암다실의 형식을 완성했다.

초암다실은 다다미 4장 반으로(약 2평) 만들어졌다. 현재 일본에서는 이 4장 반을 우리나라의 고시원 정도의 작고 더 이상 싸게 구할 수 없는 방으로 비유하고 있다. 이 작고 좁은 공간에서도 자유로움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은 좁은 게 좁은 것이 아니고, 넓은 게 넓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차는 단순히 마시던 음료였다. 음료에서 의식(儀式)이 되고, 거기에 정신적인 의미가 더해지면서 차를 대하는 본질이 변화했다. 다선일여(茶禪一如)의 차 문화를 공간적으로 표현한 것이 초암다실이다. 다만 이 책에서는 선의 세계를 형이상학적 접근이 아닌, 초암다실이라는 실재하는 공간의 구조적 접근을 통해 명료하게 밝히고 있다는 데 의미가 깊다.

책에서 조명한 초암다실의 구조를 살펴보면 선의 미학이 확인된다. 선에서의 오묘한 깨달음인 무(無)의 관문을 상징하는 낮은 출입구인 ‘니지리구치(にじり口)’부터 속계를 떠나 고요한 깨달음의 세계를 상징하는 다실 정원인 ‘로지(露地)’, 일심득도(一心得道)와 평상심시도(平常心是道)를 나타내는 ‘징검돌’을 거친다.

또한 인간의 안이비설신의(眼耳鼻舌身意)를 상징하는 감각기관인 ‘다실의 창’과 불상을 걸어 예배했던 불당이 그 원형인 ‘도코노마(床の間)’ 등도 선적 미학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구조다.

이처럼 초암다실은 선(禪)을 지향하는데, 선이 지향하는 목표는 ‘무(無)’를 자각하기 위함이다. 만사를 내려놓고 집착을 끊을 때, 마음의 아만(我慢)과 아집(我執)을 버리고, 무아(無我)의 경지에 다다를 때 깨닫게 되는 것이다.

신중일 기자

아는 만큼 보이는 사찰 펜화 기행



펜화로 읽는 사찰 1,2
글 · 그림 김유식 / 불교시대사 / 각 2만원

전국 유명한 관광지라 하면 사찰을 빼놓을 수가 없다. 〈펜화로 읽는 사찰〉에는 우리 고유의 전통을 이어주는 사찰 문화에서 내려오는 의식과 전해오는 이야기가 담겼다. 저자 김유식 펜화가는 직접 스님들과의 대화를 글로 옮기고 눈에 들어오는 사찰 풍광을 그림으로 그렸다. 1권에는 이름 난 말사 23편에 삼보(불법승)사찰을 더해 26편이 소개됐다. 2권은 23교구 본사로는 아쉬워 말사와 암자 4편을 보태 27편을 소개했다. 책에 실린 작품 수만도 1권에 70점, 2권에 65점 등 총 135점에 이른다.

사찰문화는 우리의 전통을 간직하고 있는 살아 숨 쉬는 역사의 현장이다. 〈펜화로 읽는 사찰〉의 책장 한 장 한 장을 넘기다보면 각 사찰에 숨겨진 옛 이야기에 깃들어 있는 재미있는 전설들을 찾아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전등사 처마 네 귀퉁이에 있는 여인을 왜 조각해 놓았는지’ ‘부석사에 부석은 왜 생겼는지’ 등 각각 절들의 궁금증을 풀어 줄 이야기들이 가득 들어 있다.

누군가 여행은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지 않았는가. 여행은 알고 다니면 아는 것이 보이고 느끼는 재미가 있어야 더욱 즐거운 여행을 할 수 있다. 어디를 여행하더라도 알고 가는 것과 모르고 가서 보는 여행은 질적으로 다르다. 모르고 보면 수박 겉핥기에 지나지 않아 후일에는 기억에 남는 것이 별로 없다. 그렇기에 김유식 펜화가는 소개하는 사찰마다 상세하게 설명을 덧붙였고 이를 그림으로 표현, 보는 즐거움을 배가시켰다. 사찰마다 간직하고 있는 숨은 이야기들을 찾아보는 재미를 한껏 느끼게 한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저자 **김유식 펜화가**는?

인하대 재학시절 유화 작품으로 두 번의 개인전을 하였으나 88년 졸업 이후 아시아나항공에 근무하면서 직장인 화가로 일과 작품 활동을 겸업했다. 세 번째 개인전 후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작가활동에 나서 개인전 8회 및 단체전 50여 회에 참여했다. 현재 한국펜화가협회, 색연필화협회, 한얼우리그림협회, 화우회, 국민예술협회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차(茶)에 먹히지 않는 안내서, 차(茶)와 선(禪)은 하나다!

화제의 신간

초암다실의 미학
-차(茶)와 선(禪)의 만남-



“세상에 차를 마시는 사람은 많지만,
도(道)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차에 먹힌다.”
여기서 도(道)는 불교의 선(禪)을 의미하는데
이 책은 차(茶)에 먹히지 않도록 차와 도의 접점을 초암다실의
미학적 구조를 통해 이미지로 보고 체험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본문에서-

저자 후루타 쇼킨, 역자 이현옥 | 256쪽 | 22,000원

저자 후루타 쇼킨(古田紹欽, 1911.5.22.~2001.1.31.) 일본의 불교학자이며 문학박사. 도쿄제국대학 문학부 인도철학과 졸업. 홋카이도대학, 일본대학, 하나조노대학 객원교수 등을 역임. 일본의 불교학자로 불교와 선을 사상적 측면에서 폭넓게연구. 대학시절에 인도철학이나 불교 관계에 대해 너무 난해한 강의를 들은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현대인도 알기 쉬운 언어로 불교를 해설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역자 이현옥(李鉉沃) 현재 대구가톨릭대학교 강의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불어교육학과, 연세대학교 대학원 불어불문학과 졸업, 석사. 일본 토호쿠대학 대학원 연구생, 고려대학교 대학원 일어교육학과 석사. 동덕여자대학교 일어일문학과 대학원 문학박사.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차문화콘텐츠학과 석사.

나의 일상이 곧 수행이다!

선불교
생활 · 철학 · 문화로 본 선불교의 모든 것



禪

선불교가 활발했던 당송唐宋 시대
선종 사원의 생활과 철학,
그리고 선 문화 등을 통해
선불교와 선수행자의 삶을 들여다본다.

글 윤창화 | 562쪽 | 23,000원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

지상백고좌

금정총림 방장 여산 정여 대종사

“모든 것은 허상… 집착 내려놓으면 如如하다”



정여 스님은… 벽파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75년 7월 15일 부산 범어사에서 지유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수지하고, 1976년 3월15일 부산 범어사에서 고암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김천 수도암, 현풍 도성암, 하동 쌍계사 금당, 문경 봉암사, 백담사 무문관, 범어사 금어선원 등에서 안거했다. 범어사 주지, 부산불교연합회장 및 이사장을 지냈다. 대한불교교사대 학장, 사단법인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장, 사회복지법인 보현도량 이사장, 사회복지법인 범어 이사장, 부산불교복지협의회 이사장을 지냈다. 재단법인 보현장학회 이사장, 사단법인 세상을향기롭게 대표를 맡고 있다. 1991년 조계종 총무원장 공로 표창패, 2000년에는 종정 표창패를 받았다. 2001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에 이어 2005년 다촌문화상 공로상과 포교대상 공로상을 수상했다. 저서로는 스님이 직접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쓴 〈나를 찾아가는 명상여행〉과 〈머무는 그 자리에서 행복을〉 등이 있다.

금정산(金井山)은 금빛 물고기가 내려와 산 정상의 샘(井)에서 놀았다고 해서 붙여졌다. 그리고 그곳에 건립된 사찰이 범어사(梵魚寺)다. 해동의 화엄십찰 중 하나로 창간된 범어사는 수많은 고승대덕들을 배출한 명실상부한 한국의 명찰이며, 지금도 부산과 경남 일원의 수행·전법 도량이자 총림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금정총림을 새로 이끄는 선지식이 여산 정여 대종사다. 새해를 앞두고 정여 대종사를 찾아 뵙고 가르침을 받았다. 산중도 한파 속에 있기는 마찬가지였지만 선지식의 푸른 안목 때문인지, 무애한 그림자 때문인지, 출세간의 하루는 그저 여여했다. 산문의 안과 밖은 그랬다.

금정총림, 변화된 안거

금정총림 범어사는 지난해 10월 26일 산중총회를 통해 원로의원 정여 스님을 방장 후보에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그리고 11월 1일 조계종 중앙종회의 인준이 있었다.

정여 스님은 방장으로 추대된 후 총림을 소통과 화합으로 이끌고 있다. 정여 스님이 방장으로 추대된 후 금정총림은 처음 맞는 동안거에서 여러 가지 변화를 보였다. 새벽 정진 시간을 3시에서 4시로 옮겼고, 삭발·목욕일을 한 달에 세 번에서 네 번으로 늘렸다. 그리고 1시간 정진 후의 10분 포행을 20분으로 늘렸다.

“정진 후 포행은 휴식과 각자의 용무를 보기 위한 시간인데 10분이라는 시간은 충분하지 않아 보였습니다. 포행은 맑고 고요한 마음으로 자신을 들여다보는 또 다른 수행의 시간이기도 한데 10분이라는 시간은 마음을 고요하게 가라앉히기에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좌선으로 경직됐던 몸을 충분히 풀어줄 수 있어야 다시 좌복 위에 앉을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늘렸습니다.”

변화에 대한 안거 대중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그런 긍정의 변화는 스님이 오랫동안 출세간과 세간에서 수행과 전법을 통해 쌓은 공부와 그로 인한 내공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다. 지나온 시절을 ‘지나간 시절’로 끝내지 않고, 오늘의 시절에 맞게 가져다 쓰고 있는 것이다.

상구보리(上求菩提)

정여 스님이 산문에 든 지 50여 년, 그 시간은 이제 ‘길’이라는 말로 바꿔 불러야 할 것 같다. 출가 수행자로서 정여 스님의 ‘길’은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지극한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스님의 ‘50년’을 정리하면 수행과 불사, 포교와 복지라는 말로 대신할 수 있는데, 그것은 산문과 산문 밖을 오가야 하는 지극한 불사였다.

월남전 참전했던 정여 스님은 제대 후 옛 전우의 권유로 출가했다. 범어사에서 벽파 스님을 은사로 불가의 이름을 받았다. 그리고 1975년 7월 15일 부산 범어사에서 지유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받았고, 1976년 3월 15일 부산 범어사에서 고암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받았다.

지난해 11월 금정총림 방장 추대
소통과 화합으로 후학들 이끌어
대중들에 맞게 안거 문화도 변화

‘상구보리 하화중생’ 실천한 50년
출가 후 수도암 등서 치열한 정진
은사 부름에 8년 간 하심으로 불사
부산서 전법…‘포교 · 복지’ 이끌어

정여 스님이 들려준 남해 보리암 복골에서 정진한 일화는 상구보리를 위한 정진력을 알 수 있게 한다. 스님에 따르면 금산 자락에 큰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 옆을 막아 만든 토굴에서 결사를 했다. 끼니는 미숫가루, 화두는 조주 스님의 ‘무(無)’자였다. 스님은 손가락에서 피를 내어 ‘無’자를 여러 장 썼다. 그리고 그 ‘無’자를 천장과 벽에 붙여놓고 백일정진을 했다.

1978년 범어사 승가대학을 졸업한 스님은 바랑 하나와 길을 나섰다. 수도암과 도성암에서 화두를 들었다. 수도암에서는 해인사 종정을 지낸 법전 스님을 모시고 1년 반 가량을 수행 정진했다.

그리고 스님은 1984년 여름에 범어사 금강암으로 돌아갔다. 은사스님의 부르심이었다. 불사가 있었다. 출가 수행자에게 ‘불사’란 그 이름이 무엇이든 한 가지이다. 도량을 일구는 것 역시 무거운 불사다. 스님에게 불사라는 이름 안에는 경중과 원근이 없었다. 스님은 금강암 불사만에 온 마음을 냈다. 그것 역시 ‘정진’이라고 생각했다. 한 가지만 생각하는 것, 그것은 수행이었다. 불사는 8년이라는 시간을 지나 회향했다.

불사를 마친 스님은 다음날 곧바로 선원으로 향했다. 하동 쌍계사 금당선원. 스님은 입승 소임을 맡아 3년간 정진했다. 그리고 스님은 부산으로 돌아왔다. ‘무’자 끝에는 ‘회향’이라는 또 다른 화두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동안의 공부가 스님을 산문 밖으로 불러냈다.

스님은 은사스님께 자신의 전법과 포교에 대한 원력을 고했다. 몸과 마음이 고단해서 절을 찾는 대중의 모습이 스님의 마음 한 가운데에 있었다. 스님은 생각했다. 그들은 고단한 이들이다. 고단한 이들을 어찌 기다리기만 할 것인가. 하화중생, 그것은 결코 기다려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다가가야 하는 일이었다. 스님에게 ‘공부’는 반드시 회향을 해야 하는 것이었다. 스님은 수행자의 공부에는 많은 인연의 공덕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행자는 한철의 공부라도 그 끝에서 원력이 인다면 부처님 말씀에서 멀리 있는 대중을 위해 길을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화중생(下化衆生)

정여 스님은 1995년 부산 영정시장 한복판에 여여선원을 열고 대중과 함께한다. ‘도량’은 부처님을 모시고 대중을 맞는 곳이다. 대중이 도량에 머물 수 있는 것만으로도 하화중생은 시작되는 것이다. 스님의 진심어린 전법은 포교로 이어졌다. 석 달 만에 1400여 개의 인등이 법당을 밝혔다.

스님은 먼저 교리강좌를 열었다. 주간반, 야간반, 금강경반, 육조단경반 등을 통틀어 1500여 명이 등록을 마쳤다. 불도 부산에서도 흔한 일은 아니었다.

스님은 ‘계층포교’에 누구보다도 먼저 눈을 뜬 수행자였다. 철저히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어린이법회를 열었다.

13면에 계속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 큰스님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

인생은 고통이 아닙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다고 하나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고통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즉, 불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불성을 이름하여 한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보배입니다.

이렇듯 내 집 창고에 보배가 가득한 줄도 알고
보배 창고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열쇠가 어디 있는 줄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마음공부는 열쇠를 얻기 위한 공부입니다.
누구든지 열쇠도 갖고 있고 곳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열쇠를 갖고도 열지를 못한단 말입니까?
마음이 곧 그 열쇠입니다.

- 본문 중에서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지상백고좌

금정총림 방장 여산 정여 대종사

“하루 20분 명상하세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12면에 이어

세수 70에 봉암사 등서 수행 정진
“장국죽비 맞았지만, 신심이 났다”
“그대여, 삶의 변화 이끌고 싶은가
그렇다면 경전 독송 · 명상을 하라”



‘세상을 향기롭게’가 2019년 진행한 몽골 사회복지시설 지원사업에서 몽골 어린이들과 함께하고 있는 정여 스님.



지난해 11월 열린 보현장학회 장학금 수여식에서 정여 스님이 학생들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하고 있다.

법당은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었다. 그것이 포교였다. 즐거운 곳. 그곳이 도량이고, 그 도량에서 할 수 있는 불사가 전법이고 포교였다. 하나에서 시작된 법회는 수백 명의 아이들이 참석하는 법회가 됐다.

스님은 1988년 대한불교교사대학을 설립했다. 어린이포교를 키우려면 전문성을 갖춘 지도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스님은 대한불교교사대학을 통해 아이들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전문 지도교사를 양성했다. 그리고 2001년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장, 2012년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 6대회장 소임으로 그 원력을 이어갔다. 청소년 명상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140여 명의 파라미타 명상지도자 배출로 이어졌다.

스님은 불교 복지에서도 그 원력을 이어갔다. 1997년 개금사회복지관장 소임을 시작으로 복지를 통한 포교불사를 시작한다. 1999년 금정구 서동에 무료급식소를 열었고 직접 배식봉사를 하며 16년을 이어갔다. ‘세상을 향기롭게’를 창립해 국제구호도 진행했다.

다시, 보리(菩提)

대중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며 20여 년 포교의 길을 걸었던 스님은 다시 수행의 길을 시작한다. 다시 상구보리. 세수 70세. 스님은 다시 선방을 찾았다. 스님은 문경 봉암사 태고선원에 방부를 들였다. 20여 년 만이었다.

“쌍계사 금당선원에서 3년 결사를 하고 시중에 나와서 20년을 포교하고, 나이 일흔에 다시 선방 좌복에 앉을 생각을 한 것도 참 다행한 일이고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봉암사 태고선원 서당은 나이도 젊고 힘이 있는 사람들이 주로 정진을 하는 곳이었다. 스님은 왠지 그런 봉암사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었다고 한다.

“그곳에서 꼭 하고 싶었어요. 봉암사 선원은 하루 10시간씩 정진을 하는데, 졸다가 경책하는 스님으로부터 가차 없이 장군죽비를 맞기도 했어요. 10시에 방선 죽비를 치면 좌복 위에 그대로 누워서 자는데, 밤 열두 시에 눈을 떠보면 다른 스님들이 정진하고 있어 덩달아 신심 나게 수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스님은 그 후 해남 대흥사, 보경사, 오대산 상왕사에서 2년, 북대에서 1년 반, 통도사 서운암에서 1년 반, 다시 범어사에서 정진했다. 이렇게 제방 선원에서 수행했지만, 수행의 갈증은 사라지지 않았다.

스님은 수행 중의 수행이라고 할 수 있는 백담사 무문관을 찾았다. 그 이름만으로도 마음이 서늘해지고 무거워지는, 무문관. 한 번 문이 닫히면 해제 때까지 나올 수 없고, 한 번 문 밖을 나오면 다시 돌아갈 수 없다. 최소한의 공간, 하루 한 끼, 그리고 묵언.

“자신을 돌아보는 공부가 되었고, 이것이 바로 자신의 인생길을 가는 정도(正道)라고 깨달았어요. 우리 모두는 자기 길을 홀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홀로 가는 길이 더욱 밝아지고 또렷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출가수행을 하면 처음에는 뭔가 깨달음도 얻고, 얻을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수행을 시작하지만, 점차 수행의 시간이 쌓이면 얻을 것이 없음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수행임을 깨닫게 됩니다.”

대종사의 법

“〈금강경〉은 진리의 실상을 모르고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중생에게 지혜를 일깨워 참다운 자신의 실상을 깨닫게 해주는 경전입니다. 또 〈금강경〉은 밝고 투명한 길을 제시해 줍니다. 또 아픔과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을 밝혀내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혜를 제시해 주는 경전입니다. 부지런히 독송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정여 스님 수행의 한 축은 〈금강경〉이다. 〈금강경〉 공부를 통해 불자들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스님은 일상에서 사구게(四句偈)만이라도 독송하고 외우기를 권했다.

범소유상(凡所有相) 개시허망(皆是虛妄)
약견제상(若見諸相) 비상(非相) 즉견여래(卽見如來)

“첫 번째 게송인데, 이 한 게송의 의미를 진실로 깨닫는다면 삶이 가벼워질 겁니다. ‘무릇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가 다 허망하다. 만약 모든 형상을 형상이 아닌 것으로 보면 곧 여래를 보리라’는 의미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정신적이나 물질적이나 다 허망한 것이고 실체가 없습니다. 상(相)을 초월한 자리에서 곧 여래를 만날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이어 스님은 부처님의 제자인 박칼리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박칼리나가 아픈 몸으로 부처님께 예배한 뒤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말했어요. 그때 부처님께서 ‘나를 보려거든 육신인 나를 보지 말고 진리를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화를 통해 ‘법을 보는 자가 곧 여래를 보리라’는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제10 장엄정토분(莊嚴淨土分)에 나오는 제2 게송 중 ‘응무소주 이생기심(應無所住 而生其心, 집착하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어야 한다)’이라는 구절의 깊은 뜻이 궁금하여 여쭈었다.

“부처님께서는 ‘청정한 마음을 내되, 형상에 머물러 마음을 내지 말아야 한다. 색성향미촉법(色聲香味觸法)에 머물러 마음을 내지 말아야 한다. 응당 집착하는 바 없이 마음을 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처럼 무서운 병이 없습니다. 물질, 욕망, 명예에 마음이 머물면 그것으로 인해 괴로움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형상에 마음이 머물고 마음을 빼앗기며 살았기 때문에 형상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형상과 물질은 다 그림자이고 허무한 것임을 일러주셨습니다. 집착하는 마음을 벗어버리고 여여(如如)한 마음에 머물러야 한다는 뜻입니다.”

〈금강경〉에 대해 조금의 의심이 없고 믿는 마음이 청정하다면 그 자리가 곧 부처님 마음이며, 이런 마음엔 앉고, 서고, 가고, 옴이 여여해서 걸림이 없다는 것이다. 또 깨달음이란 곧 부처님의 마음을 뜻하며, 집착과 소유욕이 없어 맑고 청정하며 걸림이 없는 진여의 마음이기에 자신을 떠나서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스님은 〈금강경〉 공부와 함께 꾸준히 명상을 하면 인상이 바뀌고 삶에 변화를 가져온다고도 했다.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20분 정도는 시간을 내서 명상을 해야 발전이 있어요. 명상하는 도중에 잡념이 일어난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명상이 일어나는 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고, 오직 호흡과 일념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호흡에 몰두하다 보면 자연히 잡념은 사라지고 마음은 점점 고요하게 되어요. 마음이 맑아지면 심기가 평안해지며, 그동안 바깥세계로 치달리던 잡다한 생각들이 쉬면서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호흡과 생각이 안정되고 느낌이 편안해지면 고통과 괴로움은 사라져요. 그러면 표정이 바뀌고, 인상이 달라지고 인생도 달라집니다.”

4차 혁명시대, 밝은 부분도 있지만 어두운 부분도 많은 이 시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시대에 ‘불교’는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의미가 있다면 불교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AI에게 밀려나서 사람이 할 일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물질을 앞세워 살다보니 인간성이 상실되는 삭막한 세상입니다. 본래 마음은 깨끗하고 맑고 시비도 없고 분별도 없는데 이런 마음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욕망과 욕심은 불안의 원인이 되고, 괴로움의 원인이 됩니다. 괴로움의 원인은 어리석은 마음 바탕 위에서 일어난 생각의 그림자에 있습니다. 괴로움을 일으키지 않으려면 물질, 명예, 욕망은 진실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 바탕 위에 그려진 생각의 그림자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상구보리 하화중생, 글로 적고 입으로 내기는 쉬운 법이지만 이루기는 쉽지 않은 법이다. 출세간과 세간을 경계 없이 오가며 부처님 제자로 살아온 스님의 법향은 감출 수 없는 꽃향기처럼 대중 속에 흐르고 있다. 한파주의보로 소란스러웠던 하루. 산중은 선지식의 법향으로 여여, 또 여여했다.

문윤정 / 작가

오직! 마이크소리 구경조건

만으로 전화를 주시면 광고주는 전화 신청들을 모아서 반드시 귀 사찰의

부근을 지날때에만 잠깐 들름니다. 이때! 스님 자신이 기존 법당마이크와 광고마이크를 양손에 쥐고 성능 테스트시 귀 법당 마이크가 장난감 수준정도의 성능 밖에 안되는 것을 100% 실감하신 후 이제는 사찰의 수백만원의 염불시설 투자없이 마이크 하나만 바꿈에도 사찰의 소리가 크게 업그레이드됨의 확신이 올때 광고주와 상담하세요.

주의 : 광고주는 마이크 테스트가 끝나면 신속히 사라집니다.

본품은 주문 및 방문판매만 함으로 시중에 없고 있을시는 일천만원 포상! (지금 이글은 법적증서)

본사는 20여 년간 설악 신흥사와 남해의 토굴까지 2천여 사찰을 시설한 베테랑업체!

▣ USB겸용 앰프1, 스피커 4개, 헤드셋 핀 핸드무선마이크, 무선마이크 종류별 4개, 유선마이크 1개
(스탠드 포함) 시설가격 : 귀 법당 기존 시설비의 1/2 (설악 신흥사 설법전 1400만원 시설 확인해 보세요)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백팔** 명품Sound 명품사운드 대표 박 공 희 ☎ 055-343-1191, 010-9471-2026

충전식 / 출력 300kw / 헤드셋 무선 2개
유선 2개 마이크 4개 동시사용, USB 동시녹음
실내 100평 가능 / 야외사용 겸용 (스탠드 포함)



가격 ₩ 69만원

넥타이핀마이크 2개, 헤드셋마이크 2개, 마이크 숫자 4개
▣ 한국사찰 각종 재 필수품 주문 방문설치, 사용설명

시중에 없음



마이크 마이크

시중에 없음



특징 : 마이크와 2m거리에서 작은 소리에도 청아하고 신명나는 소리로 화답!



불국토 경주 남산에 오르다

❷ 경주 남산, 왜 불국정토 됐을까(1)

▶한줄 요약
경주 남산은 천년왕국 신라의 시작점이었다. 또한 정치적 현안을 논의하는 신정정치의 중심지이기도 했다. 경주 남산의 신령스러움은 이후 불교가 전래되면서 불교로 흡수된다.



경주 남산, '천년왕국 신라' 시작점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가 2010년 발간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경주 남산 64개의 계곡 중 60개에서 296곳의 사찰 터와 불상 등 불교 유물이 377점 발견됐다. 또한 경주남산연구소에서 발간한 남산 안내서의 책자에는 150곳의 사찰 터와 100여 기의 불탑, 130구의 불상 그리고 22기의 석등과 연화대 19점 등 700여 점의 유물과 유산이 있다고 했다. 이 외의 경주 남산 사찰 터와 불상 등 발견된 개수를 정리한 연구서를 발견하지 못했다. 자칭 경주 남산에 푹 빠진 연구자이며 또한 남산 불교 매니아(출가자) 입장에서 공식적으로 공인되고 일관된 연구 자료가 없다는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어찌 되었건 남북으로 8㎞ 뻗어있고 동서로는 4㎞이며 가장 높은 봉우리가 494m인 이 작은 산에 이처럼 많은 사찰 터와 불상이 곳곳의 바위에 조성되었다는 것은 경외감과 함께 "신라 사람들은 왜 남산의 바위마다 부처님을 모셔 불국정토로 조성했을까"라는 궁금증을 자아낸다.



신궁으로 추정되는 나정의 팔각건물터. 경주 남산은 신라 탄생과 더불어 정치적 중심지였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인류 문명의 기원에 관한 인문학적 연구내용이 필요하다.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는 인류는 신을 창조하여 문명을 꽃피운다고 말했다. 또한 요즘 인기 있는 뇌과학 연구 중 박문호의 〈뇌 생각의 출현〉이나 데이비드 이글먼의 〈우리는 작자의 세계가 된다〉에서 보면 '뇌는 생각을 출현시켰으며 이 생각이 세계를 만들었다'고 한다. 이것은 불교도의 입장에서 '나'라는 존재를 해체한 '오온'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종합하면 변화하는 존재인 '나'는 '신'을 창조하며 문명을 이루었다는 것이다.

신에 관한 생각은 인간보다 힘이 강한 동물에서 하늘이라는 절대적 존재로 나아갔다. 이것은 모든 인류의 보편적인 신에 관한 생각의 발전이다. 한국의 역사도 이와 같다. 단군신화를 보면 하늘을 섬기는 집단인 환인·환웅·단군이 호랑이나 곰을 믿는 집단을 지배하는 모습을 보인다. 인도와 서양 그리고 동북아 신앙의 인문학적인 내용 또한 마찬가지다.

인도의 신화는 '인도 아리안' 민족의 역사일 수 있다. 신을 믿는 민족들이 아리안의 민족에게 지배되는 과정에서 신화가 만들어진다. 신화는 그저 창작된 것이 아니라 집단의 이동 중 타 집단과의 만남에서 타협하고, 다투고, 지배하고, 지배당하는 내용의 역사이다. 인도는 인도 아리안으로 대표되는 집단이 지배 집단이 되었다. 그렇기에 아리안이 믿는 신은 최상의 좋은 신인 지배적 신이 된다. 반면에 아리안 집단에게 안 좋은 인상을 주었던 집단의 신은 안 좋은 신이 된다.

그리스 신화와 인도 힌두교의 신화가 비슷한 것은 서쪽으로 이동한 아리안 집단이 그리스의 뿌리가 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그리스 또한 하늘의 절대적 신을 숭상한다. 그런데 이와는 별개로 서양에선 새로운 종교가 탄생한다. 유대교에서 시작된 기독교와 이슬람이 그것이다. 그리스로 대표되는 신화 속 신들과 인도의 신은 지배 집단의 신과 지배당하는 신이 통합되면서 종교 문화를 발전시킨다. 또한 많은 종교의 신이 종합되면서 다양성이 인정되고 융성하면서 인류 문명은 꽃을 피운다. 인도 그리고 그리스와 로마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들은 종교의 믿음과 신앙의 다양성을 인정하였다. 이것은 바로 지배 집단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통합의 정신에서 시작된다. 그런데 유대교를 뿌리로 둔 기독교와 이슬람은 좀 다르다.

유대인은 언제나 지배당하던 집단이었다. 그렇기에 자신들의 신 또한 다른 집단의 신을 지배했던 적이 없다. 유대인의 신화에서 유일신을 강조한 이유가 여기 있으며 믿음을 강조한 이유 또한 여기에 있다. 즉 타민족의 신에게 지배당하는 것은 유대인의 신인 '유일신 창조주'와 '여호와'가 믿음을 시험하는 것일 뿐이다. 이것을 통해 타 집단에 지배당하더라도 그 집단의 신이 자신들이 믿는 신을 지배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 이러한 유대교 유일신의 교리는 집단을 유지하는 것에는 큰 힘이 된다. 이러한 유대교에서 기독교와 이슬람이 나온 것이다. 기독교는 지배 집단이었던 로마에서 '예수'를 탄생시켰으며 로마가 단일 종교로 인정하면서 서양을 대표한 종교가 된다. 또한 아랍 민족이 주축이 되어 유대교를 뿌리로 한 이슬람은 탄생한다. 이슬람 종교를 통한 통합의 정신은 지금의 이슬람 문화권을 만들어 가는 힘이 되었다.

6개 부족 연합체였던 초기 신라
혁거세 부족이 경주 남산 근접해
남산 탑동 '나정' 신라 신궁 확인
경주 남산, 신라시대 정치 중심지
그 신령스러움은 불교에게 흡수돼

중국으로 대표되는 동북아의 종교 또한 큰 틀에서 하늘이라는 유일한 정신에서 모든 통합이 이루어진다. 단순하게 말한다면 하늘이 내리는 명령인 '천명'이 곧 도덕이기에 사람들은 이것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동북아의 사상이나 철학 또한 하늘이라는 '유일신' 신앙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하늘을 숭상하고 신성하게 여긴 것은 우리 한민족 또한 마찬가지이다. 하늘의 숭상은 산의 숭상으로 이어진다. 산의 숭상은 다시 신비스러운 바위의 숭상과 연결된다. 하늘은 사람이 다가설 수 없다. 그렇기에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인 높은 산은 하늘과 통하는 통로가 된다. 그리스와 로마의 신전이 산 정상에 있는 것처럼 한민족이 산을 숭상한 이유도 여기 있다. 그렇기에 신라인이 산을 숭상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모습이다.

경주 남산은 신라의 탄생과 관련된 내용을 품고 있다. 경주 남산의 중요성은 여기서 시작된다.

신라는 여섯 개의 부족이 건국과 함께 나라를 이끌었는데 이 중 알천 양산촌(閼川 楊山村)과 돌산 고허촌(突山 高墟村)이 남산을 접하고 있었다. 알천 양산촌은 남산을 중심으로 서북쪽에 있는 부족인데 신라 최초의 왕인 박혁거세의 탄생지가 이곳에 있다.

신라 왕성인 반월성 밑 경주 남산 탑동에는 나정(蘿井)이 있다. 바로 이곳이 박혁거세가 탄생한 곳으로 전하는 장소이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는 신라 6부의 사람들이 남쪽을 바라보다 찾게 된 양산(楊山)의 나정에서 알을 발견했는데 여기서 박혁거세가 탄생했다고 전한다. 알에서 탄생했다는 것은 하늘 즉 높은 곳을 상징한다. 새는 하늘과 소통하는 존재로 인식된다. 그렇기에 알에서 탄생한다는 것은 하늘과 연관된 높은 존재라는 의미를 갖는다. 〈삼국유사〉 '기이제1-신라시조혁거세왕'에는 다음이 이야기가 전한다.

양산의 기슭을 바라보니, 나정 옆 숲속에서 말이 무릎을 꿇고 울부짖고 있었다. 그래서 가서 살펴보니 홀연히 말은 보이지 않고, 단지 큰 알이 있었다. 알을 깨뜨리니 어린아이가 나왔다. 이에 거두어서 길렀는데, 나이 십여 세가 되자 쑥쑥 커서 남들보다 일찍 성인의 모습을 갖추었다. 6부의 사람들이 그 탄생이 신비롭고 기이하다고 하여 떠받들었는데, 이때 이르러 임금으로 세운 것이다. 남산 서쪽에 있는 산기슭(지금 창림사)에 궁실을 짓고.

또한 남산의 서쪽에 궁궐을 지었다고 하는데 지금의 창림사 터로 판단된다. 〈삼국사기〉 '신라본기-남해 차차웅'에는 박혁거세의 큰아들인 차차웅이 왕위를 잇고 서기 6년인 남해 차차웅 3년에 나정 자리에 시조를 기리는 사당을 세웠다고 한다, 또한 〈삼국사기〉 '신라본기-소지 마립간'에서는 487년에 '소지마립간이 시조가 탄생한 곳에 신궁을 설치한다'라고 했다. 2000년대 나정의 발굴조사에서 팔각의 건물터가 발견되면서 나정에 신궁이 있었다는 것이 확인됐다. 경주 남산은 신라의 첫 시작이 이뤄진 중요한 산이었다.

신라는 중요한 결정 사항이 있을 때는 6개 부족의 장이 모여 전원 합의에 의해 결정하는 화백회의를 두었다. 이 화백회의가 경주 남산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삼국유사〉 '기이제1-진덕왕'에 보면 진덕왕(재위 647~654) 시기 경주 남산에 있던 오지암(吾知巖)에서 화백회의를 열었다.

왕의 시대에 알천공·임종공·술종공·호림공·염장공·유신공이 있었는데, 그들은 남산 오지암(오지암)에 모여서 나랏일을 의논했다.

오지암은 산에 있는 작은 암자를 의미한다. 또한 산이 곧 부처님 세상이기에 전각이 없는 암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남산에는 전각의 바닥을 두르는 전돌이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의 사찰에서 보이는 전각의 마루는 조선 중기 이후에 유행한 것이다. 고려 이전의 전각에는 마루가 아닌 전돌로 바닥을 마무리했다. 766년 조성된 것으로 확인되는 '산청 석남암사지(石南巖寺址)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이 있던 석남암도 '암(巖)'이라 표현하고 있다. 이곳 역시 석조 비로자나불좌상을 조성하고 전각은 없었던 암자로 보인다. 암(巖)의 의미는 더 연구해 볼 가치가 있어 보인다. 어찌 되었건 경주 남산에는 불상만 조성하고 전각은 조성하지 않았던 특이한 모습을 보인다.

경주 남산은 신라의 탄생과 더불어 정치적 중심지 역할을 하였다. 지금의 남산에 오르면 경주의 반월성과 중심지가 한눈에 내려다보인다. 지금까지 신라에 불교가 들어오기 이전부터 경주 남산은 신라의 탄생과 함께한 중요한 산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후 불교가 들어오면서 경주 남산의 신령스러움은 불교가 흡수한다. 이러한 모습들은 경주에 있는 신라 최고의 산신이 머문 선도산과 김유신의 일화가 있는 단석산에서도 확인된다.

〈경기 광주 빛고운절 회주〉

"신은 듯, 안 신은 듯 맨발같은 신발" 어싱 접지 슈즈 2024 신상출시

지구와 연결되는
EARTHing(접지) 효과
발볼 넓은 신발, **맨발** 같은 신발
KSNS 적용 신발

어싱 슈즈는
발 볼이 좁거나 보통 넓이인 분들이
세련되고 날렵한 신발을
신고 싶을 때를 위하여
제작된 신발로 둘레길, 황토길,
캠핑용, 런닝용 신발로도 좋습니다.



베이지

어싱슈즈
특판가 (무료배송)
65,000원
※ 사은품 : 어싱 양말



베이지 블랙

어싱 트레킹화
특판가 65,000원 (무료배송)
※ 사은품 : 어싱 양말
※ 소재 : 도전특수고무 밑창 + 네오프렌(잠수복 재질)



NAVER 마하몰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접 수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04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467호 | 15 | 전면광고

너희 비구여, 만일 지혜가 있으면 곧 탐착이 없어지는 것이니, 항상 스스로 자세히 살피어 그것을 잃지 말도록 하라.



부처님 말씀 읽기 - 《불유교경》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서울 • 대지 : 200평
- 건물 : 법당 60평, 외전각 3채
- 주변 : 시내산 및 주차가
- 매가 : 35억
- 경기분당포교원
- 8층 건물에 8층 • 128평에 전용80평
- 역세권, ev. 주차가, 옥상사용
- 매가 : 15억

※40년세월,신용과,믿음으로일합니다. 출장상담받습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상담(창건주승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사찰, 땅, 포교당, 대형 천년사찰터 다량 보유
부전 등 절집소임 소개합니다. 신행상담,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010-4586-4525

사찰(급)안내

- 위 치 : 충남 부여군 은산면
- 임 야 : 2,000평
- 기도방 3개, 산신각, 용궁, 선황, 요사채
- 매매가 : 2억 7천 (가격절충)

좋은 인연 기다리겠습니다.

010-4799-9448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마산
- 대지 : 6백평, 임야 : 3천 6백평
- 건물 : 대웅전 55평, 공양실 35평, 종무소 10평, 요사 30평
- 천연 지하 석수 1일 200톤 이상
- 가액 : 9억

010-6764-0034

사찰(급)안내



- 경북 청송군 현동면
- 대지 143평 (현재 운영중)
- 가액 : 9500만원 (조정 가능)
- 공기 맑고 아늑하고 영험있고 기도하기 좋은 절입니다. 좋은 인연 기다립니다.

010-4180-178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상남도 밀양시 삼량진읍 삼량리 155(자비정사)
- 대지 : 약 1,200평
- 법당 30평, 삼신각 3평, 요사채 30평(방3개, 화장실2개)
- 난방, 심야전기, 지하수
- 가액 : 7억 5천

010-8545-024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진주
- 대지 : 약 50평
- 건물 : 3동 법당 8평 주지실 6평 용왕당, 3평 공양, 방3개, CCTV 4개
- 가액 : 6천
- 부동산 전화 사절
- 비구니 스님환영

010-7506-8604

사 찰 안 내

- 위 치 : 부산 동구
- 다가구주택 6가구 포함. 3층 건물
- 법 당 : 부처님 삼존불
- 매매가 : 3억8천만원

몸만 오셔도 됩니다.

051-634-336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금장리 127-1번지
- 총평수 470평(대지 340평, 평밭 130평)
- 대웅전 20평, 요사채 50평, 산신각 5평
- 칠포해수욕장 차로 7분 거리, 시내 10분, 죽도시장 30분
- 가액 : 3억 6천(대출 2억 천육백만원)

010-3741-3567

암 자 안 내

- 위치 : 익산시 삼기면 석기길 익산시내에서 10분거리
- 토지 : 160평
- 건물 : 법당30평외 2동
- 동불보살님 3분과 탱화 및 살림 포함
- 빈 몸으로 오셔도 바로 법회 가능합니다.
- 가격 : 1억1천만원 (다른곳 소임문제로 급매매)

010-3676-4788

사 찰 안 내

- 위치 : 마산회원구 회원동
- 임대 : 보증금 500만원
  월세 50만원
  시설비 800만원
- 도심 번화가에 포교지로 적합

010-4438-886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 (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0억원(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813-2381

토 굴 안 내

- 주소 : 경주시 건천읍
- 면적 : 대지 110평, 전 316평
- 건평 : 임법당 16평 1동
  (법당 1칸, 스님침실 1칸,(화장실포함), 공양실 1칸)
- 절충 가능

010-9031-3570

명상원 최적지 안내

- 위 치 : 강원도 영월 연하리 연하계곡
- 부 지 : 9,600평, 650고지, 차량진입 가능
- 집 1채 (2층 사용), 집 창고 1채
- 십승지, 사찰 및 사찰 요양원 최적지
- 일반 건강 요양원 최적지, 교육원 시설 최적지
- 글램핑캠핑가능, 최상의 자연환경
- 가 액 : 10억 (약간의 조정 가능)

010-6701-7709

현대불교신문 후원 나눔 캠페인

법보시 후원은 최상의 공덕입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세요.

02-2004-8212



현대불교신문 구독안내

전화 한번에 끝!

자동이체로 전환하세요

(02)2004-8212

신문을 구독하시면 생활안내 · 불자정보
(사찰, 포교당 양도및 기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kakao Ch 카카오톡 채널에 **현대불교신문** 검색

NAVER 현대불교신문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자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정법 포교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단 광주전남지역단

단 장 일면불 장경덕

포교사 일동

광주시 남구 천변좌로 450번길1, 1층(양림동)

이젠 인터넷 뉴스사이트

현불뉴스 hyunbulnews.com에서도

불자정보·생활안내를 생활안내

찾아보실 수 있어요

NAVER 불자정보·생활안내 검색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어보세요

'생활안내' '불자정보' 를 보실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 17일 수요일 | 불기 2568년

접 수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04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안내

1467호 | 16 | 전면광고

사람의 수명은 짧고 반드시 죽게 마련이다. 늙음과 쇠함이 침범하면 구할 수 있는 자가 없다. 그러므로 죽음을 두려워해서 빨리 불법에 들어가야 한다.



부처님 말씀 읽기 -《별역잡아함경》에서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 보존회 학인모집

1. 염불 · 사물
2. 천수바라 · 오공양작법
3. 다게작법 · 운심게작법

• 특별반 3개월과정모집
• 사) 대한불교 전통불교조계종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부산영산재 사무국 총무원 010-5511-7000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 재판, 암, 질병, 산소물찬곳, 유산낙태, 이혼수, 부도, 사업실패, 배우가 일찍 죽는 관상, 귀신 붙은 관상,결혼 못하는 관상, 자식이 일찍 죽거나 질병관상, 중풍, 뇌졸중 관상
• 출장개인지도 : 관상학, 성명학, 사주명리, 손금, 상술비법
• 스님,무속인,법사,무당,일반인,공무원 특별 개인지도
• 신을 받았어도 제대로 못하시는 분, 작명 아기이름, 개명

상담문의 010-4014-8822 타로특별비법지도
365일 무료 숙식제공 교육장. 상술, 언변 비법 전문지도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점안,살풀이,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검색-손도사 자전 천기소설 운명
010-5105-5000

의식은 불교의 꽃 (행사대행)

49제, 점안, 기타, 바라, 살풀이
30년 수행 공덕으로 귀사찰에 불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010-5270-8260

부처님 되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말씀에 의하여 우리들도 필히 부처님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티끌만한 거짓도 허망도 없는 진실뿐입니다.
원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법회를 마련하시면 참석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010-5366-4905 무심 합장

이조불교 재활용센터

• 대불, 소불, 동불, 탱화, 법당 제작 (수미단, 닷집, 운각)
• 법당 철거, 오래된 불서 고가 매입
*사찰 사고팝니다.

010-9177-7842

탈 종 계

• 성 명 : 임형주
• 법 명 : 법연
• 사찰명 : 관음사
• 주 소 : 전북 남원시 보절면 관음사길 82

상기 본인은 한국불교 태고종과 종지 종풍이 맞지 않아 탈종 하고자 탈종계를 제출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기 2567(2023)년 11월 24일

상기 탈종승려 법 연 (임형주)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귀하

현대불교신문 구독 나눔 캠페인

현대불교신문에는
부처님의 따뜻한 자비와 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도반과 함께 구독하여 나눔의 기쁨을 누려보세요.

02-2004-8212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 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나를 닦는 백팔배(백팔대참회문)

The Sound of Life
생명의 소리 CD

특가 12,000원

'절이란 참으로 진지하게 나를 닦는 방법입니다!'

"모든 생명을 지극히 내안에 모시고 살림의 장을 확산해 나가는 생명과 평화를 위해 108배를 올립니다"

1. 절을 하는 마음 낭송 (01:17)
2. 나를 닦는 108배 낭송과 음악 (37:39)
3. 명상음악 "영혼의 피리소리" (05:40)



연주 – 김영동 (대금, 단소, 훈)
삽입곡 –
대금독주곡(즉흥연주)
단소독주곡(즉흥연주)
영가1 – 자연의 소리
영가2 – 자연의 소리
수제천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향로용 유리알 향운정주(수정모사)



▣ 상품명 : 향운정주 (수정모사)
▣ 재 질 : 크리스탈 유리알
▣ 용 도 : 법당향로, 개인향로, 법당 조화용 화병, 크리스탈 꽃병 등등 다양한 곳에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
▣ 규 격 : 1kg : 13 x 15 x 3.5cm (종이박스) / 5kg : 14 x 15.5 x 18.5cm (종이박스)
▣ 특별공급가격 : **1kg : 10,000원** (배송비 별도)
5kg 1BOX (1kg X 5ea) : 50,000원/세트 (배송비 포함)
▣ 구입처 : 전화 : 02-732-1520 , 팩스 : 02-737-0696
▣ 계 좌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판매원 : 마하몰 (www.mahamall.co.kr) / 제조원 : ㈜바이넥스 / 원산지 : 대한민국

상품특성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맑고 투명한 작은 구슬로 향로에 사용하던 쌀 등 곡식이나 모래, 흙 등을 대체한 제품입니다.
- 모양과 빛이 아름다워 보는 이로 하여금 정결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향이 잘 꽂아지고 부러지지 않으며, 물로 씻어 정갈하게 대를 물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온도에서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인체에도 유익합니다.
- 조화용 화병이나 크리스탈 꽃병에 사용하시면 투명한 빛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 향로에 들어가는 향로용 유리알 수량 (스텐 향로 기준)

종류		크기			수량
향로(스텐)	特大	지름: 20cm	높이: 18.5cm	내부: 13cm	5kg
향로(스텐)	大	지름: 17.5cm	높이: 18.5cm	내부: 11.5cm	3kg
향로(스텐)	中	지름: 13.5cm	높이: 16cm	내부: 10cm	1.5kg
향로(스텐)	小	지름: 12cm	높이: 12.5cm	내부: 8.5cm	1kg

❖ 본 지면의 생활안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길 위에 있었던 역사를 만나다



이안의 Media In Buddha

㉛ 다큐 영화 〈길 위에 김대중〉



다큐 영화 〈길 위에 김대중〉 한 장면.

지구가 아프다.

물-땅과 물과 대기도 두루 아프고, 심-깃들어 사는 생명들의 앞날도 막막한 지금의 지구는 물심양면으로 아프다. 영하 40도 아래로 추위가 덮친 날씨가 계속되는 북유럽, 새해 첫날부터 지진으로 무너진 일본, 날마다 전쟁으로 죽고 죽이는 나라들, 그 기후위기와 전쟁의 여파로 무너지는 세계 경제와 평화.

사람들은 가끔 사라지려는 것들이 아직 남아있다는 데서 생명이 지속되리라는 위로를 찾는다. 더 이상 자연에서는 볼 수 없고 외교적 잇속 따져가며 동물원에서나 전시되는 판다에 대한 열광도 그런 예가 될 것이다.

〈친애하는 지구에게-소중한 지구와의 공존을 위해 마음으로 전하는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라는 달라이라마의 간절한 발원을 페트릭 맥도웰이 그림으로 펼쳐낸 책을 보면 달라이라마가 어린 시절에는 자연에서 살았던 대왕판다가 달라이라마를 찾아온다. 대왕판다와 달라이라마는 인간의 무지와 탐욕, 지구상의 생명체에 대한 존중심 부족으로 사라진 뭇 동물들을 애도하며 함께 나선다. 인간을 발전시키는 열쇠와 지구라는 행성을 지키기 위한 열쇠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위대한 자비'에 있다고 호소한다.

모든 생명체가 '지구라는 하나의 작은 집을 공유하는 가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행동하는 혁명의 바탕이라고, 그러니 인간은 지구를 멸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지만 보호할 힘도 가지고 있으니 자비를 실천하자고 한다.

이렇게 지구 차원의 공존과 평화는 만물이 촘촘히 맺은 관계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 혼자 덜 먹고, 덜 쓰고, 참선하는 발심만으로 이룰 일이 아니다. 달라이라마가 '자비의 혁명'이라고까지 한 까닭은 인간의 활동이 미치는 어디든 두루 미쳐야 하기 때문이다. 피할 수 없이 정치적이고 국제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을 필요로 한다.

한국 정치사에서도 이런 전환에 대한 비전을 내세운 정치인이 있었다. 고 김대중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재단 이사장으로 재임하던 1994년, 미국외교협회지 〈포린 어페어스(Foreign Affairs)〉에 기고한 글에서 '지구민주주의'라는 개념을 펼친 바 있다.

'지구민주주의' 주장했던 정치인 김대중 탄생 100주년 기념 다큐 위인 만들기보다 역사에 집중해

민주주의란 서양에서 발전시키고 동양에 전파한 것이라던 서양중심적 주장에 대해 "우리는 모든 인간이 자기발전의 권리를 보장받을 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과 무생물까지도 건전한 존재의 권리가 보장되는 새로운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아시아의 풍부한 민주주의적인 철학과 전통은 지구민주주의의 발전에 큰 공헌을 할 수 있다. 민주주의가 우리의 운명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냥 주장을 한 것이 아니라 아시아 민주주의 사상의 원천을 하나하나 설명했다. 유학의 민본과 평천하사상, 불교의 불성사상, 동학의 인내천과 사인여천 사상들이 이뤄온 전통이 바로 지금의 생태위기 시대에 요청되는 새로운 '지구민주주의'의 사상적 원천이라고 근거를 들어 뜻을 밝혔다. 말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그 글을 쓴 이후 치렀던 제15대 대선에서 역대 대통령 후보로서는 처음으로 선거 공약에 '불교 공약'을 담았고, 그 공약 가운데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건립비용 지원, 팔만대장경 한글화 및 전산화 지원 등 예산지원과 전통사찰보존법, 문화재보호법 등 불교관련법 제·개정을 실제로 추진했다. 또한 2002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금강산 신계사를 비롯한 북한 불교문화재의 복원사업과 인도적 차원의 지원사업으로 불교통일운동을 지원해서 2003년 제7회 만해대상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한국 근현대 정치사는 일제강점기에 태어나 한국전쟁을 겪은 대중에게는 특히 가혹했고 그만큼 정치인에게도 가혹했다. 그 가운데서도 고 김대중 대통령만큼 정치인으로서 고난과 혐오, 열광과 영예를 평생 짊어진 인물도 없을 것이다. 권력자들에게 목숨을 위협받고 감옥이든 집이든 갇힌 세월도 길고, 나라 밖에 몰려나거나 자기 집 담장 안에 갇힌 세월도 길었다. 그런데도 결국 대통령이 되었고 노벨 평화상까지 받게 된 것은 개인으로서의 '김대중'이 아니라 '김대중이라는 정치인과 맺은 모든 인연들'이 맺은 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고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다큐멘터리 〈길 위에 김대중〉은 딱 그런 관점을 펼쳐보인다. 이 영화를 만든 민환기 감독이 "절절한 감정은 최대한 거둬냈다. 역사적인 사실만 두고도 그만한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다. 김대중 대통령을 위인으로 만드는 일만은 피하고 싶었다. 그래도 괜찮은 작품이 될 거라 생각했다"고 밝혔듯이 이 영화는 위인전도, 영웅 신화도 아니다. 고인이 이미 태어난 지 100년이 된 데다 정당들이 선거 한 번 겪을 때마다 이합집산을 거듭하며 사람이며 정체성도 많이 바뀌었으니 특정 정당을 옹호하는 선전물도 아닐 것이다.

일제강점기에 태어난 목포의 청년 사업가가 한국전쟁 당시 우익이라며 인민군에게 끌려간 것을 시작으로 다섯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고, 대통령 선거에서 세 번이나 낙선했다. 그러면서도 IMF로 나라가 쑥대밭이 된 시기에 대중의 선거로 대통령이 되었고, 처음으로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켜 이산가족이 서로 만날 수 있게 했다.

사실 살면서 납치, 투옥, 망명, 사형선고, 남북대화, 대통령 취임, 노벨 평화상 등 그이가 겪은 사건들로만 보자면 영화가 만들어져도 벌써 몇 편이 나왔어야 할 만큼 딱 극적인 인물에 대한 한국 영화가 여태 없었던 것이 이상한 일이다. 그가 겪은 일들이 벌어졌던 시대에 대한 영화들은 그토록 많은데. '불가촉' 또는 '금기'라도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영화에서 그를 배제한다는 것은 인연이 있는 모든 대중과 사건을 배제한다는 것이다. 10.26도, 12.12도, 5.18도 다 영화가 되었는데. 그러니 그에 대한 영화를 만든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제외됐던 대중들을 복권시키는 작업이다. 대중들이 쌓아온 업력을 더 이상 외면하지도, 무시하지도, 부정하지도 않고 인정한다는 것이다.

〈노무현입니다〉, 〈노회찬 6411〉과 같이 대중에게 사랑받았으나 비극적으로 생을 마친 정치인들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던 최낙용 프로듀서가 〈노회찬 6411〉을 연출했던 민환기 감독과 다시 함께 한 이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은 시대와 역사, 그 안에서 정치라는 고리로 인연의 업을 짓는 모든 사람들이다. 그 고리가 '김대중'이고, 고리를 개인사에서 공동의 역사로 이끄는 것이 그가 걸은 '길'이고, 영화가 그 '길' 위에서 복원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 안에서 타오르던 대중의 열망이다.

두 편으로 기획된 〈길 위에 김대중〉은 아직 길의 가운데까지 밖에 오지 않았다. 영광과 명예의 순간도 이 영화에는 담기지 않았다. 〈서울의 봄〉과 마찬가지로 '역사가 스포'인 이 영화에서 관객들은 새로운 것을 보게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데 취합한 영상 자료가 20테라바이트, 시간으로 치면 1700시간 분량의 자료를 5개월에 걸쳐 12시간씩 검토했다는 제작진은 역사의 주름을 들춰내고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정보와 장면들을 보여준다.

시위, 진압, 학살과 같은 엄청난 사건들을 관통하면서도 영화는 흥분하지 않고, 선동하지도 않는다. 그런 중심을 잡는 데는 감독의 섬세한 연출과 더불어 처음부터 끝까지 길잡이를 맡은 장현성 배우의 나레이션이 큰 몫을 한다.

〈영화평론가〉

나란다축제 불교고리경시대회 완전정복 ③

1. 다음 설명을 올바르게 이해한 것은?

> 그때, 그는 동쪽에서 솟아오르는 새벽 별을 보는 순간 무상정등정각을 완성하고 큰 소리로 사자후하였다. "이제 어둠의 세계는 타파되었다. 나는 지금부터 다시는 고통의 수레에 말려들어 가지 않으리. 이것을 고뇌의 최후라 선언하며 이제 여래의 세계를 선포하노라." 『불본행집경』

① 인간의 본성은 무조건 선한 것이라는 성선설을 주장했다.
② 무위자연의 도를 일생동안 실천한 사람으로서 나중에 신선이 되었다고 한다.
③ 사람들의 행복과 불행은 신이나 운명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④ 인간이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무엇이 진리인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주장했다.
⑤ 그는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고, 모든 것에서 승리한 사람이며 그 어떤 것도 두려울 것이 없는 괴로움에서 벗어난 사람이다.

해설 : 설명은 고타마 싯다르타가 6년의 수행 끝에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깨달은 장면이다. ①은 유교의 맹자, ②은 도교, ③은 기독교의 운명론, 혹은 예정론에 해당하기에 불교와 관련이 없다. 불교에서 인간이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무엇이 진리인지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2.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 "무엇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최상의 행복입니까?"라는 어느 제자의 물음에 대답하신 내용이다. 최상의 행복과 거리가 먼 것은?

① 자신의 혈통을 자부하고 재산을 자랑하고 가문을 뽐내면서 사는 것이다.
② 더불어 나누고 정의롭게 살며 항상 감사할 줄 아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다.
③ 슬기로운 사람과 가까이 지내며 존경할 만한 사람을 공경하며 사는 것이다.
④ 많이 배우고 익히며 절제하고 훈련하여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며 사는 것이다.
⑤ 어떤 어려움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슬픔과 번민 없이 안온하게 사는 것이다.

해설 : 모든 것은 무상함으로 혈통, 재산, 가문이 주는 행복은 일시적이며 허망하다. 마음의 평온, 자기의 제어, 지혜의 추구야말로 참으로 추구할만한 행복이다.

3. 실제 불상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고 약 500년 동안은 조성되지 않았다고 전하는데, 당시 인도에서 불상을 대신하여 예배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과 거리가 먼 것은?

①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 불탑(佛塔)
② 법을 전하는 수레바퀴 모양의 법륜(法輪)
③ 부처님이 설법할 때 앉았다는 연화좌(蓮花座)
④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을 때의 보리수(菩提樹)
⑤ 청·황·적·백·주황 다섯 가지 색으로 된 불교기(佛教旗)

해설 : 불교기는 1950년 스리랑카에서 개최된 제1회 세계불교도우의회에서 제정되었다.

4. 불교가 추구하는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길로 틀린 것은?

① 소욕지족의 생활을 즐긴다.
② 욕구의 대상과 내용을 변화시킨다.
③ 자신과 타인의 이익을 함께 추구한다.
④ 인간의 지나친 탐욕을 줄이거나 없애 나간다.
⑤ 무한정 경제적 부를 추구하여 나와 우리 가족만 잘살면 된다.

해설 : 불교는 물질적으로 편중된 행복보다는 물질과 정신의 조화로운 행복을 추구함으로 소욕지족하며 감각적 욕망의 대상보다는 진리 등의 보다 가치있는 대상을 추구(욕구)하고자 한다. 또한 자신만의 행복이 아니라 살아있는 일체의 모든 생명이 함께 행복하기를 추구한다.

5. 불교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불교는 참다운 나를 찾는 종교이다.
② 불교는 진리를 깨닫게 하는 종교이다.
③ 불교는 마음을 열고 대화하는 종교이다.
④ 불교는 어두운 마음을 밝게하는 종교이다.
⑤ 불교는 우주의 창조신인 부처님을 믿는 종교이다.

해설 :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진리)을 통해 자신(나)과 자신의 마음을 깨닫는 종교로 부처님께서는 우주의 창조신이시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가르쳐 주셨기에 따르는 것이다.

정답 : 1.⑤ 2.① 3.⑤ 4.⑤ 5.⑤

제공 : (재)은정불교문화진흥원 / 감수 : 서정원 박사

구독 및 후원

이제 손쉽게 스마트폰으로 찍어 보내주세요

문자 · 카카오톡 접수 010-4648-8200



현대불교신문 후원금 및 구독신청서 양식

현대불교신문 후원금 신청서

▮성 명 : ▮전화번호 : ▮주 소 :
▮후 원 금 액 : 매월 원 (매월 5,000원 이상)
▮접 수 방 법 : 자동이체, 무통장입금
▮자 동 이 체 : □은 행 명 □계좌번호 □예 금 주
□예금주 주민번호(앞 6자리) :
▮무통장입금 : □계좌번호 : 농협은행 053-01-269075 □예 금 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무통장입금 후 확인 전화 부탁드립니다.

구독 신청서

▮성 명 : ▮전화번호 : ▮주 소 :
▮납 부 방 법 : 자동이체(월 구독료 5천원)
□은 행 명 □계좌번호 □예 금 주
□예금주 주민번호(앞 6자리)
▮이체 희망일 : □ 5일 □15일
▮입금 계좌번호 : □국민은행 245-25-0001-461 □농협은행 053-01-269050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이미령의
스토리텔링 경전에세이 ❷ 부처님 일대기를 읽자(1)

▶한줄 요약
경전에는 자력과 타력의 두 가지 길이 있다. 하지만 맹목적인 샛길로 나아가서는 불교를 바로 이해할 수 없다. 경전을 통해 불교를 바로 이해하려면 반드시 부처님 일대기를 먼저 읽어야 한다.



그대는 부처님에 대해 얼마나 아시나요

몹시 추운 겨울 밤, 중국의 어느 사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유랑하다가 얼마 전부터 이 절에 머물던 스님 한 사람이 추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주지스님이 넉넉하게 땔감을 마련해주지 않았나 봅니다. 스님은 달달 떨면서 군불을 좀 땔까 하며 밖으로 나와 주변을 둘러봤지만 땔감은 눈에 띄지 않았지요. 하긴 수행하겠다는 사람이 추위를 이기지 못해 온기를 찾아 군불을 지필 생각만 한다면 너무 나약한 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주지스님도 이런 마음에서 방에 불을 넣어주지 않았는지도 모를 일이지요.

그런데 너무 추웠던 스님은 결국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대웅전에 모셔진 불상이 나무로 만들어졌음을 알고, 냉큼 내려다 도끼로 쪼개어 장작으로 삼은 겁니다. 주지스님이 굴뚝에서 뭉게뭉게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고 놀라서 달려갔고, 객승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말았음을 알았지요.

"어찌 성스러운 부처님을 도끼로 패서 땔감으로 쓸 수 있느냐!"

노발대발한 주지스님이 소리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자 이 객승은 용서를 빌기는커녕 이미 하얗게 쌓인 재를 부지깽이로 뒤적뒤적하기만 합니다. 이 모습이 궁금해진 주지스님이 '뭘 하고 있는가?'라고 물었더니 이 스님 대답이 천연덕스럽습니다.

"우리 부처님 다비(화장)했는데 사리가 있는지 찾는 중입니다."

하도 천연덕스러워 진작에 스승으로부터 천연(天然)이란 이름을 받은 단하 스님 이야기입니다. 불상도 땔감으로 쓰는 종교가 불교입니다. 그 무엇이라도 절대시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 대상이 부처님이라도 말입니다. 심지어는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라'고 외치는 스님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심오한 선문답을 풀어드리기 위함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불자들 입에 오르내리다보니 부처님을 그리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도 제법 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한 채 그저 부처님에 집착하지 말라고 종주먹을 들이대는 '불자'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찾는 것이지 부처님, 부처님 하고 백날 찾아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지요. 붓다는 아무것도 아니다, 찾으려 하는 순간 상(相)에 사로잡혀서 정말로 진짜 붓다를 만나지 못한다는 주장입니다. 어떤 불자들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시시하게 여기기까지 합니다. 법신불이니 자성불이니 말하면서, 석가모니 부처님에 대해서 몇 가지 빤한 에피소드만 접하고는 다 안다고, 더 알 것이 뭐 있느냐고, 다 옛날이야기 같은 것이니 수행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불자들을 종종 만납니다.



그림 · 최주현

부처님을 대하는 참 희한한 자세 첫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2600여 년 전의 석가모니 부처님이 없었다면 이 모든 사상과 주의주장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을까요? 아무리 밝고 깊은 안목과 혜안을 지니고서 선, 중관, 유식, 정토, 법화, 화엄 등등의 심오한 사상을 펼친다 해도 그 시작은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부처님을 모르고서 무조건 집착하지 말라고 외치는 것이야말로 허공에 대고 색칠을 하겠다고 덤비는 무모한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정 스님은 이렇게 썼습니다.

"그 사람을 모르고 그의 사상이나 가르침을 이해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불타 석가모니의 경우처럼 그의 삶이 곧 그 사상을 나타낸다면 더욱 그렇다. 그가 한평생을 어떻게 살았으며, 그 시대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가 곧 그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열쇠이다. 그리고 그를 어떻게 보는가 하는 문제는 불교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출발이 될 것이다."

– 〈불타 석가모니(와타나베 쇼코 지음)〉 역자 서문에서)

부처님의 정신은 부처님의 입을 통해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렸고, 행동으로 몸소 진리를 보여주신 분입니다. 그러니 석가모니 부처님 생애를 어떻게 읽지 않을 수 있을까요? 불자는 부처님이 되겠노라 다짐하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부처님이 되겠다면서 부처님이 실제로 인도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셨는지를 면밀하게 알아보지 않는다면 어불성설입니다.

'부처님 집착 말라' 불자 종종 만나
종조 모르고 사상 등 알 수 있을까
부처님을 창조주로 보는 불자들은
오로지 자신과 가족의 구복 기원해
잘못된 샛길로 나아가지 않기 위해
우린 부처님 일대기를 읽어야 한다

그런 반면, 부처님을 창조주처럼 여기는 불자들도 많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을 그분께 열심히 빌면 다 들어주고 이뤄준다고 여깁니다. 내 행복도 부처님이 주시고, 내 불행도 부처님이 치워주신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착하게 살면 부처님이 상을 주고, 나쁜 짓하면 부처님이 벌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부처님 앞에 와서 빌고 남편이 승진하기를 부처님에게 빕니다. 아픈 몸 건강하게 해달라고 빌고, 죽음이 엉겁결에 나를 찾아오지 않게 해 달라고 빕니다. 빌고, 빌고 또 빕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을 대하는 참 희한한 두 번째 자세입니다. 그 간절한 믿음을 비웃으려는 의도는 아닙니다. 저 역시 힘없는 어리석은 범부중생인지라 불보살님을 귀히 모시고 존경하고 그 길을 따라가려는 불자입니다. 힘에 부치면 부처님께 의지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 생각해 보셨나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눈물을 흘리며 붙잡는 부모를 뿌리치고 집을 빠져나온 분입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첫 자식을 낳았는데 그 곁에서 손을 잡아주고 공동육아를 하기는커녕 모자가 곤히 잠든 시간에 작별인사도 하지 않고 몰래 성을 빠져나온 사람입니다. 그런 분인데 사람들은 그 앞에서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남편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 부모님 만수무강케 해달라고 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이 죽자 식음을 전폐한 부모에게 부처님은 실제로 무슨 말을 건넸을까요? 늙은 배우자의 임종에 즈음해서 부처님은 어떤 위로의 말을 알려주었을까요? 외모에 집착해서 다른 것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여인에게는? 재산을 다 물려준 뒤 자식들의 부양을 받지 못해 살아갈 의욕을 잃은 노인들에게는?

간절하게 기도하는 오늘의 불자들을 바라보면서, 정작 석가모니 부처님이 2024년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소망을 품은 사람들에게 실제로 어떤 해법을 안겨주실까 궁금해집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사는 이 지구에 불교를 시작한 석가모니 부처님이 진짜로 어떻게 살다 가셨는지, 누구를 만나서 어떤 말씀을 들려주셨는지, 날마다 이른 아침에 눈을 뜨고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인지, 온종일 무슨 생각을 하며 사셨는지, 그리고 다 늙어 인생의 마지막 자리를 찾아갈 때의 심정과 마지막 당부는 무엇이었는지 이런 것을 한 번은 진지하게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영국의 비교종교학자인 카렌 암스트롱은 "붓다의 삶은 그의 가르침과 융합되어 있으며, 우리는 그 삶을 이해함으로써 인간의 곤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스스로 깨어난 자, 붓다〉에서)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우리에게는 인간적인 문제가 늘 생기게 마련인데 여기에는 초현실적이거나 궁극적인 진리보다 인간적인 해법이 더 실질적인 도움을 줍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인도땅을 맨발로 저벅저벅 밟고 다니신 80년의 생애를 참고하면 그토록 간절히 바라는 것에 대한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경전이라는 거대한 숲에 두 갈래 길이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스스로 깨닫겠다는 자력문과 기도하며 기대겠다는 타력문입니다. 자력문의 길을 선택한 사람이 자칫 빠져들기 쉬운 샛길이 바로 붓다를 만나면 붓다를 죽이라며, 추울 땐 목불(木佛)도 땔감으로 써야 한다고 호기를 부리는 자세입니다. 타력문의 길을 선택한 사람이 자칫 빠져들기 쉬운 샛길은 무조건 빌면 다 된다며, 행불행도 저분이 주신다며 맹목적으로 빌기만 하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경전을 읽고 싶다는 사람들에게 저는 말합니다. 자력문의 길이든 타력문의 길이든 어떤 길을 선택하시더라도 가장 먼저 읽어야 할 경전은 부처님 일대기라고 말입니다.

부처님 일대기를 담고 있는 경전을 불전(佛傳)이라 하는데 그 숫자 역시 아주 많습니다. 내용도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거북할 정도로 신화적인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경전도 많습니다. "이건 그냥 아이들이나 읽을 만한 우화잖아"라고 여겨질 만한 내용의 불전도 있습니다. 하나하나 따지지 말고 그냥 글자 적힌 그대로 믿어야 한다는 사람도 있고, 신화적인 내용은 걷어내고 인간적인 면모만을 인정해야 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처님 일대기 하나를 말하는 데에도 역시 노란 숲속 두 갈래 길처럼, 입장이 이렇게 나뉩니다.

〈경전이야기꾼, 불교강사〉

전국 지사 안내

구독신청 **기사제보** **광고게재**

항상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사명	지사장	연락처	
부산지사	이도경	T 051-405-9402	H 010-5640-8883
경남지사	성낙두	T 051-512-1761	H 010-3860-7008
대구경북지사	손문철	T 053-985-9190	H 010-2813-8008

지사명	지사장	연락처	
광주전남지사	양행선	T 062-512-5003	H 010-2629-1508
전북지사	조동제	T 063-910-8977	H 010-8642-7733
영주지국	박영애	T 054-634-3429	H 010-9373-3778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



대행 스님

당신 주인공인 주장자에 모든것을 다 일임하고 굴려놓으라

참다운 인생의 길은 간다는 것은

질문 인간으로 태어나기 힘들다 하는데 그럼 이렇게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어떻게 해야 참다운 인생의 길을 가게 되는지요.

답변 여러분은 그렇게 겪어 보지 않았고 또 실감 나지 않는 일이 돼서 모르시겠지마는 이런 걸 얘기로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실감 날 리는 없겠지요. 그러나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증명이 되고 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물속에도 그 돌에 있는 그 느끼, 또는 흙의 느끼 그런 것만 걷어 먹고 남하고 싸움하기 싫고, 또 연쇄적으로 잡아먹어 가면서 먹기 위해서 살기 싫고 한 그 생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그저 남을 피해서 돌 틈에 가서 살면서 그런 거를 걷어 먹고 사는 동시에 천 년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사람 된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해서 사람 된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천 년을 지내고 난 뒤에야 바로 인생이라는 한 꺼풀을 쓰고 나옵니다. 이건 간단하게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그 과정은 말고도 말입니다.

또 동물들도 남들하고 또 싸움하기 싫어서 아주 인적이 없는 그런 곳에, 살 수도 없고 냉기도 면할 수 없는 그런 곳에 그저 눈을 헤쳐 가면서 풀뿌리만 먹고 사는 그러한 동물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남한테 해롭지 않게 하면서, 또 남하고 어울리지 않고 외롭게 이렇게 살면서도 그 천 년을 견뎌야 사람의 꺼풀을 쓰고 또 이 들에 내려옵니다. 그렇다면 그런 과정, 그 어려움은 다 제쳐 놓고라도 그 사람의 꺼풀이 한 갖 나무의 나무이파리와 같으니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모두를 아신다면 목을 놓고 앉아서 울어도 시원치 않은 일입니다. 하늘을 쳐다보고 하루 종일 껄껄대고 웃어도 시원치 않고 하루를 땅을 치고 울어도 시원치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인연들이 수없이, 겹겹이 쌓이고 쌓여서 또 어우러졌습니다. 그 어려움을 비켜 놓고라도 그것도 또 못다 해서 인간의 한 이파리로 태어나서 그렇게 서로 어울려서 한 이파리가 한 나무에 모두 있다가, 그저 하나 떨어지고 둘 떨어지면 울고들 합니다. 그러나 그 이파리는 또 떨어지면서 바로 간다는 얘기도 없고 온다는 얘기도 없고 그냥 떠나갑니다, 바람에 날려서. 그러나 거기 붙어 있는 것은 아직 붙어 있으니까 "너는 가면 어디로 가느냐." 하면서 바로 바로 친지처럼, 형제처럼, 부모처럼 같이 있다가 떨어지는 그 나무이파리를 보고 바로 애원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자기대로 얼마 안 있다가 또 그렇게 해서 바람에 날리거든요. 그런데 그 바람에 날리는 그 낙엽은 그래도 생명이 소중한 거라, 그 몸 하나하나를 아주 허탕 내버리지 않고 그 땅에 도로 거름이 돼 줍니다. 우리는 몸과 마음, 생명이 소중하게 바쳐집니다.

우리가 그렇게 겹겹이 겹쳐진 인생의 그 생로를 거쳐 오면서, 슬프게 아프게 거쳐 오면서도 그걸 이겨 나가고, 그 비호같이 살을 에어 내는 바람도 우리는 마다 않고 이렇게 겪어 나와서, 오늘날에 인간이 돼 가지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한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 뜻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인간으로서의 한 꺼풀을 쓰고 나온 그 인간의 모습이 어땠던가. 한 나무의 수많은 이파리들이 그저 가을이 오면은 바들바들 떨면서 단풍이 져서 어디로 흔적 없이 하나하나 날아 떨어지는 거와 같은 인생살이, 한번 생각해 보신 점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에도 한 이파리에 지나지 않게 한 인생이 뜬구름처럼 그냥그냥 훌쩍훌쩍 훌쩍훌쩍 가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다운 인생의 길을 안다면 너무도 참…, 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지식도 없고 학식도 없고 그런다 할지라도 참이라는 게 있습니다. 진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진실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진실이라는 것은 누가 알기 이전에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진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진실은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괴로움도 바로 내가 갖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다면, 누구를 속였다면 바로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게 지옥입니다. 바로 진실이라는 거는 진실했기 때문에 떳떳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 걸리지 마세요. 모두 한마음에 모든 것을 놓고 사신다면 그것이 전자의 업도 녹아 버리면서, 우리는 스스로 차원이 높아지면서 스스로 진실을 찾게 되고 스스로 중심을 잃지 않게 되고 아무 데 가나 참선이 됨으로써, 자유인으로서 예전에 그렇게 아프게 해서 인간의 한 껍질을 쓰고 나왔거늘 오늘날에 인간의 껍질이 바로 무엇이었던가를 또 알 수 있게끔 되는 겁니다. 인간의 껍질이 저런 나무이파리와 다름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봄이 오기를, 그거를 기대를 해서 기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한 분만, 한 사람만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우주의 만물이 다 바로 양식을 얻는 거나 마찬가집니다. 여러분 한 분이 깨달았는데 그 만물이, 이 산 저 산 푸른 산이 전부 만물이라면 전부 양식을 얻는 거나 같습니다. 우리가 깨달음이 없는 동네는, 세계는 바로 우환 가난 이런 것만 오고 파괴만 와요, 싸움만 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속히 공부를 해서 극락세계, 즉 말하자면 사람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서 잘 살 수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림 · 최주현

상대를 둘로 보지 않으려면

질문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지만 저는 상대에 대한 분별심이 잘 내려놔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상대를 둘로 보지 않고 한마음이 될 수 있을까요?

답변 우리가 지금 태어난 것이 시발점이 돼서 종교를 믿고 이렇게 가는데, 물질세계를 뛰어넘어서 이제 피안의 세계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로 넘어간다 이런다면 이것이 살아서 열반이라고 하는 경계입니다. 죽어서 열반은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내가 모든 거를 놔서 죽은 세상까지 돌아야, 살아 있는 세상과 죽어 있는 세상이 동시에 같이 있는데 거기를 찰나찰나 이렇게 한 바퀴 돌 줄 알아야, 모가 나지 않게 돌아갈 줄 알아야, 50%와 50%를 합쳐서 100%를 같이 굴릴 줄 알아야 이게 됩니다.

그래서 한 바퀴 돌아와야 그 둘이 아닌 도리를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 세상에 나와서 자식이 됐다가 부모가 돼요. 부모가 됐다가 또 한 번 옷을 벗고 한 번 돌아요. 돌아서 다시 탄생을 해 보니까 딴 부모한테 또 태어났어요, 인연에 따라서. 그러니까 또 딴 부모의 자식이

☞ 20면으로 계속

현대불교신문
法보시 신청

부처님 가르침인 '佛法'을 보시하는
법보시 공덕은 보시 공덕 중 으뜸입니다.

부처님법을 전하는 현대불교신문 법보시는
독거어르신, 교도소 재소자, 군 장병, 병원 환우들에게
현대불교신문을 보시하는 공덕입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1만원으로 2부 보시.
02-2004-8212



네 나무는 네 뿌리를 믿어야 공덕이 있느니라

☞ 19면에서 계속

되더란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딴 모습으로다가, 짐승의 모습을 가지고서 짐승의 자식이 돼서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돌고 돌다 보니까 내 자식 아닌 게 하나도 없고, 내 부모 아닌 게 하나도 없고, 내 형제 아닌 게 하나도 없더라. 공동묘지에 가 보니까 남녀노소도 없고 그대로 늙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 또한 깨쳐야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염주 줄과 염주알이 둘이 아니다, 뿌리와 싹이 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뿌리의 세계를 알아야 뿌리의 세계에서 현실의 세계로 나오면서 자꾸 화해서 모습이 바뀌어서 나오는 거, 인연이 바뀌어서 나오는 거, 그런 거를 다 이렇게, 50%만 아는 게 아니라 100% 돌아가면서 알아야 '아, 모두가 둘이 아니로구나!' 이렇게 진실하게 알지 내가 직접적인 행을 해 보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먹어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둘이 아닌 줄 알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죽었다 깨어나고 깨어났다가 죽고 이러는 도리를 확실히 알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 도리를 알게 됩니다. 내 과거에 살던 나와 현실에 살던 자기와 둘이 아니게 상봉을 해야 진짜로 그런 도리를 알게 되는 겁니다. 스스로 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너 나가 없이 자비를 베풀 수가 있고, 네 부모 내 부모 아님이 없이 자비를 베풀 수가 있고 마음을 낼 수가 있지, 어떻게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너 나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이고, 둘이 아니다.'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모습이 둘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둘이 아니다, 영혼이 둘이 아니다 이겁니다. 영혼이 둘이 아니라면 진짜로 자비를 베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습은 따로따로 각각 있을지언정 한 줄에 꿰였다 이겁니다, 한 줄에. 이 염주알은 따로따로 있으나 한 줄에 꿰여 있으니까 '너 나가 둘이 아니구나.' 이렇게 알아지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도 또한 발견을 해야 아시겠죠, 확실하게. 그러나 발견을 못 했어도 '진짜로 뿌리의 세계는 그렇게 둘이 아니구나. 영과 영이 만 개가 한데 합쳐도 영은 영이고 바로 둘이 아니구나.' 이런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모두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하고, 욕심을 부리지 않고, 남을 증오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이렇게 항상 하신다면 자식의 업보도, 남편의 업보도, 아내의 업보도, 부모의 업보도 다 사라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기 실천을 아주 잘하고 가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면서도 실제로 체험하고 가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자기가 그만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는 알고 있을 거예요. 컴퓨터에 입력하는 것과 같이 입력이 돼서 나오는 데다가 다시 입력을 한다면 앞서의 입력은 한 찰나에 없어진다는 사실을 그대로 얘기해 드렸으니까요.

삼재라는 게 정말 있나요?

질문 우리가 뭔 일이 잘 안되면 "삼재가 들었나?" 이런 말을 할 때가 있는데 정말 삼재라는 게 있는 것인지요.

답변 항상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무엇을 하든 자기 주처를 믿고, 자기 불성을 믿고 그 자리에 놔야 합니다. 즉, 주처라는 자체가 주장자도 되고 불성도 되고 주인공도 되고 자부처도 됩니다. 그 주인공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장자를 세워서 항상 수레가 구르듯이 그렇게 천차만별의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바퀴는 모두 중심에 꿰여서, 그 중심을 꿴 심봉이 바로 바퀴를 굴리는 거죠. 거기서 힘이 배출되기 때문에 그 심봉을 끼고 바퀴가 이탈이 되지 않고 돌아가는 겁니다. 모두 이 심봉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랑신이 내릴 때에 집을 지으면 악행이 벌어진다, 또는 삼재 액난이 들면 그해는 상당히 조심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공부 하는 분들은 일체 모든 게 직결이 돼 있고 가설이 돼 있는 까닭에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스럽습니다. 악행이라는 그 자체가 말로 헤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생활에 다 들어 있기 때문에. 누구 말마따나 지수화풍으로 벌어지는 일들, 또 사람이 살아가다 혹사를 당하는 일들, 이 모두를 말로 어떻게 다 하리까, 각각 그렇게 벌어지는 일들을.

이 마음에 직결되는 직결처가 자기 주인공의 주장자니까 삼재가 벌어졌든 구랑신이 내렸든 어떠한 문제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통신이 되면 모두가 한마음으로 구성이 됩니다, 통신이 돼서. 그러니까 그런 거 벌어질 일도 없고…. 그래서 이 마음공부를 하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구랑신도 없고 삼재도 없다, 고도 없고 집착도 없다, 멸도만이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부처님과 더불어 역대 조사들이 다 "네 나무는 네 뿌리를 믿어야 공덕이 있느니라. 네 나무는 네 뿌리를 알고, 둘이 아닌 줄을 알고 찰나찰나 이렇게 생활을 하는 데에 찰나찰나 없어지는 줄 알아야, 공해서 없어지는 줄 알아야 둘 아니게 여여하게 들이고 낼 수 있느니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마음공부가 얼마나 간편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마음이라는 자체가 광대하고 무변해서 전부 통신이 안 되는 데가 없습니다. 새들이 지저귀어도 다 통신이 됩니다. 꽃들도 다 통신이 됩니다. 하다못해 길을 걷다가 만나는 나무나 돌 하나도 통하지 않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은 듣지 못했으니까 이것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들을 하시겠지만 들리지 않아도 뜻으로는 같이 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길을 걷다가 잘못될 것 같으면 옆에 돌 하나가 서 있어도 그 돌이 스스로 제대로 가게 합니다. 왜? 그 마음하고 통하니까 그 마음이 스스로 바로 가게끔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바깥으로 한다면 통신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를, 내 가정을 위해서 거기에 모든 거를 다 일임하고 관한다면 모두 저절로 일체 한마음이 다 통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세계를 위해서, 우리 불자 전부를 위해서" 이렇게 안 해도 그냥 저절로 통합니다, 저절로. 이게 공덕이며 공심입니다. 공생, 공심, 공체, 공용, 공식화하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간단하게 이 주처에다가, 당신 주인공인 주장자에다 모든 것을 다 일임해라, 일임하고 굴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나 몸에나 용도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오는 것을 대치해 막아 나가는 것을 '굴린다'고 합니다.

차를 타고 운전을 하고 다닌다고 하더라도 '야, 오늘 하루도 무사히 운전하게 해.' 하고, 내렸으면 '참 무사하게 해서 감사해.' 하고 일심으로써, 언제나 자기를 리드해 나가고 사회를 자기로 인해서 리드해 나가는 그 주동자를 항상 주시해야 되겠죠.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주시를 안 해도 주시한 게 되죠. 그놈이 보게 하고 듣게 하고, 가고 오게 해서 내가 움죽거리니까 주동자는 자기 주장자가 주동이 돼서 있죠.

그러니까 자기 주동자가 바로 자기를 이끌어 가는 선장이거든. 왜 선장이라고 하느냐. 심봉이 끼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움죽거리지 않는 심봉이 그 힘을 배출해서 이 수레바퀴가 돌아가니까요. 자기 몸이 수레바퀴라고 한다면 그렇단 말입니다. 수레바퀴와 같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북하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수레바퀴 돌아가듯 한다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수레바퀴가 돌아가는데, 비행기 프로펠러 돌아가듯 돌아가는데 거기 먼지가 앉을 새가 어딨으며, 병고가 붙을 새가 어딨으며, 삼재가 붙을 새가 어딨으며, 구랑신이 붙을 새가 어딨으며, 이 세상만사 모든 것이 붙을 새가 어디 있습니까? 고가 붙을 새가 어딨고!

내가 줄창 이런 말 하죠. 우리가 지금 현재 발자국을 떼어 놓을 때에, 떼어 놓으면 한 발 없어지고 떼어 놓으면 한 발 없어지는데 무슨 고가 붙습니까? 떼어 놓으면 없어지는데 거기에 고가 있습니까? 팔자 운명이 있습니까? 구랑신이 붙어 있습니까? 삼재 액난이 붙어 있습니까? 붙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생각에 의해서 그게 붙어지는 거지 붙어지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못났든 잘났든 '나'를 믿으세요. 아주 자기가 못나고 형편없다 하더라도 그건 형편없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이 세상에 나올 권리가 있어서 나왔고, 나왔으니 또 살 권리가 있고, 살고 있으니 '자기가 자기를 리드하고 간다'는 그 도리를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조 스님은 '내 불성이 있는지 어떻게 알았으리까? 내 불성이 여여한 줄 어떻게 알았으리까? 내 불성이 갖추어 가지고 있는 줄 어떻게 알았으리까? 내 불성이 만법을 들이고 내는 줄 어찌 알았으리까?' 하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삼재니 뭐니 하는 그런 데 귀를 기울이거나 젖어들지 말고, 흔들림이 없이 그냥 꿋꿋하게 자신을 완벽하게 밀고 나가는, 물러서지 않고 밀고 나가는 패기와 신념을 가지십시오. 또 우리가 그런 신념에 의해서 바른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가 못났다고 해서 '나는 부처가 될 수 없어.' 이러는 사람은 이 마음공부를 못 하고 항상 생사윤회 바퀴에 끄달려서 세세생생을 그 바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은 삼재니 뭐니 하는 그런 데 귀를 기울이거나 젖어들지 말고
흔들림이 없이 그냥 꿋꿋하게 자신을 완벽하게 밀고 나가는,
물러서지 않고 밀고 나가는 패기와 신념을 가지십시오.

육바라밀 실천

질문 불자의 중요한 수행 덕목으로 육바라밀이 있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실천해 나가야 하는지요.

답변 모든 것이 주인공이라는 그 마음에서 빚어지는 일들입니다. 내가 지혜가 풍부해서 모가 나지 않고 둥글게 모든 것을 무주상으로 조건 없는 사랑을 할 수 있을 때에 보시가 되는 거죠? 만약에 조건이 있다면 보시가 아니죠. 어떻게들 생각하십니까? 이름이나 나려고 하고 권세나 가지려고 하고, 또 자기가 해 나가는 일들이 좀 더 순탄하게 나가기를 바라는 그 욕심에서 하는 거는 보시가 아닙니다, 그게. 유무를 타파하고 조건 없는 자비로써 보시를 할 때에 그게 무주상 보시입니다.

그런데 무주상을 행하는 거는 어떤 놈입니까, 또. 보시, 지계, 인욕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그 한 주인공 마음에서 지혜도 나오고 무주상도 나오고 행동도 나오고 또 인욕도 나오고 다 그러는 것입니다. 인욕을 행하고 보시를 한다 하더라도 함이 없이, 머무르는 바가 없이 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하게끔 마음의 다스림이 있어야 합니다.





김영애 법사의
안심뜰

② 금강경 공부가 주는 변화

마음 속 CCTV가 작동 중인가요?

얼마 전 어느 법우님으로부터 금강경 공부를 하면서 달라진 점에 대해 듣게 되었다. 그분은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불교를 만났고, 금강경 공부는 난생 처음이었다는데 그분의 말씀을 전해본다.

"저는 평소 남에게 약하게 보이지 않으려고 제압하려는 언행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상대방이 위압감을 느꼈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 뒤돌아서서 곧바로 반성하게 돼요. 또 '너의 불행은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는 생각도 은연중 많이 했는데 금강경을 읽으면서부터는 '너와 나는 차별이 없다' '동등하다' '상대방을 대할 때는 상으로 보지 않고 부처님생명으로 대해야 한다'는 법문을 새기며 저의 행동을 돌아보게 돼요.

모멸감을 주는 동료에게도 전처럼 반응하지 않고 그냥 넘기는 저를 보게 되고요, 운전 중에 끼어드는 사람에게도 예전에는 욕이 나왔는데, 지금은 '저 사람이 뭔가 바쁜 일이 있나보다' 하면서 저도 모르게 나무아미타불 염불을 하고 있더군요. 불교를 믿으면서 위에 계신 분께 구하면 얻을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지금도 구하고는 있는데요. '생명에는 위아래가 없고 누구나 다 평등하다'는 말씀이 정말 마음에 와 닿았어요. 오늘도 '아! 부처님이 CCTV로 나를 보고 계시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당신은 어떠한가? 마음 속 CCTV가 작동 중인가? 자신의 말과 행동과 생각을 부처님의 눈으로 지켜볼 수 있는 힘은 바로 나무아미타불 염불에서 나온다. 경전 독송과 염불로 스스로를 비추어볼 수 있는 힘이 자라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한다.

행복의 비결은 필요한 것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가가 아니라, 불필요한 것에서 얼마나 자유로운가에 있다고 한다. 취할 것과 버릴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지혜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일 때 드러날 것이다. 업력에 이끌려 살다보면 삶의 이유와 방향을 놓치기 십상이다. 자신이 왜 사는지, 무엇을 진정으로 원하는지, 오롯이 자신을 만나는 시간이 바로 정진의 시간이다.

경을 읽으며 법문을 듣는 것은 마치 거울을 놓고 내 마음을 비추어보는 것과 같다고 한다. 거울 앞에서 헝클어진 머리와 옷매무새를 바로 잡듯이, 내 마음의 비뚤어진 부분을 비추어 수정해가는 것이 불자의 삶이다. 눈앞에 펼쳐진 상(相)은 아무 잘못이 없다. 그 상을 가지고 분별심을 일으켜 짐작하고 단정내리는 내 마음을 수정해갈 뿐이다. 드러날 것은 드러나고 사라질 것은 사라지기 마련이다.

경전 독송·염불로 스스로 비추고
불필요한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야
상 없애고 내 마음의 주인 돼 살길

만남은 시절인연이 와야 이루어진다고 한다. 씨앗이나 요인이 다 갖추어져 있어도 시절이 맞지 않으면 만나지 못하는 것이니,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건 부처님께 다 맡기고 그저 정진할 뿐이다. 상에 휘둘리면서 마음에 끌려 다니지 말고, 법문 듣고 염불 모시며 오늘도 마음의 주인 되어 살아가길 발원한다.

언제나 금강경을 수지 독송하라고 당부하시던 한탑 스님의 법문을 떠올려본다.

"우리가 금강경을 배우는 이유는 우리들 마음의 울타리를 허물기 위해서입니다. 나하고 좋게 지내는 사람과의 사이에만 울타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나쁘게 지내는 사람과도 울타리를 갖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남과 대립된 감정을 갖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무한광명이 비춥니다. 울타리가 사라지면 빛 아래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부처님의 광명이 모두 남김없이 드러납니다. 금강경을 읽으면 부처님께서 몇 번을 읽었는지 알아서 상을 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금강경을 읽은 만큼 내 마음속에 있는 어두움이 없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울타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어두움이 없어지는 것이고, 어두움이 없어지는 만큼 세상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본래 밝은 것으로 새삼스럽게 밝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세상을 밝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지요. 이것이 금강경의 무한공덕입니다. 그러니 금강경을 부지런히 읽고 법문을 들어서 본래부터 있는 밝은 지혜광명을 드러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드러나는 밝은 지혜광명이 바로 반야입니다. 반야는 '우리가 본래부터 부처님생명을 살고 있는데도 부처님생명이 아니라는 어두운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없애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금강경 독송합시다!"

나무아미타불!

〈문사수법회 법사〉

건강 365

⑧ 만성 콩팥병 치료와 관리

철저한 혈압·당뇨 관리…콩팥 손상 예방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꾸준히 나빠진 콩팥을 되돌리는 의학적 방법은 아직 없기 때문에 만성 콩팥병 '치료'보다는 만성 콩팥병 '관리'라는 말이 오히려 적절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사구체 신염과 같은 질환으로 인하여 만성 콩팥병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요즘에는 고혈압, 당뇨와 같은 선진국형 만성 질환으로 인하여 만성 콩팥병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고혈압, 당뇨로 진단되어 약제 복용 및 관리 중인 분들은 만성 콩팥병으로의 진행에 대한 꾸준한 관찰을 필요로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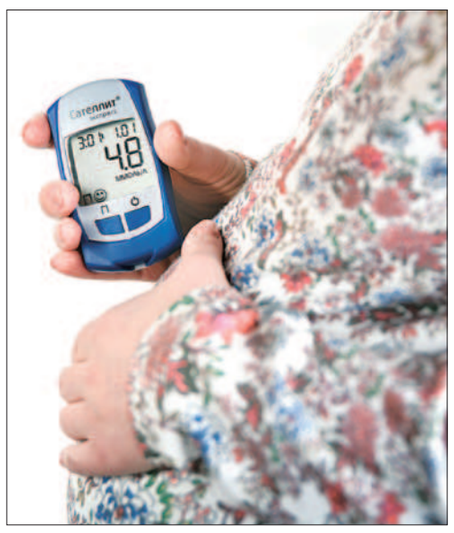
콩팥병에 대한 관리 방법

콩팥은 고혈압의 직접적인 원인 장기인 동시에 고혈압에 의하여 꾸준한 손상을 받는 대표적인 장기 중의 하나입니다. 즉, 고혈압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만성 콩팥병 치료의 기본이라고 하겠으며 이를 통해 만성 콩팥병 진행을 막음과 동시에 고혈압으로 인해 발생하는 심혈관 질환이나 뇌졸중 등과 같은 콩팥 외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당뇨로 인한 당뇨 신병증은 말기 콩팥병 원인의 반수 가까이를 차지하는 질환입니다. 엄격한 혈당 조절이 당뇨 신병증으로 인한 만성 콩팥병 진행을 늦춘다는 것이 알려져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요합니다. 또한 당뇨 관리를 위해 복용하는 당뇨 약제의 경우 신사구체 여과율에 따라 용량을 조절해야하거나, 약제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단백뇨는 만성 콩팥병으로의 진행 및 심혈관 합병증을 예견하는 지표이기도 하지만 그 자체로도 콩팥에 꾸준하게 손상을 주는 인자이기도 합니다. 우선 철저한 혈압 조절을 통해 단백뇨를 줄이는 것이 필요한데, 안지오텐신 전환효소억제제, 수용체억제제 계열의 혈압약을 복용하는 것이 단백뇨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고 궁극적으로 만성 콩팥병 진행을 막는다는 것이 알려져 있어 복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단백질 섭취는 신기능의 악화 및 그에 따른 요독증을 일으킬 수 있어, 만성 콩팥병의 단계에 따라 적절한 수준으로 단백질을 제한하여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지질혈증이 만성 콩팥병 진행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어 이에 대한 엄격한 조절을 요합니다. 약제 복용과 더불어 체중 조절 및 식단 조절 등의 생활 식이 습관 조절이 병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만성 콩팥병 뿐만 아니라 심뇌혈관계 합병증도 예방할 수 있어 철저한 관리를 요하겠습니다.



만성 콩팥병에서는 콩팥에서 분비되는 조혈호르몬의 저하 및 요독으로 인한 골수 억제 등으로 인하여 빈혈이 발생되며, 말기 콩팥병 단계(5단계)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환자에서 빈혈이 동반됩니다. 빈혈은 만성 콩팥병 악화의 위험인자일 뿐만 아니라, 심부전 등의 심혈관계 합병증의 주요한 위험 인자로 알려져 있어, 일반적으로 만성 콩팥병 4단계부터 혈액 검사상 빈혈이 확인될 시 조혈 호르몬을 투약하면서 빈혈을 조절하게 되며, 만약 조혈 호르몬을 투약함에도 빈혈이 교정되지 않을 시 철결핍 빈혈 등의 다른 이유를 찾기 위한 검사를 요합니다.

약물 조절과 생활 습관 개선

투약하고 있는 약물 중 콩팥에서 대사되는 약물들이 있다면 본인의 신사구체 여과율에 따른 약물의 용량과 간격의 조절을 요합니다. 그러므로 투약과 관련하여 반드시 신장내과 전문의와 상담을 요하며, 특히 비스테로이드 소염제, 조영제, 신장 배설 항생제의 경우 콩팥 기능의 저하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어 투약에 주의를 요합니다. 또한 금연, 체중 조절, 저염식, 저단백·저칼륨/저인산 식이, 적절한 수준의 유산소 운동 등과 같은 생활 식이 습관 조절도 반드시 병행돼야 만성 콩팥병의 진행을 성공적으로 늦출 수 있습니다.

투석과 이식, 신대체 요법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말기 콩팥병으로 진행되고, 약제로 조절되지 않는 전해질 이상, 대사성 산증 및 체액 과다, 요독 증상 등이 발생하게 되면 신대체 요법을 고려하게 됩니다. 신대체 요법은 크게 투석과 이식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투석은 혈액 투석과 복막 투석으로 나뉘게 되며, 각 환자의 특성 및 생활 패턴에 따라 선택하게 됩니다. 혈액 투석과 복막 투석 모두 투석을 시행하기 위한 경로 확립(동정맥루 형성, 복막투석관 삽입)에 시간을 요함과 동시에, 투석 행위 자체가 환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많이 끼치기 때문에 어떤 투석 방법을 택할지 외래 방문시 신장내과 전문의와 꾸준한 상담을 요합니다.

이식은 콩팥 공여자에 따라 생체신이식과 뇌사자 신이식으로 나뉘게 됩니다. 생체신이식은 생체 공여자(대부분 가족 혹은 친척)의 한쪽 콩팥(대부분 좌측)을 적출하여 수혜자에게 이식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며, 신공여수술 및 이식수술이 공여자, 수혜자에게 안전하고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엄격한 절차 및 검사를 거쳐 진행됩니다. 뇌사자 신이식은 말기 콩팥병으로 투석을 진행하면서 뇌사자이식 등록 및 대기 중, 뇌사 환자가 발생했을 시, 기증 콩팥 적출을 통하여 이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식 역시 어떤 방법을 택할지 신장내과 전문의와 꾸준한 상담을 요합니다.



이장욱
동국대일산병원 신장내과 교수

'세상에서 가장 쉬운 건강법' 오행컬러패치 특판 할인가

국민대 스포츠건강재활 전공
심영세원 교수가 개발한 오행컬러패치!!
PDA식약처 검증된
피부 친화 Tpe겔 접착제 사용!!

천연광물의 원적외선 파동에너지 기술과
한의학 14경락 361경혈 기반
색상학, 수리학, 명리학을 접목하여
경직된 세포를 마사지하고 통증을 예방 · 완화하는
기술을 패치(파스) 한 장에 담았습니다.



자면서 저절로 건강해지는 패치(파스)
"취침 전 붙이고, 기상 후 떼세요"

1+1 소비자가 ~~₩99,000~~ 60%할인 ₩39,600 총 80매
3+3 소비자가 ~~₩297,000~~ 63%할인 ₩109,890 총 240매
5+5 소비자가 ~~₩495,000~~ 68%할인 ₩158,400 총 400매

QR코드를 카메라로 찍어보세요
사용법 강연 영상이 나옵니다
허리통증 무릎통증
어깨/목통증 손목/발목통증

NAVER 마하몰 YouTube 심영세원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전법 일기

어느 무더운 여름날 웅장원 찾아온 걸인

2020년 코로나19가 시작돼 점차 기승을 부리던 따뜻한 봄날에 산문 밖을 나섰다. 고여 있는 물은 썩는 법이라. 〈금강경〉과 〈법화경〉을 짊어지고 흐르는 물이 되어 보살행을 몸소 실천하고자 만행을 계획했다.

하산하던 날, 온 대중은 만행을 결정한 나를 의아해했다. 선방이나 율원을 간다면 능히 격려하며 보내줄 터이나 홀로 만행을 한다고 하니 은사스님은 상좌가 풍진 세상으로 들어가 행여나 악업에 물들까 전전긍긍하셨다. 그럼에도 나의 결정은 단호했다. 번잡한 시장에서도 그 마음을 청정히 하면 그곳이 곧 절이고 수행자라 하지 않았던가.

화광동진(和光同塵).

'그동안 세상 밖에서 살았으니 이제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 그 속에서 공부해야지. 그 속에서도 내 마음이 먼저 쉬어져야 관념의 함정에 빠지지 않을 터.'

만법이 하나로 돌아감을 알려면 그동안 일으킨 만 가지 번뇌를 떨치고 지금까지 온갖 세상의 이치대로, 상식과 관념으로 분별을 쉬어야 한다. 그렇게 오로지 모든 것을 연기(緣起)로 보자는 마음을 먹었다.

때맞춰 사방이 온갖 욕락으로 둘러싸인 뜨거운 길 위에 사는 사람들 가까이에 작은 포교당을 개원했다. 주위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연고도 없는 지역에서 포교당 불사가 불가능하다고 걱정했다. 그러나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는지라 오로지 화엄법계를 믿고 하나씩 쌓아올렸다. '웅장원(熊張湲)'은 그렇게 탄생했다. 지역주민 응모로 포교당 이름을 지어서일까. 물을 찾아 만생명이 모여들 듯 그때그때 인연에 따라 대중이 모여들었다.

하루는 여름날에 두툼한 겨울 점퍼와 반바지 차림을 한 걸인이 찾아와 돈 몇 푼을 요구했다. 큰 절이었으면 만날 일도 없었겠지만 이 또한 만행의 과정이리라. 처음엔 5000원을 부탁하던 사람은 시간이 지나며 때론 만원, 그리고 2만원으로 조금씩 더 큰돈을 원했다. 한편으론 의심이 들었지만 그 또한 분별심이라 여겼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 장대비가 쏟아지던 날, 걸인은 비에 젖은 몸으로 다시 웅장원을 찾았다. 진동하는 땀 냄새와 비에 한껏 젖은 신발, 그리고 구멍 난 짝짝이 양말…. 평소처럼 별 일 없이 돌아간 그는 2주 뒤 다시 찾아왔다. 그날 옆에 있던 도반스님은 미리 준비해둔 유명 메이커 신발과 양말을 선물했다. 발사이즈를 물었을 때 260을 신는다며 자신은 '나○키' 신발을 좋아한다던 말을 기억해놓았던 것이다. 아마도 10만원은 넘었을 새 신발에 걸인께서는 행복한 표정을 지었다. 그날 걸인은 웅장원에서 마지막으로 법당 부처님전에 절을 올렸다. 자그마한 분별심이 연민으로 바뀐 그날부터 걸인은 더 이상 웅장원에 오지 않았다.

말끔히 양복을 차려 입은 사람과 비루한 행색의 걸인. 그 모습에 사람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면 그건 나의 분별심 때문이다. 지금 내 모습을 비추는 거울은 무엇도 아닌 앞사람이란 걸 되새겨본다.



통도사포교소 웅장원
덕현 스님



공일 스님의 바이오테크놀로지, 불교로 읽다 ① 연재를 시작하며

'과학 만능'이라는 이상한 환상

우리 시대는 거대한 환상을 마주하고 있다. 이 환상은 그럴듯한 좌표를 제시해 주고 있다. 과학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환상은 과학에게 전능이라는 멋진 옷을 입혀준다. 과학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데이터와 실험실 증거들에 힘입어 설득력을 드높이고 있다. 과학에 대한 맹신은 기묘한 선험적 도식화 과정을 거치면서 윤리와 철학을 뒷자리로 물러서도록 강요하고 있다. 세상은 과학의 답변을 해답으로 받아들이며, 다른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으려 한다.

얼마 전까지 욕망은 '타자의 욕망'으로 이해됐다. 이 타자와 관련된 질문들은 주객이 전도돼 데이터는 인간에게 무엇인가로 변경되고 있다. 디지털 데이터의 지시에 충실한 인간은 곧 호모 디지털리스(Homo digitalis)의 탄생으로 이어진다. 과학으로 무장한 문명은 온갖 데이터를 제시하며 현대인을 조작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인간은 세련된 인공지능들을 마주하며 전능한 과학에게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지 묻고 있는 현실이다. 현대인은 사유능력을 포기하고 빅데이터의 지시에 충실하고자 한다. 과학은 욕망을 해석하고 메뉴로 제시하며 욕망에 대한 사용법을 구체화시키고 있다.

환상이 실제로 지향하는 것은 동일성을 지닌 주체를 형성하려는 시도이다. 인간에 의하여 제작되고 인간의 내면세계를 모방하여 기능적으로 인간화되던 인공지능은 이제 스스로 현실을 만들어 가고 있다. 주체의 동일성으로 무장한 인공지능은 타자화된 인간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화된 과학 자신을 만족시키며 인간을 배제하는 형국이다. 앞으로 과학과 인간 사이에서 벌어지는 것은 철저한 소외일 것이다. 과학은 스스로를 위해 기능할 뿐, 인간은 배제된다는 점에서 그렇다.

'탐구'라는 미명하에
과학 절대화의 환상이
가속화되는 현대 사회
'正見'으로 허상 탈피를

현대의 최첨단 과학은 인류에게 진정한 동반자가 되지 못한다. 순수과학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인간의 현실적 요구로부터 괴리되어 있다. 엘리트 과학자들은 호기심 그 자체를 위해 연구하기 때문이다. 응용과학 분야에서는 과학적 연구들이 철저히 상업화되어 자본의 질서에 편승하며 복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윤추구를 위한 과학기술의 실태가 그것이다.

과학기술은 기존 상식의 틀 위에 덧입혀진 선입견에서 벗어나 온갖 도구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 때 꽃피어난다. 가령 비윤리적 생체실험들은 인간 자신을 실험 대상으로 만들기까지 한다. 자연은 인간의 상상력보다 훨씬 더 풍부하기에 가능한 일이다. 탐구라는 미명하에 과학 절대화의 환상이 가속화된다. 우리 시대는 과학이라는 새로운 권위가 구석구석 작동하며 우리를 옥죄고 있다.

생태적 윤리의 가능성을 탐구하는 불교의 시선은 이러한 족쇄가 현실인지 검토하는 일이다. 인간의 마음은 결코 백지상태가 아니다. 진화과정에서 직면했던 생존경쟁으로부터 형성된 업식이 내재된 공간이다. 즉 적자생존과 적응이라는 과정을 통해 형성된 신경 회로의 총합이 탑재되어 작동하는 곳이다. 이처럼 생명이 데이터의 총합이 아니듯, 생태계는 기술이 조작할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렇다.

생명과 생태계를 따뜻하게 보듬고자 하는 실천이 커다란 의미의 자비관이 아니던가? 과학과 종교가 갈등 없이 동행할 수 있다는 주장들은 무엇인가? 불교는 과학에 대하여 유난히 긍정적이다. 하지만 이런 인식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의문을 가져야 한다. 올바른 시선, 즉 정견에 의하여 과학만능이라는 환상의 허울을 벗기는 노력이 필요하다.

〈봉은사 포교국장〉

기자칼럼

성경도 '구업'을 경계하라 했다

오래전 달동네에서 작은 법당을 두고 수행생활을 하다 20여 년 전 주택가로 이전한 스님과 잠시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스님에게 과거 허름한 법당을 떠나 이제는 제법 번듯한 사찰로 변모한 역사를 들으며 한창 고개를 끄덕이던 찰나였다.

"근데 달동네 시절이 더 좋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인가. 옛날 법당은 성인 3명이 서있으면 발 디딜 틈도 없을 정도로 좁다고 하셨으면서. 이런 황당함은 이어진 스님의 얘기에 곧바로 사라졌다.

스님이 사찰을 이전해온 동네는 대형교회와 신학대학이 즐비한 이른바 기독교 영역이었다. 이곳에서 스님은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주민들에게 심각한 텃세 피해를 입었다. 동네 꼬마아이들과 반갑게 인사라도 나누면 부모가 되레 아이에게 "인사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화를 내기 일쑤. 누군가는 "절에 들어가면 엄마, 아빠, 형제들이 암에 걸려 죽는다"는 폭언도 서슴지 않았다고 한다. 심지어 스님의 귀엔 "범죄자 소굴인 절"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소문도 들려왔다.

다른 종교와의 교류를 싫어하는 건 본인의 자유이지만 비방·폭언·욕설은 범죄다. 불교가 가장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신구의(身口意) 삼업 가운데 구업이 있는 이유다. 하물며 불교와 더불어 세계 3대 종교인 기독교에 이런 가르침이 없겠는가.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누가복음 6장 45절)

마태복음에서도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수확할 순 없는 일. 종교인이기에 앞서 사람됨이 먼저다. "말은 사람됨을 보여주는 거울"이라던 원로 신학자의 말씀이 떠오른다. 그릇된 신앙심으로 무고한 이를 괴롭히는 일, 스스로의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일은 예수도 원치 않을 것이다.



윤호섭 편집국 차장

현밀 스님의 뭉밀이 佛스타툰



일일시호일

사고가 집어삼킨 다리…
남은 건 치료비와 병든 아버지

스리랑카 이주민 시란씨, 손가락 이어 다리마저 절단
4000만원 병원 빚 감당 못해 퇴원…하루 한 끼로 버텨



농협 301-0189-0356-5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070.4707.1080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

‘나는 올바르다’는 착각서 벗어나라

현불논단



명법 스님
해인사 국일암 감원

유식학에 따르면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우리의 의식이 반연하여 만들어낸 경계이다. 이 말은 세계에 대한 객관적이고 올바른 인식이 우리에게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곤혹스러운 사실을 들춰낸다. 우리는 세상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믿고 있지만, 유식학이 말하는 진실은 이 믿음이 자기기만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이다.

모두가 ‘나는 올바르다’고 생각한다. 세상사람들이 뭐라 해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나름 멋도 있다고 생각한다. 나에게 설사 문제가 있더라도 언제나 변명거리가 준비돼 있다. 그것은 사소하거나 불가피했거나 아니면 우연히 그랬다고. 그러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다.

아마도 자기기만이 그저 혼자 자기도취에 빠진 것이라면 세상은 그처럼 혼란스럽지 않았을 것이다. 세상의 혼란과 나 스스로 겪는 고통이 모두 ‘나는 올바르다’는 생각 때문이라면 어떤가? 나는 올바르고 정당한데 어떻게 혼란의 주범이냐고 곧장 반박할 것이다.

사실 나는 올바르다는 생각은 세상의 혼란 정도가 아니라 모든 폭력의 원인이다. 나의 올바름에 대한 믿음은 타인의 그름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적어도 내 올바름을 세상에 실현하기 위해 올바르지 않은 세상, 악인이 사는 세상이 필요하다. 그러나 아는가? 타인의 악이 바로 나 자신의 투사임을. 적어도 유식학에 따른다면 세계는 나의 의식이 반연한 결과니까.

‘난 옳다’는 생각, 모든 폭력의 원인
맹목적 믿음, 타인 그름 만들기 때문
타인의 악함은 자신의 투사임을 알라

내가 올바르다는 생각은 나의 내면에도 폭력적으로 작용한다. 이상적인 나를 위해 나는 내 속에 있는 결여를 발견하고야 말기 때문이다. 그 결여를 은폐하기 위해 우리는 가짜 정체성을 만들어낸다. 그렇게 우리는 자신도 속이고 세상도 속인다.

‘나는 올바르다’는 생각은 사적인 관계에서도 관계를 왜곡시키지만 공론의 장에서 작용할 때 그 위험은 증폭된다. 그 중에서도 정치와 종교는 ‘나는 올바르다’는 생각이 가장 강력하게 작용하는 장이다. 생각과 의례를 공유하는 집단 안에서 나의 올바름에 대한 생각은 강화된다. 정치적 주장과 종교적 신념으로 결속된 집단들은 너무나 손쉽게 또 공공연하게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악마화한다.

4차산업혁명으로 세계는 더 연결되고 더 좁아졌다고 하지만 세계는 더 고립되고 배타적인 장소로 변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나의 관심을 끄는 것을 용케 찾아내는 알고리즘 덕분에 세계는 ‘좋아요’로 넘쳐나고 나의 올바름을 확정해주는 정보들만 오늘도 클릭수를 노리고 있다. 나와 다른 사람들, 나와 다른 생각을 전해주는 정보들은 차단되고 나의 세계는 더욱더 강화된다. 그 누구도 정보의 망, ‘좋아요’로 강화된 경계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새해 벽두부터 뒤숭숭하다. 일본 대지진과 야당 지도자에 대한 살해 시도는 새해 초부터 우리 모두를 충격에 빠지게 했다. 지난해 말, 유명 배우의 자살 또한 그러했다. 타인을 악마화하지 않으면 나의 올바름이 사라지는 세상이다. 유식학에 따른다면, AI 알고리즘 세계 역시 나의 투사이다. 악마화된 세상, 내가 만들어냈고 스스로를 속이는 그 세상에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음을 잊지 말자.

‘증오’라는 이름의 ‘신념’

세간과 출세간



박수호 교수
중앙승가대

갑진년 새해가 밝아진 지 열흘 남짓이 흘렀다. 탐진치 삼독에 물든 중생의 삶이 고되지 않은 적이 있겠냐만, 희망과 설렘으로 잠시의 고됨을 내려놓아도 좋았을 새해 벽두를 정말 당혹스러운 사건으로 시작해야 했다. 야당 대표가 백주대로에서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다쳤고, 지금은 다행스럽게도 건강을 회복해 1월 10일 퇴원했다.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여야 정치권은 어떠한 경우라도 폭력은 정당화돼서는 안 되고 용납할 수도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피습 사건이 속보로 전해지고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제 버릇 개 못 준다는 속담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다. 여야 정치권과 언론은 사건이 얼마 남지 않은 총선에 미칠 영향에만 신경을 곤두세웠고, 진영을 막론하고 온갖 유언비어와 루머가 난무했다.

마침, 이 글을 쓰고 있을 때 수사 결과가 발표됐다. 야당 대표가 대통령이 돼 나라가 좌파 세력에 넘어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정치적 신념을 위해 그랬다고 한다. 1년 가까이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 확신에 찬 행동이었고, 그래서 TV 속 범인의 모습은 당당해 보였다. 우리 사회는 군부독재를 넘어 민주주의의 기틀을 다졌는데, 다시 야만의 시절로 돌아간 것만 같아서 씁쓸했다.

신년부터 야당 대표 피습 ‘충격’
범인 신념 실체는 ‘증오’에 기반
당신의 분노, 합당한지 돌아보라

한편, 수사 결과가 발표된 날 병원에서 퇴원하는 야당 대표는 증오의 정치, 상대를 죽여 없애는 전쟁 같은 정치를 끝내야 한다는 말을 남겼다. 범인은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앞세웠고, 그 신념의 실체는 좌와 우를 편 가르고 어느 한쪽을 용납할 수 없는 대립과 증오였다.

작금의 한국 사회에 바로 증오의 신념은 한 개인의 차원을 넘어선다. 사회학적 개념으로 집합의식의 수준에서 작동하는 사회적 사실이다. 범인처럼 흉기를 휘두르지는 않지만, 우리 사회의 많은 이가 상대방을 해치는 구업과 의업을 짓고 있다. 비단 정치의 영역에서만 그런 것도 아니다. 차별과 불평등이 존재하는 모든 영역에서 증오와 폭력으로 서로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증오와 폭력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법구경〉에는 폭력으로써 폭력을 벗어날 수 없다는 말씀이 있다. 폭력의 악순환을 경계하는 구절도 여럿 있다. 〈맛지마니까야〉에서는 폭력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올바른 사유를 제시한다. 또한 〈법구경〉에는 증오는 오로지 자비에 의해 가라앉혀지며, 자비만이 칼과 화살을 벗어날 수 있다는 가르침도 담겨 있다.

폭력이 나쁘다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증오나 혐오가 옳지 않다는 말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폭력과 증오를 마주하고 성찰하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없다. 이제 마음을 차분히 하고 내 안의 증오가 어디에서 비롯됐는가, 타인의 증오나 분노가 나를 얽매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느끼는 증오와 분노가 합당한가 등을 돌이켜 보자. 증오의 신념이라는 상을 허물어야 하지 않겠는가?

社 說

종지종풍 기반해 혁신하는 불교로

조계종의 신성이자 최고 지도자인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가 종단을 이끄는 주요 소임자들에게 조계종풍을 바탕으로 한 새 시대 혁신을 주문했다고 한다.

조계종은 1월 12일 영축총림 통도사 설법전에서 종정예하 신년하례를 봉행했다. 이날 사부대중의 삼배를 받은 성파 대종사는 “종단은 조계종풍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꽃을 피워야 한다”며 “부처님 말씀은 경전으로 배우고 조사스님들 법문 귀로 들어 알지만, 세 살 먹은 어린이가 아는 것을 팔순 노인이 행하기 어렵다는 말처럼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올 한해 조계종은 많은 변화와 도전이 예상된다. 내부적으로는 총무원과 중앙종회를 중심으로 3원 체제인 중앙종무기관을 총무원 1원 체제로 변경하는 작업이 추진되며, 외부적으로는 청년 전법 활성화와 선명상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이 이뤄진다. 또한 대한민국불교도대법회, 국제선명상대회 등 굵직한 종단 사업들도 대거 추진된다.

이날 성파 대종사는 “부처님과 조사스님들 말씀을 거울로 삼으라”고 대중들에게 당부했다. 이는 새로운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조직의 혁신은 과거부터 이어온 전통과 뿌리에서 비롯된다는 가르침이기도 했다.

유구한 역사 속에서 형성돼 온 불교의 전통문화와 수행은 그 자체가 불교가 가진 유산이자 힘이다. 전통 속에서 변화의 길을 찾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

군포교 활성화로 청년 전법 중흥을

“무늬만 수계 군불자가 아니라 전역 이후 불자로 활동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전역 후 불자장병이 대학에 복학하면 해당 대학 불교동아리 지도교수가 동아리 활동을 안내하고, 대학생이 아니라면 지역 주지스님이 제대 장병을 청년회 활동을 연계하도록 독려해야 합니다.”

지난해 11월 27일 진행된 해봉당 자승 대종사의 마지막 인터뷰에서 대종사가 내놓은 군포교 진흥 계획이다. 자승 대종사의 군포교 유지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조계종이 군장병 전법 활성화를 위해 TF(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기 때문이다.

TF팀은 조계종 포교원, 군종특별교구, 청년대학생전법단으로 구성될 계획이며 군장병 DB구축을 통한 청년 전법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군포교 시스템 전반을 다룬다고 한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도 최근 중앙신도회 및 포교단체 임원진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군포교를 전담할 TF 조직을 언급했다. 스님은 “전법 포교의 오랜 경험과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있는 군불교는 대학생 청년 전법 포교의 최전선에서 최선봉이 돼야 할 것”이라며 전략적인 군포교에 나설 것을 강조했다.

오래 전부터 군포교는 미래 불교의 황금어장이라고 불려왔다. 군대에서 맺어진 불연(佛緣)이 대학으로 사회로 가정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앞으로 구성될 군전법 활성화 TF팀의 활동이 청년 전법 중흥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대표이사 : 혜도 스님 총괄국장 : 박재완 편집인 : 신중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04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6780-9190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최고급제품 & 착한가격 & 친절상담 & 빠른배송

동호불교물류센터

전국 최대규모 500평 매장에 불교용품의 모든것

2024년 신년맞이 행사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최고급 불교용품 판매를 고집하는 동호불교물류센터입니다.
저희 동호불교물류센터는 500평 매장에 모든 불교용품을 전시하여 판매 중에 있습니다.
고객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갑진년 할인행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차별화된 제품으로 고객님들을 모시겠습니다. 항상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제품

전품목 10~30%

승복&가방 50% 할인

제품 소진시 까지

※ 일부 품목 제외 ※ 택배비 포함된 가격입니다.

사월초파일 제품 할인판매합니다.

다양한 연잎, 등살, 등작업 2월말까지 행사중입니다.
인등 신제품 많이 준비 되었습니다. 주문제작 합니다.

수제부적	50장	20,000원씩
(국산)전기선 LED전구	100개 이상	1,300원



신제품

칠보인등은 굴다리형과 문살형 2가지 형태로 제작 됩니다. (불상은 수작업으로 정성을 다하였습니다.)
고증을 바탕으로 정교하게 제작 및 채식된 고급 인등입니다.
색상이 은은하고 고급스러우며 장엄한 인등입니다.
크기는 4치 입니다.

삼베, 검정삼베	개당	2,000원
	50개	100,000원
길베, 소창	개당	2,000원
오색종이	개당	450원

국산양초

밀대 50개	65,000원
돈타래 40개	75,000원
원백 20개	75,000원

식물성 양초 - 그을음 없는 최상급
(흰색,노랑색 가격동일)

7일초	20개	70,000원
5일초	24개	75,000원
3일초	40개	75,000원
1일초	100개	85,000원
15일초	12개	105,000원

수입양초

밀대 50개	65,000원
돈타래 40개	75,000원
원백 20개	75,000원

파라핀 오일

1BOX(12개)	65,000원

삼베 삼제풀이	100개	60,000원
일년 신수맞이	100장	120,000원

흰색 식물성 양초 B급 (※반품 안됨※)

7일, 5일, 3일	50,000원
15일	70,000원

대통부 6,000원 삼베옷 6,000원

속옷 남자 여자 각각
100장 이상 가격 15만원

베네저고리 1,500원
50장 이상 가격 75,000원

부적 파라핀 입춘 대길 수제부적 인쇄부적
할인행사 대방출!!

동호불교 검색

NAVER 에 동호불교를 검색하세요.

대량 구매시 전화 문의

※칠보 개금 할인중.(기존 불상 가능) ※3자기준좌포함 220만원
※불상 조각 조성합니다.(소불 500불이상 한불당 - 12,000원)
※천불이상은 11,000원

동호불교용품물류센터
■ 대표번호 : 054-762-8200
■ 찾아오시는길 :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공정길 55-36
■ 문의전화 : 010-9748-3366
■ 계좌번호 : ● 농협 010-2082-2100-89 (임건순)